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번호 : 24

글쓴날 : 2001-04-19 16:06:10

글쓴이 : 남희섭 조회 : 435

제목: 기술에 의한 저작물 보호

새로운 주제에 대한 간단한 의견입니다.

1. p2p 논쟁이 음악 분야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전망

p2p는 음악 파일의 유통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고, 그런 의도로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p2p 협회의 전현성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p2p는 그 활용 분야가 매우 다양한 기술입니다.

'소리바다'로 불거진 저작권 침해 논쟁이 영화나 방송 분야 등으로 확대된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거칠게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비해, 영화나 방송은 사용자가 반복해서 보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보관하려는 경향이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방송 제작자는 p2p에 의한 위협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2. 기술에 의한 저작권 보호

저는 법률에 의한 보호 특히,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사이버공간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또는 정보를 저작자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그 소유물을 타인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는 권한과 소유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경쟁력이란 소유물이 복제물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소유자에게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정보란 유체물과 다르고, 사이버공간에서 정보가 유체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정보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더 바람직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지배가 소유자의 지배를 방해하지 않고 가능하며, 타인의 소비가 소유자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재산권으로 보장하여 이것을 법률로 보호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복제물과 소유물의 질적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복제물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즉, 법률 위반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재산권 침해의 감시 비용과 강제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재산권 설정과 보호를 위한 비용보다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법률에 의한 보호로는 지금의 저작권과 같은 방식보다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자를 규제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위에서 얘기한 규제의 유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술에 의한 보호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분야입니다. 기술에 의한 보호가 법률과 결합되면 원래 저작권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시적인 독점을 부여하려고 했던 저작권법의 의도가 무시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이 크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물의 이용자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작권자에게도 네트워크 효과의 감소로 인해 저작물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부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 의한 보호가 법률과 결합한다면,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는 이와 더불어) 기술적 보호 조치를 권리자가 스스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범위와 시점을 법률로 강제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담론에서는 법률 이외의 규제 방식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에 의한 저작물의 보호 방식을 생각할 때, 다른 규제 방법 예컨대, 사이버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조, 행

위자를 지배하는 윤리규범,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의 시장, 법률, 개인적인 조치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호 : 25

글쓴날 : 2001-04-20 11:49:48

글쓴이 : 송정후 조회 : 328

제목: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말... 진보넷에서 소리바다에 관한 토론회가 있다며, FreeMuz(http://freemuz.wo.to/)의 운영자인 저에게 참석해줄것을 부탁해왔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토론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했다고 생각하기에 저 스스로 토론회의 토론자로서 자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한 뒤에도 지금까지 글 쓰기를 망설였습니다. 허나, 이왕 토론자가 되었고, 이젠 어디까지나 토론회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FreeMuz의 운영자로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MP3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파일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구호아래, 현재는 '소리바다를 살리자'라는 목표를 두고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인 FreeMuz 를 운영하고 있으며, MP3를 자주 애용하는 MP3매니아 이면서, 소리바다를 자주 이용하는 소리바다 이용자입니다. 제 주장에 다소 이치에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리바다는 넵스터가 서버에 MP3파일 리스트를 보관하면서 이를 검색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리스트를 아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서버는 일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 보유 여부를 의뢰, 해당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기만 할 뿐 누가 어떤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회와 음반사는 지난 2001년 2월 12일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자신을 갖고 고소. 현재 소리바다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리바다 고소 이유인즉....

협회 관계자는 "작년말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 공유가 아직은 CD 등 기존 음반판매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주사용층인 13-20세의 음반구입은 3.4-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상의 MP3 음악파일이 향후 음반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친기 기자)이며, 아울러 2000억원이라는 피해액 보상을 소리바다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MBC PD수첩 3월 27일 (http://www.imbc.com/tv/culture/pd/index.html)을 보면, 음반시장이 이렇게 침체된 이유는 최근들어 좋은 음악만을 골라담은 음반.. 일명 유니버스 음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네티즌들의 힘을 모아 소리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인 FreeMuz 를 송승현군과 함께 제작&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 의견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가 없는 소리바다를 살리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넵스터와 기술적으로 틀린 소리바다가 무죄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다른한편으로 말하고 싶은것은, 협회와 음반사가 굳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소리바다 대신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사용자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입니다.(변호사 이은우씨의 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넵스터의 서비스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1) 저작권자가 특정파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여
- (2) 넵스터에 해당파일의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그럴 경우 넵스터는 해당파일의 서비스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특정파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냐입니다

다. 예를 들어 파일의 이름이 yesterday.mp3 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인지. 파일의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므로 파일의 이름이 yesterday.mp3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yesterday라는 노래의 파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넵스터 사이트에서 yesterday.mp3 파일의 공유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책의 제목이나 노래의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각국의 저작권법의 입장이거나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무리 yesterday의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파일에 yesterday.mp3 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 파일의 공유를 막을 근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

이용자가 아니라 p2p 방식으로 중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p2p 방식으로 중간에서 서비스를 하는 자는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감시의무를 부과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넵스터에 대한 미국연방항소심의 판결과 미국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넵스터의 감시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견열로서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음악파일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정치적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됩니다. 미묘한 문제이지만, 인터넷의 혈관을 통한 정보의 이동을 자율 내지는 자정기능에 의존하여 정확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제한에 의존하여 정확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커다란 논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

* 부족한점이 한도끝도 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 FreeMuz(http://freemuz.wo.to/)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MP3 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파일을 무료로 교환

할 수 있어야 한다"

* 글쓴이 : 소리바다이용자&FreeMuz운영자 송정후.

번호 : 26

글쓴날 : 2001-04-20 11:51:03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425

제목: [사회자] 마지막 주제

토론을 시작한 지 어느새 2주가 되었군요. 이제 토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존의 저작권을 인터넷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끝나는 것인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2. 넵스터나 소리바다같은 서비스는 결국 유료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유료화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3. 저작권 강화나 유료화와 같은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문화적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기술 발달과 문화 발전과 수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기술 개발자와 콘텐츠 생산자와 일반 이용자의 권리를 고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만일 그런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 누구의 권리를 중심으로 인터넷의 이용방식을 세워야 할까?

며칠간 조용하더니 어제는 여러 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최경수 위원의 의견에는 다른 토론자에 대한 다소 신랄한 질책과 비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위원은 처음에 보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라는 메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론적인 논쟁거리라 견강부회하는 것', '구체적인 대안 없이 기존 제도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10여년 전에 마감한 '논란거리'일 뿐', '기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 이유는 이러이

러하다는...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

최경수 위원은 기존의 저작권을 인터넷에 확대적용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모두 '견강부회'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하는 황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또 최경수 위원은 '이미 외국에서 10여년 전에 마감한 논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대중화가 불과 6-7년 남짓한 현상이고,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논쟁에 불일 불인 클린턴 행정부의 '백서'가 발간된 것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발효되었어도 인터넷과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미국에서도 진행형인 논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수 위원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론에만 국한시킨다면 우지숙 교수가 이에 대해 답을 하실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한 두 분의 견해는 크게 대립됩니다. 우지숙 교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소 밋밋하게 진행되던 토론이 최위원의 신랄한 의견 제시로 이제야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곧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최위원의 신랄한 의견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로 보자면, 그렇게 반응을 제기해야 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일은 '장애우의 날'입니다. 장애우를 중심으로 세상을 정비한다면, 한결 편리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모래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이 날 11시부터 5시까지 세종로가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세종로 한복판에서 '해방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거리가 그렇게 항상 개방된 시민 문화의 거리가 되는 미래를 꿈꿔 보시길 바랍니다. 파리

의 상젤리제나 워싱턴의 워싱턴 몰과 같은 곳으로 세종로가 다시 태어나는 날을 꿈꿔 보시길 바랍니다.

번호 : 29

글쓴날 : 2001-04-23 19:10:16

글쓴이 : 홍성태 조회 : 873

제목: [사회자] 마무리

토론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처음에 바랬던 것보다는 토론이 '열띠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토론이 시작되려는 데, 끝내는 것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기술의 개발 및 이용방식, 콘텐츠의 생산 및 이용방식, 나아가 사회의 구성 및 변화방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일반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현행 저작권을 새로운 기술 및 콘텐츠 분야로 고스란히 확대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반대가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반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토론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정책당국과 입안자들이 명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 정통부에서는 다시 '인터넷 등급제'를 밀어붙이기로 했다는군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말로 미국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정리된 논란거리가 아니던가요? 왜 정통부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것(인터넷 등급제)은 악착같이 밀어 붙이고, 논란이 끝나지 않은 것(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은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취급을 할까요? 이야말로 연구과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토론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지켜보고 의견을 내 주신 여러 네티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정보통신질서확립법'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유 토론

번호 : 98

글쓴날 : 2001-04-06 01:20:02

글쓴이 : 하수 조회 : 20

제목: 다시 게시판으로 돌아오며...

밑에서 뒷짐에 아이디어까지 '김영식 2'로 바꾸고 '게시판을 떠나며'라며 쓰고 정말 게시판을 떠나기로 생각했었는데, 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게시판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저, 어제 식목일이라고 산에 가서 나무까지 심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살다보니 별 일을 다 합니다. 식목일날 나무도 다 심고 말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죽지 않고 잘 버틸지 모르겠네요. '화양목'이라고 뿌리도 별로 퍼지지 않았고(그래서, 나무 심는 거는 무지 편했습니다. 삽질 몇 번해서 조그만 구멍이 하나 만드니까, 그 나무 뿌리가 그냥 쏘옥 들어가버리더군요), 키도 썩만한게 덩치 큰 나무들 옆에 있으면 금방 죽을 걸 같던데... 아! 씨바! 괜히 산에 나무는 심어가지고, 새로운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었지 뭐니까? 이래서 국가가 하라고 하는 건 절대 따라하곤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공유일이라고 다 놀러가고, 혹은 집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을 시간에 나 혼자 괜히 땀이치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 심는 바람에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고... 이거 참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어제 산에 나무 하나를 심음으로 해서 서울시 공기오염문제를 상당히 해소하였으니까,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담배태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열심히 타고 다녀도 됩니다. 제가 어제 심은 나무가 공기정화도 해 주고, 산소도 열심히 만들어 줄테니까요. 여러분! 나 착하지요? ^^)

여기 게시판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감시받지 않고,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시판 아십니까? 이거 정말 환상적인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놀러 살기로 했습니다. 어여뻐 봐 주세요. 더군다나 오늘부터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나야 뭐 당근 해적질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말입니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까지

열리는데 그 재미있는 걸 놓칠 수야 없죠? 그런 걸 입 꼭 다물고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고문입니다. 나처럼 한시도 입을 놔두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조용히 해!" 하든 이거 거의 사형선고에 버금가는 중벌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스스로 나에게 선고했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게시판을 떠나며'는 취소!!! 히히. 그리고 나 시간 아주 많아요. 하루종일 여기서 살래요. 여기 게시판보니까 어차피 나 말고는 떠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하던데, 누가 와서 신나게 놀아주는 것두 나쁘지 않잖아요? 그지 않아요?

번호 : 99

글쓴날 : 2001-04-06 01:20:56

글쓴이 : 하수 조회 : 21

제목: 웅달샘과 소리바다

여기 게시판을 꼭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니까 2번 게시물이기에 제목이 아주 환상적인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어린왕자가 들려주는 넵스터 이야기"!!!! 카! 제목 죽이지 않습니다. '윤웅기 법무관'님이 쓰신 글입니다. 뭐 내가 읽어보니까 별 내용은 없는데, 괜히 이슥우화도 집어넣고, 어린왕자 얘기도 집어넣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만 잔뜩 해 놓았더군요. 난 윤웅기 법무관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유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난 윤웅기 법무관님이 'daum'에서 운영하시는 '사이버 로 카페(Cyberlaw cafe)'에 당원으로 가입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윤웅기 법무관님은 아무래도 '술'을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태평양법무법인에서 '로앤비'를 운영하시는 이해완판사님(아참, 이제는 판사님이 아니고 변호사님이죠. 죄송! 하도 이해완판사님 하는 말이 입에 붙어서 실수했습니다)보다는 약간 내공수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윤웅기 법무관님이 너무 글을 멋있게 써서 샘이 났다고 할까요? 나두 한번 그런 식으로 써볼려고 합니다. 참 말이 많지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

갑시다.

깊은 사-안-속 웅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오-끼가 눈 비비고 이-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먹고 가지요.

일단 인용하는 글 부터가 윤웅기법무관님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슥우화도 아니고 어린왕자도 아니고 유치하게 '웅달샘' 동요가사나 적어놓고 말입니다. 이런 웅달샘 동요가사에서 감성이 자극되는 사람 무지하게 이상한 사람 빼 놓고는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뭐,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그게 나의 한계인데. (아, 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소리바다 이용자님들 동요도 좀 올려주세요. 동요는 노래 아닙니까. 나 동요 무지 좋아한단 말입니다. 허걱! 지금 소리바다로 동요 검색해보니까 바로 346개를 찾아주네. 와 역시 대단하네요. 동요를 검색하고나니까, 갑자기 '야동'을 검색하고 싶네요. 아, 난 안돼. '동요'랑 '야동'은 글자는 비슷해도 이거 완전 천지차이인데, 어떻게 그 두개가 같이 연상이 되지. 그러나, 검색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깝네요! '야동'이 '동요'에 조금 밀리는군요. 339개 찾았습니다. 아, '야동' 동호인 여러분 조금 분발해야겠습니다. 아직 동요 동호인보다 조금 밀리는 거 같아요. 야동 동호인 여러분 8개만 더 올리세요. 그럼 역전할 수 있습니다. 허걱! 내가 무슨 말을 하는거지.)

그럼 이만, 끝. 안녕히!!!

=====

왜요? 좀 허전합니까? 뭔가 말을 하다 만 것 같은 기분이 드세요?

내가 뭐, 여기서 윤웅기 법무관님처럼 '웅달샘' 가사를 가지고서 '자, 봐라' 이 토끼의 행동.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세수'도 안하고 간다. 요즘처럼 공장폐수를 ton 단위로 퍼 붓는게 일상적인 이 시대에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자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실 줄 알았지요?

아니면, 웅달샘과 소리'바다'를 비교하면서 뭔가 샘물과 바다에 관한 심오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 기대하시는 분도 솔직히 꺾음은 있었겠죠? (역시,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기지만 '소리바다' 정말 '바다'

더군요. 그거 샘물과는 차원이 틀리네요. 없는 노래가 없고, 그 엄청난 속도, 그 엄청난 이용자. 정말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공해로 더럽혀지면 그 피해가 엄청날 거예요. 난 아주 잠깐 동안 이상한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글썄. 아, 소리바다에다가 mp3 파일을 가장해서 바이러스를 뿌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그게 거의 e-mail 바이러스에 버금가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텐데... 하고 말입니다. 나 나쁜 놈이지요. 그런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하지만 세상에는 별 놈이 다 있으니까. 나 말고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어쨌음반사 아저씨들이 열 받아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지 않아요? 우리 그거 나쁘게 생각하곤 안됩니다. 그것도 정보공유잖아요? 뭐, 우리가 꼭 좋은 정보만 공유하자는 것두 아니고, 나쁜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나쁜 정보 가려내달시고, 소리바다에 이상한 필터링 장치하고 이용자 추적하고 그러면 그거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감시받지 않고,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모처럼 음반사 아저씨들이 mp3 파일을 가장한 바이러스 파일을 공유하겠다는데, 일단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자본' 음반사 아저씨들이 그래도 '정보공유'에 동참하겠다는데, 뭐, 약간의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거 너그러이 봐 줍시다. 아,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본론에 해당하는 얘기는 딱 3줄(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지페드로 보았을 때) 써 놓고, 이상한 얘기는 22줄(역시 이지페드로 보았을 때) 써 놓았네요. 아,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무려 7배가 넘는 분량이 완전 쓸데없는 단 얘기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는) 아닙니다. 저 그런 얘기 쓸 줄 몰라요. 그냥 심심해서 '웅달샘 동요가사'를 이 게시판에 적어놓으면 어떨까하는 이상한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적어버리고 말았네요.

=====

운영자님!(근데, 여기두 운영자가 있나? 궁금하네...) 어쨌든, 나 이상한 얘기했다고 이글 안 지울거죠? 이글 지우든 그것두 표현의 자유 침해인데, 설마 그러지 않겠지요? 여기는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감시받지 않고,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자고 만들어진 게시판이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정보공유'와 아주 상관없는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글도 아니예요. 아주 짜금은 관련있어요.

그럼, 이만. 꾸벅.

번호 : 100

글쓴날 : 2001-04-06 01:23:10

글쓴이 : 하수 조회 : 35

첨부파일 : 01-08.txt (90568 Bytes)

제목: 극악서생과 소리바다

드디어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3연참이라고 하던가요. 세계를 연달아 울리는 거 말입니다. 내가 이 게시판이 아니면 어디서 3연참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게시판 좋은 거 같아요. 아참, 제가 여기서 다시 '말장난' 아니(죄송합니다) '토크'를 다시 하겠되었다는 것에 너무 흥분을 하여서 그만 깜박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이제 '정보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kiss 님이 올린 92번 게시물인가에 대한 답을 하다 보니까(그건 제가 97번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뒤편에 있는 게시물이라 잘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하긴, 여긴 워낙 썰렁한 게시물이라서 맨 앞에 있는 게시물도 기껏해야 평균 조회수가 10회밖에 안 되더군만요. 뭐 지금 이 게시물도 기껏해야 두 세명 읽어보겠죠... 뭐) 정보공유, 그거 생각보다 무지 좋은 거 있죠? 아, 진작에 정보공유론자가 될 걸.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란 거 있잖습니까? 그거 꼭 지킬 필요 없는 거래요. 난 그걸 몰랐지 뭐니까? 진작에 알아야 하는데. 어쨌든 정보공유하기만 하면 돈 들 일이 없겠더라고요. 음악도 공짜, 영화도 공짜, 소프트웨어도 공짜. 소설도 공짜.(더군다나 제 후배가 최근 CD-WRITER 까지 장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이제 그 후배한테 공CD 몇 장 사다주고 야, 소리바다에 올라있는 거 그냥 다 구워버려, 하고 말만 하든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대한민국, 역시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MP3 Player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주시요. 나도 이제 mp3 로 노래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내가 한때 오디오 매니아이기도 했었지만, 음질 따지는 거 그거 사치아닙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한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안 그래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반대했지? 아마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나봐요. 어쨌든 최소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정보공유'하면 다 공짜니까 우리 모두 적극 동참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절대 '디지털 정보'는 생산하지 마세요. 그걸로 돈 벌 생각하든 그거 바보예요. 그거 다 '정보공유'해버리면 다 '공짜'니까 그걸로 절대 돈 못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정보공유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최근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무협지 or 환타지인(이거 장르비빔이 아주 심각해서 어느 쪽이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난 그냥 무협지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통 무협지쪽에서 이게 무슨 무협지냐고 하면서 화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극악서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역시 호소 한마디. 무협지 동호인 여러분! 우리도 소리바다에서 무협지 공유하기로 합시다. 무협지는 텍스트나 아래하 한글 문서 아닌 ms word 문서니까 그거 mp3 보다 용량도 훨씬 작잖아요. 그거 뒤에다 확장자로 txt 나 hwp, doc 뒤에 mp3 하나만 더 달면 소리바다에서 다 공유됩니다. 힘들게 이곳저곳 흠뻑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요. 무협지 동호인 여러분!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봅시다. 그럼 무협지 동호인 여러분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아, 근데요. 제가 아직 정보공유가 몸에 체화가 안 되어서 전체를 다 올려버리는 거는 좀 겁이 나네요. 일단 1회부터 8회까지만 올릴게요. 혹시 더 보고 싶으시면 여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더 올릴테니까. 내가 여기 '극악서생' 올렸다고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고자질하지 않을거죠? 근데 이거 게시물로 불러면 무척 피곤할텐데... 그래서, 첨부물로도 올려놓을게요. 일단 게시물로 읽어보시고, 재미있으시면 첨부파일 다운받으세요. 그거 다운받아서 이지뷰어로 읽으면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

역시 게시판 운영자님! 이거 안 지울거죠? 이거 정보공유랑 아주 관계가 많은 글인데... 이거 지우면 그거 언론탄압입니다. 자, 그럼 올립니다!

번호 : 101

글쓴날 : 2001-04-06 05:06:27

글쓴이 : 객관자 조회 : 69

제목: 도둑놈심보 이상한 논리로 치장하지 맙시다.

음악 만든 당사자가 "공짜로 써라"라고 허락하면 가져다 쓰시고, 당사자가 "돈 주고 써라"라고 하면 돈 주고 쓰세요.. 돈 주기 싫으면 안쓰면 그만이지.. 이상한 논리 내세우지 맙시다. 여기 논리는 이거 아뇨.. 창작자가 굶어죽든지 잘 살든지의 알아서 하고 다만 나는 공짜로 먹어야겠다. 나도 공짜 좋아하고 도둑놈 심보도 만만치 않은 속물이지만 이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이상한 논리로 치장하지도 않고 틀린건 틀린거지

번호 : 104

글쓴날 : 2001-04-06 13:07:16

글쓴이 : 하수 조회 : 49

제목: Re: 도둑놈 심보 이상한 논리로 치장하지 맙시다.

정보공유론자 여러분! 이 아자씨 참 이상한 아자씨죠? 그죠? 음악만든 사람이 "공짜로 쓰라"고 하면 우리가 미쳤다고 "정보공유" 어쩌구 저쩌구 떠들겠어요? 음악만든 사람이 "돈주고 쓰라" 그러고, 우린 "싫다, 그냥 공짜로 쓸래" 그래서 정보공유 얘기 나온 거 아니예요? 맞죠? 이 아자씨, 정보공유가 먼저 모르나봐요. 정보공유, 그거 원래 "도둑질"이랑 똑같은 건데... 그걸 모르네... 이상하다. 나두 이제 그거 알겠는데... 야, 역시 정보공유론자로 변절하길 참 잘했네요. 그냥 말이 술술 나오네요...

아, 참 말 나온 김에, 저기요. 여기 PD 수첩 링크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파일로 올립니다. 요즘 스트리밍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나두 있는데. 이왕 막 나가기로 한거, 우리가 MBC 눈치 살필 필요 없잖아요. PD 수첩 보니까, MBC 도 우리 편인 거 같던데... 스트리밍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느리더라고요. 그러구 그거 중간쯤부터 봐야 하는데, 다운받아서 보면 그게 되게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정보공유론자 여러분! 찬성하시죠? 그리고, 그 토

론 있잖아요? 그거 언제 시작해요? 아직도 안 올라왔던데. 나 입이 심심해서 무지 괴롭단 말이에요. 토론 빨리 시작합시다!!!

번호 : 105

글쓴날 : 2001-04-06 14:00:01

글쓴이 : kiss 조회 : 38

제목: Re: 도둑놈 심보 이상한 논리로 치장하지 맙시다.

소리바다의 경우, 공짜로 쓰자는게 아니라 음반사가 사용자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까지 간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수기 한대 사서 동네에다 설치해 놓고, 동네사람들 많이 이용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정수기 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 와서 너 땀수돗물 안 팔리니까 정수기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법원이 음반사 입장을 받아들여서 소리바다를 이용한 파일 교환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 계속 소리바다를 이용하는게 도둑질 또는 해적질이 되겠고,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거죠.

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불복중운동?이나 법 개정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거고...(그러면 도둑놈이자 투사가 되는건가?) 그러니까 소리바다 이용자를 다 범법자나 도둑놈으로 몰지 마세요. 또 도둑놈으로 몰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피해봤는지도 얘기 못하잖아요. PD수첩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면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리바다 등장 이후 수입이 안 줄었다고 하고, 음반협회도 보니까 매출이 안 줄었지만,, 피해액이라고 집계한건 단순한 추정치더만요. 완존히 주먹구구식으로.. 음반사야 말로, 이거 소리바다에서 음악 교환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 돈 물리면 '도랑치고 가재잡겠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번호 : 107

글쓴날 : 2001-04-06 15:17:26

글쓴이 : 하수 조회 : 40

제목: Re: Re: 도둑놈 심보 이상한 논리로 치장하지

지 맙시다.

이 게시판에서 저의 말을 가장 열심히 들어주시는 kiss 님이 올릴 글입니다. 역시 최대한 엽기적으로, 유아틱하게 답변해야겠지요? 이름하야 엽기토론. 내가 97번 게시글에서 시도했던 거 여기서 다시 시도 합니다.

소리바다의 경우, 공짜로 쓰자는게 아니라 음반사가 사용자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까지 간섭할 수 있는냐는 거예요

-> 소리바다 돈 주고 이용하세요? (아,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죠? 나 정보공유론자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곤 안되는거죠? 그죠?)

내가 정수기 한대 사서 동네에다 설치해 놓고, 동네사람들 많이 이용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정수기 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 와서 너 댁시 수도물 안 팔리니까 정수기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 정수기 한대 사서 동네에 설치해 놓고 동네사람들이 그거 이용해도 수도값은 내야 합니다. 정수기 그거 지하수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물 정수하는 거 맞죠? (와, 내가 이젠 정수기가 어떤 건지까지 설명을 다 하네그러. 나, 혹시 천재 아닐까?. 음, 여기저기서 돌 날라오는 것이 보이는구나. 피하자!!!)

그럼,님께서 정말 동네사람들이 쓴 수도물값이다 내실 거예요? 어디 사세요? 뭐, 수도물값이 얼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인데, 가끔 이용해 달라구요.(아, 또 안티 정보공유론자적 발언을 하고 말았네요. 도대체 내 정체는 뭘까요? 정보공유론자야? 아니면 안티 정보공유론자야? 와, 막,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민되네... 그리고 이번엔 정수기였지만, 다음에 우물물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정말 대책없을 것 같은데... 와, 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구만... 그땐, 다시 정보공유론자가 되어 버려, 그냥! 아참, 나 지금도 정보공유론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고민했네)

법원이 음반사 입장을 받아들여서 소리바다를 이

용한 파일 교환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 계속 소리바다를 이용하는게 도둑질 또는 해적질이 되겠고, 아니더라고 하면 아닌거죠

-> 이거 책임회피성 발언 아닙니까? 정보공유론자면 정보공유론자답게 법원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법원 대단하게 생각하시나 본데, 법원 별거 아니예요... 개네들이 '신'도 아니고, 개네들이 기른 기다 아니론 아니다, 이거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와이구, 큰 일났다. 이젠 막 반정부성 발언까지 막 해버렸네... 나 이거 이러다가 쫓겨다니는 거 아냐? 이거)

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불복 중운동?이나 법 개정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거고...(그러면 도둑놈이자 투사가 되는건가?)

-> 아, 역시. 내가 잠시 남을 오해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소신있게 밀어붙여야죠. 법원에다 책임 떠 넘기고 그럼 안되죠.

여기서 전 또 새로운 말을 배웠습니다. 글쎄 "정보공유"가 "도둑질"이랑 똑같은 줄은 알았지만 "투사"가 "도둑놈"이랑 똑같은지는 몰랐지 뭐니까? 나, 여기 게시판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 게시판 정말 좋은 게시판이에요. 그죠. (아, 글쿠나. "투사"랑 "도둑놈"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위외됐다 다음에 또 써 먹어야지)

그러니까 소리바다 이용자를 다 범법자나 도둑놈으로 몰지 마세요

-> 누구야? 소리바다 이용자를 도둑놈으로 몬 사람이? 선량한 이용자를 도둑놈으로 몰지 맙시다. (나 간만에 옳은 말 한 거 같죠? ^^)

또 도둑놈으로 몰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피해왔는지도 얘기 못하잖아요

-> 맞아요. 피해자가 바보론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할 때 피해자가 바보지 아닌지 보고 도둑질해야 돼요. 그죠? 똑똑한놈 거 도둑질하든 박살납니다. 우리 모두 바보 것만 도둑질합니다. (역시 난 정보공유론자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 서니까 그냥 말이 수을 슬 나오네요)

PD수첩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면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리바다 등장 이후 수입이 안 줄었다고 하고, 음반협회도 보니까 매출이 안 줄었지만,, 피해액이라고 집계한건 단순한 추정치 더만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 저작권협회에서 돈 안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네들은 저작권료 받아서 사는데, 음반판매량이랑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 울 나란 저작권료를 러닝로알티로 받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니까 음반판매량이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MBC 그거 방송국이 그런 것두 안 가르쳐 주고, 방송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죠? MBC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님이 이런 실수는 안하는 건데. 우리 모두 MBC에 항의할까요?)

그리고, 음반사, 개네들 바보 같아요? 그죠? 미국은 벌써 우리 손해 얼마다, 이게 딱 데이터로 나오고 그래서 냅스터가 폼짝을 못했는데, 울 나라 음반사 그게 안 나온다는 거 아니요? (저도 PD수첩 봤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못 봤는데, 여기에 링크시켜놨더라고요. 역시 디지털 세상, 좋은 세상이예요) 왜 그럴까? 그동안 제대로 세금신고 안하고 뒷구멍으로 팔아먹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반사 아자씨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음반사야 말로, 이거 소리바다에서 음악 교환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 돈 몰리면 '도랑치고 가재잡겠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헉! 어떻게 알았지? 비밀인데. 저기요, 음반사가 그러는게 아니구요, 저작권협회, 개네들이 그런데요. 저작권협회랑 지금 양정환(아이구, 아이구, 내가 그만 실명을 거론하고 말았네요. 그냥 소리바다 운영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난 이 입이 썩게 문제야) 지금 막 그 얘기하고 있네요. 소리바다 유료화해서 양정환이 넌 얼마 갖고, 우리 저작권협회는 얼마 갖고... 그리고 음반사 개네들은 양정환 너 괴롭혔으니까, 한푼도 주지말자, 알았지? 이런데요. (어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젠 막 고자질장까지 돼 버렸네... 고자질!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음,

반성하자)

나. 답변 무지 빨리 올리죠? 계속해서 전화오고, 할 일이 생기고 하는 등의 갠세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답변 올리잖아요. 그죠? 나 처럼 열성팬이 이 게시판에 있다는 거, 이거 축복받을 일이에요, 안 그래요?

번호 : 109

글쓴날 : 2001-04-06 18:24:30

글쓴이 : kiss 조회 : 22

제목: 엽기토론이라...재미있네요.

열심히 답글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엽기토론이라...저도 그냥 엽기로 써볼가여?

우물이 있었죠... 제가 나중에 우물파면 정수기 한대 사서 동네사람들하고 공유하죠. 뭐.. 그때 님도 오셔요..자유이용권 드리죠... 우물 개발해도 나라에 얼마가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내죠. 뭐... 스톨만이 그랬다죠... '좋은건 나누어야죠'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제가 영어가 짧아서리..

글구.... '도둑놈이자 투사'라고 하면 '도둑놈 = 투사'가 성립합니까? 국어공부 좀 더 하셔야 겠네... 뭐 그렇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투사가 되려면 나쁜 직함 하나는 더 있어야 겠더라고요.. 빨갱이...공산당...좌경용공세력... 체제 전복 세력... 테러리스트...폭력집단.... 그리고 보니 도둑놈은 좀 낫네요...

이런.... 글을 쓰고 보니... 자꾸 내용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쓸쓸한걸요... 자꾸...한말 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라인 토론회 토론자들 보니까 변호사도 있고...잘나가는 분 많던데.. 그분들 야그나 열심히 들어볼까요? 저도 하수님 처럼 기대가 되는 걸요...

번호 : 110

글쓴날 : 2001-04-06 18:43:50

글쓴이 : 하수 조회 : 29

제목: 어린왕자와 악어 이야기

어린왕자가 길을 가는데,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악어가 어린 왕자에게 말을 했지요. "내가 너 잡아먹을 건지, 안 잡아먹을건지 알아맞히면 그냥 보내주겠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네, 날 잡아먹을거야" 이 말을 듣고 악어는 어린 왕자를 보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악어가 만일 잡아먹을 생각이었으면, 어린왕자가 맞힌 것이 되니까, 보내주어야 하고, 악어가 안 잡아먹을 생각이었으면, 어린 왕자가 틀렸지만,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반협이라고 했다가, 하수라고 했다가 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찍찍해대면서 게시판 분위기 다 망치고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게시판이 바로 악어예요. 표현의 자유를 듬뿍 보장해야 하니까, 저를 어찌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물 얘기인데요, 저도 그거 생각해봤는데요, 소리바다 운영자나 이용자, 우물 판 사람 아니예요. 남의 우물물 훔쳐다가 나눠주면서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리바다 돈 받을까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뭐, '의적'이란 것도 있으니까,,,

난 남들께 정말 남들이 직접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스톨만처럼. (난 스톨츠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니 스톨만이 맞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남께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 이번엔 그런대로 멋있게 썼죠? 그죠?

번호 : 102

글쓴날 : 2001-04-06 10:16:52

글쓴이 : UDP 조회 : 44

제목: 하수님.. 질문 항개 올립니다어^^

이 게시판의 지난 글들을 좀 훑어보니 제가 다른 곳에서 논쟁을 벌였던 흐름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분위기로 나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겠더군요. 물론 모든 게시물을 정독한 것은 아니기에 딱히 어떤 견해가 옳고 그른 지의 판단에는 자신이 서질 않습니다만.. 언뜻 눈에 와 박히는 것이 '하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더군요.

> -> 앵, 뭘 말이죠? 일부는 맞네요. 하두 불법복제가 많아서리 합리적 가격보다는 좀 비싸거 같아요. 뭐, 하지만, 그것은 시장이 불법복제까지 감안해서리 책정한 가격이었죠, 뭐. ->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용자들이 불법복제 안하고, 열심히 돈주고 사면 소프트웨어 가격도 내려가고,

외국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는 전세계의 이용자를 판매대상으로 삼습니다. 일례로 MS의 제품은 국가별 다국어제품군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 가격은 미달러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같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국가별 불법복제율의 편차를 고려한다면 불법복제를 감안한 책정가격이라는 남의 논리를 따르기 위해선 제품가격이 국가별로 차등화되어 책정, 판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고 따라서 정품사용자가 늘면 소프트의 가격이 인하된다는 남의 말씀은 설득력이 조금은 (약 2% ^^;) 부족한 듯 싶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가격인하 효과가 과연 외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음.. 정작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게 아니었고.. --; 사실 이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는 지라.. 남의 견해를 잠시 빌리고자 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음악의 (개인목적) 테이프 녹음이 불법일까 하는 점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론 불법이 아닐 듯 싶습니다만.. 왜냐.. 방송 디제이들이 친절하게도 녹음할 타이밍을 청취자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무개씨.. 지금 음악 들어갑니다. 녹음버튼 누르세요.. 큐~" 이런 멘트를 간혹 접할 때가 없으신지요. 이러한 방식의 녹음이 불법이 아니어야 얘기가 짚나게 돌아갈 텐데.. ㄱ용.. 어쨌든.. 불법이 아니라고 치고.. 불법이라면야 그냥 함 쪽팔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라디오를 통한 테이프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면 컴퓨터를 통한 음악파일의 가정내 개인 목적 사용이 우짜서 불법인지 그 두 방식간의 비교연산을 통해 사고할 필요가 없지는 않지 않겠나,, 뭐,, 제 주장은 이쯤되는 거랍니다. 리어카 테이프 음반(테잎) 판매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 하여 뭐같이 조졌으면 라디오를 통한 공테이프 녹음 역시 제지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음.. 또 뭐.. 이 문제도 이쯤하고..

제가 이 게시판 저 게시판에서 여러 토론에 잠깐

잠깐 말참견 하다가 생긴 정말 궁금한 점 한가지가 있습니다. 거, 누구도 알려주지 않더만요. ㅠ.ㅠ;

바로 다음과 같은 범조항들 때문인데..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위한복제)

第27條 (私的 利用을 위한 複製) 公表된 著作物을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個人的으로 이용하거나 家庭 및 이에 準하는 限定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複製할 수 있다. 다만, 一般公衆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設置된 複製機器에 의한 複製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施行日 2000·7·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第1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프로그램을 複製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家庭 및 이에 準하는 한정된 場所에서의 개인적인 目的(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第14條 (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①프로그램의 複製物을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所持·사용하는 者는 그 複製物의 滅失·毀損 또는 變質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複製物을 複製할 수 있다.

이거이기 보통 헛갈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프로그램보호법의 14조1항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아무리 봐도 12조4호에서 말하는 복제란 "정당한 권원으로 소지한 정품복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자신없는 부분인데.. 이에 한수 가르쳐 주십사 하는 한마디 제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만일 개인복제가 불법으로 걸렸다 한다면 과연 어느 법규가 근거법조가 될런지요. 그리고 위 12조 4호는 언제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인지에 대한 친절하신 가르침 한 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소리바다의 존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않지요. 소리바다를 통해 다운 받는 프로그램이나 P2P 시스템을 통해 다운받는 상용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한 공테이프 녹음이나 모두 한결같이 가정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받는단 이 말씀입니다.

물론 소리바다는 저작물의 중계,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시스템이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쳐도 아예 중계서버가 없는 음악파일 다운로드 라디오 등에서의 음악다운(테이프녹음)과 비교하여 크게 어떤 점이 잘못으로 지적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현실에서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많은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점,, 뭐,, 저도 인정은 합니다. 허나 도대체 위와 같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는 케이스에 대해 상상이 가당지를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답답한 딜레마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어찌면 이곳에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다음 글은 제가 어느 게시판에서 토론 중 답변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기냥 함 올려봅니다. 왜 올리느냐구요? 건 저도 모름다. 자,,자,, 배 썰시다. --;

시민들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해야... 저작권자가 갖는 이윤추구 등의 권능 못지않게 시민들의 정보기본권이라는 지적 충족 기회의 보장을 법은 우선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봅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정보향유의 기회가 좌우되는 불공평함을 막고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정보 습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저작권법 등에서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사적복제"를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들간의 복잡한 연관성과 관계법조항간의 형평을 위한 도미노식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인해 작년에 있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12조 4호의 <가정내 사적목적 복제> 조항을 문제삼는 많은 인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 조항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보호법에 적시된 문제의 조항은 여전히 이를 둘러싼 술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보호와 정보기본권의 대립되는 틈바구니 속에서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업적 목적이 배제된 "가정내 개인목적 복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케이스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이라 규정짓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와레즈를 통한 소프트웨어 유포 (다운장소 링크) 문제가 작년 12월 중순경 관련 사건 초유로 불법판정을 받아 해당 와레즈 운영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일명 나모사건) 허나 이는 현행법 상으로도 "가정내 개인목적 복제"와는 전혀 별개의 경우라 할 수 있고 또한 차후 법적 상태의 추이에 따라 상기 케이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변화될 수 있음을 전혀 부정치는 못할 것입니다. P2P서버인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공유가 상기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으며 이의 판결여부가 이와 근거리에 있는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덧붙여 기술적으로 당국의 통제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중간 서버가 매개되지 않은 전형적 P2P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파일 공유 문제 또한 짚어봐야 할 점이며 이도 역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핵심 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프로그램판매회사가 "개인목적복제"를 문제삼을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이와 관련된 근거조항으로 내세우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르리라 보입니다. 그럴 경우 법이 내세우는 "개인목적복제권리" 조항의 취지가 전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에 대한 판단의 전권을 저작권자에게 내어맡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시민들의 정보기본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한 시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모두 고려할 때 지금 이시각 "개인목적 프로그램복제" 문제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무우 자르듯 당장에 정의내려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하략)

번호 : 103

글쓴날 : 2001-04-06 12:36:57

글쓴이 : 하수 조회 : 41

제목: Re: 하수님.. 질문 항개 올립니다여~~

맨날 칸죽거리기만 하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그거 기분 되게 이상하네요. 뭐, 모처럼의 질문인데,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아, 참 그리고, 이 답변은 정보공유론자로 변질하기 전의 자세로 답변하겠습니다. 밑에 '극악서생과 소리바다'가 읽어보시면 내가 정보공유론자로 변질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구 또 헛소리가 나올려구 하네. 그럼 시작!

외국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는 전세계의 이용자를 판매대상으로 삼습니다. 일례로 MS의 제품은 국가별 다국어제품군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가격은 미달러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같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국가별 불법복제율의 편차를 고려한다면 불법복제를 감안한 책정가격이라는 녀의 논리를 따르기 위해선 제품가격이 국가별로 차등화되어 책정, 판매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질 못하고 따라서 정품사용자가 늘면 소프트의 가격이 인하된다는 녀의 말씀은 설득력이 조금은 (약 2% ^^;) 부족한 듯 싶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가격인하 효과가 과연 외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 나두 솔직히 말해서 MS 무지 싫어해요. 역시 그놈들 나쁜 놈들이네요? 그죠? 난 우리나라가 불법복제가 많아서 우리나라만 비싼 줄 알았지 뭐니까? 아, 맞아. 우리나라만 비쌀 수가 없구나. 그럼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아니지 그냥 온라인으로 영문 MS-Office 하나 싣는 걸로 사버리든 되잖아. 그러면 한글 MS-Office는 안 팔리고 영문 MS-Office만 불티나게 팔리겠네... 영문 MS-Office도 쓰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메뉴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한글폰트가 부족한 거 말고는... 틀렸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MS 지들도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지 몰라도 신은 아니지 않아요? 지네들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의 미국보다 몇 % 높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렸을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제품을 구매해서 쓸 놈이 몇명이나 될지 그거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아마, 절대 못 맞힐 거야? 그죠? 그러면 개네들이 불법복제율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개네들이

아마도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시장점유율에 대한 대강의 데이터는 있을테고, 개네들이 1년에 써야할 비용도 대충 나올테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려면 연구개발비(아참, 이것두 비용에 포함되지), 어쨌든 그런 것두 대충 나오고 그럼 가격도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개네들 우리나라 아래하 한글 시장 잠식할때는 무지하게 싼 가격에 MS-Word 내 놓았던 걸텐데... 우리가 전부 리눅스 써버리면 개네들이 계속 그 가격을 고집할려나? 아, 씨마, 우리가 MS 한테 "이제 우리 죽어도 불법복제안할테니까 좀 싸게 팔아줘, 약속할게, 정말 불법복제안할게" 하든 개네들이 가격내려줄려나? 내가 뭘 소리를 하는 걸까요? 경쟁체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쨌든 불법복제는 MS 한테 별로 손해는 안날거 같죠? 그렇게라도 계속 시장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개네들은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아, 그래도 이번 질문은 무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댄 소리 안하고 정말 정중하게 진지한 답변으로만 칸을 메꾸었네. 음, 나두 진지해질려면 진지해질 수 있구나...)

사실 이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는 지라.. 녀의 견해를 잠시 빌리고자 하는 거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라디오 방송을 통한 음악의 (개인목적) 테이프 녹음이 불법일까 하는 점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론 불법이 아닐 듯 싶습니다만.. 왜냐.. 방송 디제이들이 친절하게도 녹음할 타이밍을 청취자들에게 알려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아무개씨.. 지금 음악 들어갑니다. 녹음버튼 누르세요.. 큐~" 이런 멘트를 간혹 접할 때가 없으신지요. 이러한 방식의 녹음이 불법이 아니어야 얘기가 썩나게 돌아갈 텐데.. 끄응.. 어쨌든.. 불법이 아니라고 치고.. 불법이라면야 그냥 함쪽팔려주면 되는 거 아니게씀?

만일 라디오를 통한 테이프 녹음이 불법이 아니라면 컴퓨터를 통한 음악파일의 가정내 개인 목적 사용이 우짜서 불법인지 그 두 방식간의 비교연산을 통해 사고할 필요가 없지는 않지 않겠나.. 뭐.. 제 주장은 이쯤되는 거랍니다.

라이어카 테입이 음반(테입)판매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 하여 뭐같이 조졌으면 라디오를 통한 공테입 녹음 역시 제지당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아, 음반사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당근 조져야지요 근데 안 조져내? 왜 안 조질까? 혹시 방송사가 돈 주는 거 아닐까요? "방송보상금"이라고..

라이어카 개네들은 돈 안 주니까, 계속 조지는 거구... 강우석 감독이 만든 "투캅스"에두 나오잖아요 열심히 상납하든 경찰도 봐주고 그런던데, 방송사 애들 아마 그럴걸요..

이 문제가 소리바다의 존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소리바다를 통해 다운 받는 프로그램이나 P2P 시스템을 통해 다운받는 상용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한 공테입 녹음이나 모두 한결같이 가정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받는단이 말씀입니다.

물론 소리바다는 저작물의 중계,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시스템이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쳐도 아예 중계서버가 없는 음악파일 다운로드든 라디오 등에서의 음악다운(테입녹음)과 비교하여 크게 어떤 점이 잘못으로 지적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현실에서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제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많은 부분에서 상충된다는 점,, 뭐,, 저도 인정은 합니다. 허나 도대체 위와 같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는 케이스에 대해 상상이 가닿지를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답답한 딜레마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어쩌면 이곳에서 그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 아, 이제 저도 유명해진 거 맞죠.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고 보니까 꼭 내가 여기 방장쯤 되는 거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 운영자님(만일 있다면)! 저 안 짜를거죠? 역시, 이 게시판 좋은 게시판이에요(저 안 찰린다고 엄청 아부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쓸데없는 소릴 해보렸네요. 역시 이래서 나는 안 되나 봐요. 이거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냥 쉽게 대답하죠.

P2P의 특징 하나!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버가 된

다. 즉,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버 겸 클라이언트가 된다. 소리바다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옵션 항목 눌러 보세요. 그럼 두번째 항목으로 "개인서버"항목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 님의 컴퓨터가 서버로 기능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개인서버 항목은 하나도 안 거드렸으니까 대강 님의 꺼랑 비슷할 겁니다.

한 손님당 최대 동시접속 3(내 꺼는 3명까지만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숫자가 넘어가면 내 컴퓨터에 접속이 안된다는 얘기겠죠) 에, 그 다음부터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설명서에 대충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무슨 말이죠? 님께서 서버가 되어 버렸네요. 그럼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만든거랑 똑같네. 그럼 님께서 '배포자'가 되어 버렸네요. 아이구, 이걸 어찌지요. '배포'에 대해서는 "사적이용을 복제" 어찌구 하는 예외조항도 없는 거 같은데.(맞나? 나중에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아야지). 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리바다 이용자가 350만명이나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있겠어요? 당분간 처벌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럼, 서버기능은 안 사용하든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혹시나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폴더랑 다운로드 폴더랑 다르게 설정해서(이거 설정기능도 있더라구요. 역시 소리바다 좋은 프로그램이예요. 그죠?) 공유폴더에는 mp3 하나도 안 놓고, 다운로드 폴더로 다운받기만 하든 말입니다. 아마, 그건 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거예요. 그럼 처벌 안 받아도 되죠. 아셨죠. 소리바다를 이용하면서도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거. 내가 님께만 알려드리는 특별 비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용자가 그렇게 다운받기만 하고 아무도 올리지 않으면 난 누구 걸 다운받지? 되게 궁금해지네? 그죠.

그리고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으면 그게 '공유정신'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가는 현찰, 아니 오가는 MP3 파일속에 찍트는 공유정신 아니겠어요. 난 "정보공유"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줄 몰랐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그게 "해적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글썄. 아, 나 그걸 왜 몰랐을까?

어쨌든 그래서, 일설에는 이거 정말 설이예요. 절대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판데가서 퍼뜨리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명예훼손"이나 뭐 그런 걸로 잡혀갈지 몰라요. 어쨌든 일설에는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

들이 열심히 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가능성있는 얘지요. mp3 파일이 공짜로 무지 많이 널려 있어야 mp3 플레이어가 팔리지. mp3 파일 하나도 구할 수 없으면 그거 팔리겠어요? DVD 타이틀이 하나도 없는데, DVD 플레이어가 팔리겠어요? 그러니까 개네들이 mp3 파일을 마구마구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친 억측인가?

그리고,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으로는 간략하게 난 현재의 진행을 "거대자본" 대 "선량한 소리바다 이용자"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거대자본" 대 "거대자본"의 싸움으로 본다는 걸로 대신합니다.

번호 : 111
글쓴날 : 2001-04-06 19:55:21
글쓴이 : UDP 조희 : 22
제목: Re: Re: c/s 강의 잘 들었습니다여~

> 개네들 우리나라 아래하 한글 시장 잠식할때는 무지하게 싼 가격에 MS-Word 내 놓았던 것인데... 우리가 전부 리눅스 써버리면 개네들이 계속 그 가격을 고집할려나?

리눅스라, 늘강 접해 귀에 익은 플랫폼을 이곳에 서까지 들노라니 일단 우선은 반가운 맘부터 드는군요. 과거 리눅스를 설치하고 사용하셨다 하시니 우쭐했던 같은 리눅서로서의 연대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네요. 헉~ 이런 표현까지 탄지잡힐까봐 친밀감 표시는 예서 그만 접기로 하고.... ^^;

전세계적으로 리눅스가 개인용 데스크탑 운영체제로서의 자리매김이 확산되면 분명히 MS 제품군의 가격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는 바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솔라리스라는 유닉스 제품의 가격변화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아마도 이 회사는 Windows-NT와 리눅스라는 기업용 서버제품의 급작스런 성장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그 비싸다는 유닉스를 무료배포정책으로 방향을 선회시켰겠지요. 그러나 한국 유저들만의 리눅스 사용이라면 이것이 곧 MS의 가격 정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되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찻잔 속 해일에 불

과할 듯.

그리고 아래한글 시장 잠식때의 MS-Word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워드는 가까운 세진컴퓨터랜드에만 가도 무료로 구입할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지하게 싼" 가격 정도가 아니라 한 때 완전 무료로 배포되었던 것이죠.

근데,, 하수님.. 저의 이와 관련된 질문.. 즉 정품구입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별 가격은 똑같이 책정된다는 문의에 대해 정작 답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좀 독해력이 약해서리.. 쉽게 좀 풀어주십사 하는 바램인데.. 그러니까 MS 제품에 대한 한국유저들의 정품 사용률이 올라간다고해도 유독 한국에서만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님,, 맞다는 겁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 좀 해주십쇼.

> P2P의 특징 하나!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버가 된다. 즉,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버 겸 클라이언트가 된다.

님의 c/s 강의, 정말이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득 가슴을 치밀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질문 항개가 또다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거 정말 병 아닐지 몰라.. 님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이 버릇.. 정말 문젠입니다.. 문제.. ... 라고는 해도.. ^^; 궁극한 점은 도저히 못 참는 성미인지라.. 염치 불구하고 질문 들어갑니다..

혹시 가정내 홈랜을 구축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뭐, 컴 세대도 필요없고.. 딱 두대를 크로스 랜케이블로 연결시켜보면 님의 c/s 주장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본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연결된 두대의 컴퓨터 또한 경우에 따라 c/s의 역할을 분담하는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홈랜을 사용하면서 "나, 말야.. 집에서 서버를 하나 운영하고 있거덩~" 이런 주장 어디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웃음거리 됩니다. 일반적으로 c/s란 한 호스트에 여러 더미터미널이 물려있던 과거의 랜구조에서 착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호스트 관리 목적을 위해 파생되었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데이터 이동에 수반되는 트래픽과 리소스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 어느 정도 이런 기반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에 설치하여 호스트에 쏟아지는 막중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c/s 구조가 착상된

것 뿐이지, 중앙집중시스템으로서의 서버에 대한 의미는 과거 그리고 현재 호스트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리바다와 같은 형태의 중간서버(파일매개역할)를 통한 P2P와, 두대를 연결한 홈랜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의 저편에 있는 사용자와 일대일로 맞닿은 경우까지를 아울러 c/s 구조라 일컫기에는 c/s의 본래적 의미에 비추어 결코 옳은 표현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일부에서 단순히 그리 불리워지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만일 그럴 경우 이와 같은 구조는 친구의 음악시디나 테이프 등을 빌린 복제와 그다지 다르다 할 수는 없을 듯 한데 이때 시디나 테이프를 빌려준 친구(P2P에서의 업로드에 해당) 의 행위도 과연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의 사적복제란 도대체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는지에 대한 친절하고도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과연 현저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개인복제허용조항이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습득한 저작물에 대해 멸실이나 훼손을 대비한 한두개의 복제만을 허용한다는 취지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인지..만일 그렇다면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정보기본권"이란 것이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사용자사이에서 아예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등등과 같은 많은 의문점이 한꺼번에 치솟는구만요. 아참, 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라디오를 통한 공테입 녹음이 위법이라고.. 정말 자신하십니까?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선 VCR 녹화를 먼저 고려해 보도록 하지요. 가정내 방영중인 프로그램의 VCR 녹화는 불법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녹화된 VCR 테이프에서 음성(혹은 노래)만을 따로 떼어 오디오를 통한 공테입 녹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아, 물론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써의 공테입을 통한 음악 녹음과 라디오를 통한 녹음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 런지요. 도대체가 아무런 차이도 찾아볼 수 없질 않습니까. 더 확장시켜 보자면 컴퓨터를 통한 P2P 시스템에서의 음악파일 다운로드는 이에 견주어 하등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헉~ 이 점은 벌써 님이 동의하신 거네요. 다만 업로드가 문제라 하셨지요. 업로드 문제라면 이미 위에서 제가 님께 견해를 여쭙 바 있습니다. 일단은,, 제 주장이 이상과 같습니다. 이에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바

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번호 : 112

글쓴날 : 2001-04-06 21:28:11

글쓴이 : 하수 조희 : 22

제목: Re: Re: Re: c/s 강의 잘 들었습니다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와! 이번에 나 제대로 임자 만난 거 맞죠? 큰일났다. 일단 프린트해서 읽어봐야겠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용.

먼저, 첫번째 질문.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 빌 게이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든 나, 또 탄 소리하는 거겠죠?(으악! 벌써 돌이 날아오기 시작하는구나. 으 씨! 아직 나 말 다 안 했어요? 돌을 던질때 던지더라도 다 듣고나서 던지세요)

음, 그리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 하나. MS 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죠? 그 비싼 걸 무료로 배포했던 말입니까? (그때 하나 받아들 걸. 쟈. 난 왜 그걸 몰랐지? 후회된다.

아, 맞다! 난 그때 불법 복제해서 쓰고 있어서 정품 구입할 필요가 없었구나.)

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아직도 대답을 안했네요. 여러분 내가 이런 식으로 탄소리만 하고 어물쩍하고 대답안하고 넘어갈 것 같죠?(어케 알았지?) 뭐, 내가 솔직히 MS 직원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정품사용한다고, 가격내려갈 것 같지는 않네요.(아, 나, 인정할 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이러세요? 오늘 신문보니까, MS 개네들 있잖아요, 이전에 조립 PC 업체한테 MS-Window 군을 할인해서 팔았었잖아요. 글썄, 그것두 없었대요. 그리고 이번 불법복제 단속을 틈타서 마구마구 비싸게 판대요. 그거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MS 제품을 아무리 불법복제품이라고 해도 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거 절대 쓰지 맙시다!

첫번째 질문 답변 끝. (아, 참, 그럼 시장이 가격을 정한다는 나의 대전제가 무너지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다시 취소하고, 불법복제가 없어지면 MS

가격 내려간다고 계속 우길까?) 여러분, 제가 모처럼 만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 이거 보기 좋지 않습니까? 화무십일홍이라고(와, 흥분하니까 그냥 어려운 문자가 저절로 구사되네, 그려. 근데 무슨 뜻일까? 무협지에 보른 나오지롱) 드디어 하수! 이놈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수, 이놈을 이곳 게시판에서 쫓아낼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니다.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래두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와! 이번엔 완전 갈릴레이 버전이네). 시장이 가격을 정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 님이 말한 썬다이크로 시스템즈, 유닉스, 리눅스. 이거 이제 슬슬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네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든 MS 개네들이 그냥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가 MS 말고는 써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들도 알고보면 꽤 좋은 제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좀 더디지만, 우리 참아야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OS 를 개발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이상,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 더 좋아지고, 더 쓰기 편해지도록, 우리 그거 무지 많이 사 줘야해요. 안 그래요? 내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법복제해서 MS 를 쓴다고 해도, 결국 우리 MS 손 안에서 돌아나는 꼴입니다. 그러다 걸리든 우리만 망하는 겁니다. 불법복제 쓰는 거, 그거 나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짜로 MS 거 써서, 우리가 MS 골탕먹이는 거 같지만, 그래두 우리 MS 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더이상 MS 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MS 불법복제 많이 하든 MS 개네들이 가격 내리겠습니까? (어쨌, 조금 이상하죠? 나두 잘 모르겠다. 에구에구)

두 번째 질문.

이거 또 만만치않은 질문이네요. 아, 내가 왜 클라이언트와 서버얘기를 했던가? 나, 그런 거 사실 하나두 모르는데. 여러분, 하수, 이놈 여기서 완전히 맛이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UDP 아자씨, 그거 정말 병입니다. 그것두 아주 해로운 병이예요. 벌써, 하수 이놈, 맛이 살짝 가기 시작했잖아요. 두번째 질문 답한다고 해 놓고 아직두 답을 안하고 있네요. 야, 하수의 이 뻔뻔함. 거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이렇게 쓸데없는 말

을 잔뜩 써 놓았으니까, 여기까지 읽는 사람 별로 없을거야, 히히. 일단 안심이다. 그래두 혹시 모르니까, 이 문제는 맨 뒤에 써서 읽는 사람이 별로 없게 만들어야지. 히히)

에, 설라문에,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에 답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끝날 때까지 꺾금만 기들려주세요. 알았지요?

세 번째 질문.

앵? 내가 라디오를 통한 공테입 녹음이 위법이라고 했나요? 그럼, 큰일인데, 그거 변호사 아자씨가 입으든 금방 뽀록나는건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 아, 음반사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당근 조져야지요. 근데 안 조지네? 왜 안 조질까? 혹시 방송사가 돈 주는 거 아닐까요? "방송보상금"이라고... 리어카 개네들은 돈 안 주니까, 계속 조지는 거구... 강우석 감독이 만든 "투캅스"에 두 나오잖아요. 열심히 상납하든 경찰도 봐주고 그런던데, 방송사애들 아마 그럴걸요...

아하! 내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썼네요. 난 업로드를 생각하고, 방송사가 청취자에게 그냥 녹음할 수 있게 음악을 마구 틀어제끼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청취자의 녹음행위, 그거 불법 아니예요. 취소, 취소. 라디오 녹음, VCR 녹음, 불법 아니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CD 사서 그거 테이프에 녹음하는 것두 불법 아니예요. 또 CD 사서 MP3 파일로 복제하는 것두 불법 아니예요.

그럼 모가 불법이지? (갑자기 궁금해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앵? 모른다고요? 이상하다. 이쯤하든 다 알텐데... '소리바다'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이용행위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정보공유'랑 상관있는 거 같지만서두 약간 논의의 핵심이 틀립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오든 "현행 지적재산권법 시스템"이 그야말로 '거대자본'의 '인터넷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소리바다' 논쟁이 "현행 지적재산권법 시스템"내에서의 '법리논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와, 나 정말 유식하죠. 그 어려운 지적재산권법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그죠?)

와! 그러구보니까 이분 되게 똑똑하다. UDP 아자씨, 혹시 변호사 뭐,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행위가 '사적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리바다 이용자'의 행위에는 '업로드'의 성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만일,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복제(다운로드)'를 받았다면 그것두 '사적이용을 복제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와! 범주, 공유, 복제, 온갖 어려운 법률용어가 다 튀어나오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를 어케 생각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처럼, '창작자에게 굶어죽을 자유'만을 부여하는 줄 알았던 현행 지적재산권법 시스템이 요런 요상한 제도를 두었을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거봐요! 현행 지적재산권법이 '독점'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요? 나, 생각보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앵? 이거 뭐야? '이에 많은 가르침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바입니다' 이거 무지 어려운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데, 이거 완전 일제 식민지의 잔재인데, 어케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까? 반성하세요. UDP 아자씨.(하~, 한숨 나오는 소리. 이거 쓸데없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구, 그렇다고 여기서 다 얘기해버려, 어떻게? 옛따 모르겠다. 나 밀친 다 드러낸다. 이제 아자씨들 맘대로 하세요. 다 아는 거 이거 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내가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나요?)

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내가 집에서 쓰는 거, 그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맞지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친한 친구에게 공짜로 주는 거, 그것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맞을 거 같지요? 그럼, 내가 아주 발이 넓어요. 무슨 말이나? 내 친구가 자그마치 350만명이예요.(와, 이 사람 대통령나오두 될 것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구가 많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350만명 친구들에게 하나씩 복제해서 나눠주는 그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배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나 대답 똑바로 안했다구 욕하지 마세요. 나 이거 무지 노력한겁니다. 이 이상 요구할려면 그거 변호사 아자씨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는 하지만(속, 꺾금만 잘난 척하든 바로 돌이 날라오는 시스템이네요. 와! 이거 아주 훌륭한 게시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언론통제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가 변호사보다 똑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 두 번째 답변

나, 서버, 클라이언트, 이거 솔직히 잘 몰라요. (아까 말했지요. 나 인정할 거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모른다고는 당근 모른다고 해야지, 아는 척해 봤자, 금방 무식이 뽀록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천재두 아니고, 뭐, 정수기에서부터 스텐만큼까지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솔직히 이거는 잘 몰라서 질문으로 떼우겠습니다. 소리바다가 일대일로 물려 있는겁니까? 일대다로 물려있는겁니까? '서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구 아까 내가 대답에서 얼핏 3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동시접속을 기준으로 한 거는 맞지요? 그럼 나한테서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3명이란 제한은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계속해서 '소리바다'에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말입니다. 난, 그래서 '소리바다'의 '서버' 기능이란 '홈페이지' 개설한 것이랑 똑같다구 한 건데...

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기고만장하던 하수, 이놈이 드디어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이제 이 게시판 조용해질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이상 끝!

드디어 길고 긴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구, 이제 하수, 정말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거 같지 않습니

까? 여러분. 아닌가? 하수, 이미 완존 목사발이 난 건가요? 그래도 하수가 누굽니까? 이 정보공유 게시판에서, 그야말로 방자하게, 헛소리 적적해대던 뻔뻔스런 놈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수가 그리 쉽게 물러설까요? 우리 하수가 다음 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어이구, 온라인 토론은 왜 이리 시작을 안하는거야. 그냥 사회자의 '토론시작' 이거 말고는 조용하네, 이거 하수가 완존 깨져야 시작할려나? 그때까지 버틸려면 무지 힘들텐데, 큰일났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제 밀친 다 드러났는데,,, 음, 정 안되든 적당한 시점을 봐서 36계 줄행랑이다.... 히히히....)

번호 : 114

글쓴날 : 2001-04-07 04:02:15

글쓴이 : UDP 조회 : 30

제목: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와 같은 쓰임새가 일제식 표현이라.. 난 내가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내게 익숙해진 용어들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로.. '짜장면'이 그렇고 '바랭'이 그러하며 '후덥지근하다'와 '효과'의 발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설득될 만한 적절한 논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내게서 이런 용어의 쓰임새를 떼어놓기란 아마도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저는 이곳에서 토론을 벌이던 님들과 약간은 논의의 관점을 달리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펼치고자 하는 논의가 이곳 토론방의 주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소지가 다분함을 부인치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순히 일개 소리바다와 같은 P2P 시스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보다 포괄적이고 가히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한 차세대 P2P 시스템을 겨냥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논의 주제인 '정보 공유'의 당위에 대한 접근은 아예 논의로 치부했다는 것이며 이는 저의 접근 방법이 사면초가로 틀어막힐 경우 여차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님과 저는 약간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결코 고의적이라 할 수 없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게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P2P 시스템의 c/s 구조에 대한님과 저의 해석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는 일반적인 P2P 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이었고,님은 소리바다의 구조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아귀가 엇물린 채 각자의 주장만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치달을 수 밖에요.

다음은님의 글입니다.

P2P의 특징 하나!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버가 된다. 즉, 이용자의 컴퓨터가 서버 겸 클라이언트가 된다. 소리바다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옵션 항목 눌러보세요.

소리바다와 연결구조가 다른 제3의 P2P 시스템을님은 고려치 않은게 아닌가 생각되는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소리바다에 관련된 토론방에 들어와서 웬 동판지 같은 소리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그건 바로 정곡에 대한 일침과 같은 지적과 같아 저는 이에 암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정이 그리 된다면 일파안은님의 승리로 상황은 종료되고 맙니다. 설마 그걸 바라고 계신 건 아니시겠조? 그리하여 제 잡글은 계속되고야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운명인 게지여. --; 신의 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킁! P2P라 하면 퍼스널 대 퍼스널.. 즉 개인대 개인.. 일대일의 관계를 일컫는 용어로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뭐, 제 자의적 정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 싶군요.^^) 그러니까 일대다.. 이러면 벌써 피투피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왜 소리바다를 P2P 시스템으로 규정짓느냐.. 대략 유저 네다섯 정도의 연결 (동시접속)은 넓게 봐서 개인간 연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 것이 아닐런지요. 이는 분명님이 지적하신 c/s 환경을 따르는 구조가 맞습니다. (저는 지난 글에서 진정 일대일 시스템만을 예를 들어 만족을 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풀어내기 위해선 P2P 시스템을 우선 개인적 범위로 국한시킬

수 있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확립시키는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벌써 용어에 대한 정의 확립됐을까? 헉~) 일단 P2P 구조가 개인적 범위로 한정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판명나면..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개인간 이메일 시스템이지요. 이메일은 첨부파일을 동봉하여 동시에 다수에게 발송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점은 동시에 여럿에게 개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환경(c/s 구조)이나의 여부판단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파일교환이 개인목적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로 문제의 위법성이 판가름날 듯싶군요. 분명히 이메일 교환은 네티즌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P2P 시스템도 이에 준해 사적 영역으로 해석될 구석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건 개인적 차원에서의 위법성 문제입니다. 소리바다는 단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파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예를 함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당발이라는 별명을 지녔고,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대인관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 분야의 사람과는 더욱 그러합니다. B는 꼭 구해야만 될 음악파일이 있으면 A의 소개를 받아 해당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C등과 연락을 취해 필요한 음악파일을 빌려 개인적으로 복제합니다. 물론 금전거래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D,E,F,G,H,Z,AA,AB,AC...AAA,AAB 등도 A를 통해 필요한 사람과 연락을 취해 필요한 음악파일을 손에 넣습니다. 이때 A는 B,C,D...등 사이를 통해 유통하는 음악파일을 중간에서 전혀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A는 단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음악파일을 어느 누가 소지했고, 그 소지한 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뿐이며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준 사실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A라는 사람에게 음악파일 유포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소리바다는 바로 이

A라는 자의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소리바다 가입 회원이라는 사람이 N이라는 사람과 음악파일을 교환할 때, 소리바다 서버를 경유하는 것이 결코 A이라는 애깁니다.

이 점에 대한 님의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님의 말씀입니다.

시장이 가격을 정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 님이 말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유닉스, 리눅스. 이거 이제 슬슬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네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MS 개네들이 그냥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가 MS 말고는 썬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이것들도 알고보면 꽤 좋은 제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님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을 지적합니다. 유닉스는 결코 개인용 데스크탑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결코 이를 MS의 데스크탑용 윈도우즈 버전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리눅스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십수년 동안 사용자들의 손에 익어버린 플랫폼과 운영체제를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MS가 인텔의 386 시스템을 맞아 윈도우95를 개발하면서 지난 AT 시절에 사용됐던 도스와 그에 따른 메모리 지정방식의 제약이었던 1메가의 한계를 끌어안아 절름발이 운영체제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저들을 아우를 수 있었던 점이 MS 신화의 원동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처음부터 32비트 설계를 감행했던 매킨토시의 실패와 비견되는 점이며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컴퓨터 유저들은 그만큼 과거에 손에 익었던 플랫폼을 쉽게 저버릴 수는 없다는 또다른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아,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일단 유보키로 하죠.. 글이 넘 길어져서.. 주제가 분산될 위험성이 있을 듯 싶군요. ^^; 여하튼.. 이번 글은 이쯤에서 줄입니다. 님의 반박 기대하겠습니다.

번호 : 115

글쓴날 : 2001-04-07 21:36:24

글쓴이 : 하수 조회 : 20

제목: Re: 소리바다는 음악파일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흑! 짜장면 초식으로 기습을! 음! 엄청난 고수군요. 당금 무렵에서 "일제잔재"는 소림의 "달마역근경"과 비견되는 최고급의 무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가볍게 피하다니... 님의 아이디어를 고수로 바꾸심이 어떠하실지? 그러고 보니 전, "소리바다"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P2P 시스템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아, 역시 하수! 화끈하시죠. 바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해버리고 마는군요. 그런데, 어째 자꾸 하수가 밀린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으세요? 이거 정말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1. 일대일 파일교류와의 비교

일단 님의 지적대로, 이메일과 그리고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메신저(뭐, 전 다음 메신저만 쓰긴 합니다만)를 통한 파일 송수신, 파일 공유 글씨요, 이것은 현재까지는 당근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반사도 가만있지, 안 그래요? 소리바다는 위에서 본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좀 더 발전한 시스템 아니냐? 글씨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무지 어렵지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니까, 역시 하수 버벅대는군요. 아무래도 하수, 기술계통에는 일자무식인거 같아요)

뭐, 그런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오프라인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도대체 몇명까지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는나? 이럼, 이거 몇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선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확 선을 그어서, '그래, 3명까지는 되고, 4명부터는 안되' 이래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무도 그러질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야 할까? 아주 쉽죠. 나중에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든 되 지롱.

2. 소리바다의 연결시스템

역시, 님은 고수십니다. '소리바다'가 어떤 식으로 이용자를 연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난 소리바다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소리바다가 그런 식으로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있었군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일, 이용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도 '소리바다'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 씨바,(죄송, 하수, 논리가 딸리니까, 바로 욕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용자들 다 감옥에 가도 '소리바다'는 아무 책임 없습니까? 일단 소리바다 유저들간의 교환행위는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것입니까?(하수, 하수답지 않게 말을 무지 어렵게 쓰고 있군요? "불법일 수도 있다" 아, 이런 약한 표현 좀처럼 하수에게서 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이거)

3. 시장 시스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은 절대 포기 못하는 하수의 고집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하수, 이 세계에서 완존 떠나야지요. 내가 어제 약간 버벅대긴 했지만, 그렇다고 목사발난 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아닌가? 목사발이 났나?) 여기서 바로 목사발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요? 일단, 으씨 Window NT 도 서버용 OS (이런 걸 이렇게 부르는 거 맞나?) 잼아요? 안 그래요? 서버용 OS 에서 MS 점유율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확고부동한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던 Unix 에 대항해서 시장점유율 올리려고 무지 고생, 노력했잖아요? 다음에, 내가 어제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만 MS Word 공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조립 PC 업체에 Window OS 할인하고 그랬다메요. 그럼, 우리나라만 약간 가격정책을 달리 가져간 거잖아요? (아, 하수, 이젠 별걸 다 트집잡는군요, 어제 분명히 인정할 거 인정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하수, 이제 거의 사망직전의 상황인 거 같습니다) MS 의 시장지배력,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MS 의 가격정책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MS 가 워낙 다국적 기업이니, 전세계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각 나라마다의 특성을 인정해서 조금씩 달리 가져갈 것인지, 그거 MS 가 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뭐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어제 그냥 '내가 빌 게이츠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걸로 대답하는 게 정답이었네,,, 아쉽다...)

(아, 가만, 이렇게만 말하면 또 MS 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게 되나? 하여간 이 시장시스템 이거

무지 어렵다니까요?) MS 가 어느정도의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 이거 그만큼 소비자들이 MS 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이름이야 시장지배적 지위, 혁, 그리고보니까, 또 MS 가 독점이란 걸 인정하는 꼴이 되네, 야, 이게 피해가기가 무지 어렵구나), 으씨, 그래요, MS 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치고(하수, 또 하나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네요. 야, 마지노선, 이 어려운 말을, 마치 하수가 2차세계대전때 프랑스에 참전하기라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 그래서 어떻다는거예요? 억울하든 당신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든 되지. MS 가 그저 거저먹기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했습니까? 그거 차지할라고, 무지 노력했잖아요? MS Word 도 공짜로 뿌리고, 익스플로어 그것두 공짜로 뿌리고, 애 또 등등. 뭐, 단 회사는 안 그러나요? 익스플로어 그거만 봐도 그래요? 넷스케이프가 한때 팍 잡아던 거 MS 가 뒤집기 한판으로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장을 확 없애버리고, MS 다 공짜로 나누어주는 거 그것두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맞게 쓰고 있는건가? 하수, 거의 벼랑끝으로 몰린 거 같지요? 조금만 분발합시다. 하수, 팍팍 밀어줍시다. 벼랑끝으로!!!)

어쨌든 불법복제가 시장지배에 대항하는 수단 아니지요? 불법복제는 이용자가 돈을 안낸다 뿐이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MS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거 MS 시장지배정책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MS Word 공짜로 마구 뿌리고, 그러면서 한컴을 고사 직전으로 몰아놓고, 그거 시장에서의 싸움이잖아요? 한컴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을 팍 잡고 있으니까 MS 도 별수 없었잖아요? MS Word 공짜로 뿌리고 생쇼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든 님이 한번 MS 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게 적당한지 말해보실래요? (야, 이거 하수의 비장의 무기 같겠습니까? 어쩌면 결정타가 될 듯 싶기도 한데, 이걸로 누구하나는 맛 보냈던거 같던데,,, 이번에도 통할려나? 님이 워낙 고수라서,,, 웬지, 찜찜하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이런 머리 아픈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어디 좋은 데 놀러나 갑시다. 바야흐로 꽃들이 만발한 이 계절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거, 이거 인간성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이글 읽지 마세요, 알았지요?(아참, 지금 이글 읽을 때쯤이른 벌써 다 읽었겠구나, 어찌지?) 나요? 나, 이 게시판에서 죽지나라고 일도 못하고, 내일은 또 일이 있고, 오늘, 놀러가지도 못하고, 그동안 밀린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수,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쯤했으면 하수편을 드는 무렵의 초절정교수가 나타나는 거, 그거 무협지 스토리의 기본인데 말입니다. 왜 안 나타날까요? 그러고 끝으로 부탁한마디

그거 토론시작 올린지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그거 버그좀 잡아주어야죠, 교수님께서 올린 글이 중간에 두번씩 뒤뜰이되는데, 그거 수정해줘야지, 그거 교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번호 : 120
글쓴날 : 2001-04-08 00:05:16
글쓴이 : 교수 조회 : 30
제목: Re: Re: 그레 네발에 네가 족쇄 채워라..하하

난 싫다.

번호 : 106
글쓴날 : 2001-04-06 14:07:34
글쓴이 : 하수 조회 : 31
제목: 토론이 시작되었네요, 글썄...

여러분! 기뻐하십시요! 드디어 온라인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이 흥분! 이 설레임! 국민학교 때 (난 초등학교는 안 다니고 국민학교만 다녔거든요) 소풍갈 날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홍성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첫번째 주제는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 혹은 인위적 독점'입니다. 난, 스톨츠만! 그 사람, emac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만 개발할 줄 알고 영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말도 다 할 줄 아는군요. 그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인위적 독점'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스톨츠만,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네요. 벌써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예술이잖아요. 스톨츠만 그 사

람 아니면 그 누가 '지적재산권'을 '인위적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부터 저도 그 사람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스톨츠만 그거 말고도 멋있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플롯도 멋있게 볼 줄 알고(전, 약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FSF(Free Software Fund or Federation)가 하는 운동도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 갑자기 흥분을 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는 것 같네) 어쨌든 이제 고명하신 토론자님들이 이 주제 가지고 엄청 고민해서 글 올릴텐데, 무지 궁금하죠. 와! 정말 궁금하다.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고 보니까, 내가 '카이스트' 드라마에 나오는 '만수'가 된 기분이네요...(^)

번호 : 121
글쓴날 : 2001-04-08 00:06:55
글쓴이 : 교수 조회 : 23
제목: Re: ^^

강통소리 난다.적당히 지결여라.
허허

번호 : 108
글쓴날 : 2001-04-06 18:10:04
글쓴이 : 하수 조회 : 58
제목: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혹은 인위적 독점?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혹은 인위적 독점

아, 쟁쟁(죄송! 기냥 바로 욕이 나오버리네요. 뭐, 하지만 평론 시작을 욕설로 하는 거 이것두 참신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그냥 먼저 글을 써 버립니다. 이런 토론회에서, 먼저 글 쓰는 사람이 무지 불리한 거 아시죠? 조금만 잘못 쓰면 엄청 꼬투리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냥 올려버립니다.

음, 진지한 글을 쓸려니까 잘 말이 안나오네요. 나 뭐 쓸라구 했지? 아, 맞다. 지적재산권과 인위적 독점이라. 아이 참! 사회자님두. 사회자님께서 왜 스톨츠만이 이런 말을 썼는지 힌트라도 좀 주셔야 이거

글쓰기가 편한데 기냥 다짜고짜 스톨츠만이 이런 말을 했다구만 해서 좀 막막하네요? 그렇다고 지금 스톨츠만한테 이멜보내서 물어볼 수도 없구.(아, 역시 인터넷. 좋은 겁니다. 정말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그거 스톨츠만한테 물어봅시다. 난 영어가 짧아서 잘 안되니까, 누구 영어 잘하시는 분 대신 좀 물어주세요. 예. 꼭입니다. 멜 주소도 알려줄게요. rms@stallman.org. 야. Richard Stallman 그 사람 홈페이지도 다 있네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stallman.org/. 나 무지 성실하죠? 이런 것두 다 찾아내구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FSF에서 난 맨 마지막 F가 헛갈려서 Fund 나 Federation 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Foundation 이었군요. 그러구 난 스톨츠만이 플롯트 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진보니까 피리를 불고 있네요. 플롯트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역시 성실한 자세죠? 잘못된 거 바로 수정하는 거 말입니다. 아, 역시 진지한 글을 쓸려구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구나)

뭔 소리를 할려구 했지요? 아, 맞다. '지적재산권과 인위적 독점' 조금 관계있긴 하지만 다 그거 이유있는 겁니다. '인위적 독점' 인정 안하고 다 공유로 해 버리면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스톨츠만같이 성실한 사람은 제외).

JSA 공동경비구역! 그제 대박 난 영화아닙니까? CJ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제일제당에서 하는 거, 그걸로 매돈 벌었잖습니까? 그거 만일 공유로 한다구 하든 미쳤다구 CJ 엔터테인먼트가 거기가 돈 대겠습니까? 박찬욱 감독 이전에 만든 영화 아시죠? 삼인조 말입니다. 거, 이경영이랑 김민종이랑 그 영덩이가 이쁜 여자 있잖아요? 그 세사람이 나온 영화 말입니다. 뭐, 그것두 공유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구 거기에두 누군가가 돈을 대긴 했겠지만. 거기 돈 대는 것처럼 판문점 세트도 돈 안들이고, 어설픈게 만들고 배우도 별로 돈 안 들이고 신인쓰구 그러면 그거 대박 나겠습니까? 우리 그러든 맨날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보면서 침 질질 흘릴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 끝!

아, 역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니까, 진지한 얘기는 몇 줄 안 쓰고, 이상한 얘기로만 떼어버리네. 그

려...

번호 : 117
글쓴날 : 2001-04-07 22:47:27
글쓴이 : 오병일 조회 : 38
제목: Re: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혹은 인위적독점?

>>> Writer : 하수

> 음, 진지한 글을 쓸려니까 잘 말이 안나오네요. 나 뭐 쓸라구 했지? 아, 맞다. 지적재산권과 인위적 독점이라. 아이 참! 사회자님두. 사회자님께서 왜 스톨츠만이 이런 말을 썼는지 힌트라도 좀 주셔야 이거 글쓰기가 편한데 기냥 다짜고짜 스톨츠만이 이런 말을 했다구만 해서 좀 막막하네요?

스톨츠만(왜 스톨츠만이라고 쓰시죠?)이 '인위적 독점'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위적 독점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다기 보다는, 특허권, 저작권 등등 별개로 얘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굳이 이런 것을 총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위적 독점'이라고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허권, 저작권 각각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 뿐더러, 이를 '지적재산권'이라고 칭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적산물도 '재산'이라는 관념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스톨츠만은 언어의 정치적 효과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동의하구요..)

> 뭔 소리를 할려구 했지요? 아, 맞다. '지적재산권과 인위적 독점' 조금 관계있긴 하지만 다 그거 이유있는 겁니다. '인위적 독점' 인정 안하고 다 공유로 해 버리면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스톨츠만같이 성실한 사람은 제외). JSA 공동경비구역! 그제 대박 난 영화아닙니까? CJ 엔터테인먼트가 하는 제일제당에서 하는 거, 그걸로 매돈 벌었잖습니까? 그거 만일 공유로 한다구 하든 미쳤다구 CJ 엔터테인먼트가 거기가 돈 대겠습니까? 박찬욱 감독 이전에 만든 영화 아시죠? 삼인조 말입니다. 거, 이경영이랑 김민종이랑 그 영덩이가 이쁜 여자 있잖아요? 그 세사람이 나온 영화 말입니다. 뭐, 그것두 공유로 만들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어진 것은 아니구 거기에도 누군가가 돈을 대긴 했
졌지만 거기 돈 대는 것처럼 판문점 세트도 돈 안
들이고, 어설프게 만들고 배우도 별로 돈 안 들고
신인쓰구 그러면 그거 대박 나겠습니까? 우리 그러
른 맨날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보면서 침 질질 흘
릴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항상 현실의 문제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적인 시스템은 누구 한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면서 나오는 것이지요. 어
떤 완벽한 대안 시스템이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의 제도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
다. 이는 기득권자들의 논리일 뿐이지요.

번호 : 113

글쓴날 : 2001-04-07 01:07:03

글쓴이 : 하수 조희 : 61

제목: 통제없는 인터넷이 절대 선인가?

통제없는 인터넷이 과연 선인가?

난 나의 주장을 이 게시판에서 이미 행동을 통해
서, 그리고, 110번 게시물 '어린왕자와 악어'에서 이
미 다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좀 명쾌하게 나의
주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글을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엄청 뻔뻔스럽게 행동하
면서 '정보공유 게시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요?
이거 뭔가 제재 내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많이 자제를 해서 무렵지
그것도 극히 일부분만 올려서 그렇지 만일 내가 700
메가 포르노 영화파일을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올렸
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진보네트워크 서버 용량
이 얼마나 되는 줄 모르겠지만, 그거 견뎌내겠습니
까? 내가 만일, '진보네트워크 바보' 하는 식의 쓸데
없는 욕설로 100번부터 200번까지의 게시물을 도배
를 해 버렸다면 이 게시판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게시판 말고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토론란에
는 나보다 더한 놈이 있더군요. 끊임없이 광고성 메
일을 게재하는 녀석 말입니다. 만일 그 놈이 여기
게시판을 광고성 게시물로 도배를 해 버리면 이 게
시판 역시 엉망이 되겠지요? 만일 내가 이 게시판에

온통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해 버린다면 역
시 이 게시판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아님 말고) 만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미 "통제없는 인터넷"이 절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의 논의는 그 "통
제"가 과연 "합리적인 통제"이냐의 논의가 전개되겠
지요? 그런데, 여기 이 게시판이 운영자의 아무런
규제없이도 비교적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무
엇때문입니까? 그거 이 하수의 자제력, 그리고 그의
많은 이용자들의 초인적인 자제력때문 아니겠습니
까? 그걸 우린 '자율규제'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
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그것도 규제의 한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아닙
니까?

제가 너무 억지 주장을 펼쳤나요?(그렇다면 죄송
합니다. ^^)

여러분! 역시 이 하수란 놈 대단하지 않습니까?
111번 게시물 답하면서 엄청 버럭대던 하수! 이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때가 된 줄 알았는데, 또 뻔
뻔스럽게 나타났네요. 그뿐입니까? 지금이 몇 십니
까? 밤 12:39입니다. 이 시간이면 잠을 자야 할 시간
인데 이 하수란 놈, 잠도 없나봐요. 여러분들이 열화
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으, 벌써 돌이 날라오는군.
나, 이 게시판에서 돌 무지 많이 맞지요? 이거 하수
란 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되지 않았습니
까?) 다음에는 "소리바다"에 대한 규제가 과연 합리
적인가? 내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얘기
를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나 요 며칠 이 게시판에만 매달린 거 여러분들도 아
시잖아요? 그래서 좀 바쁠 것 같네요. 올리고 보니
까, 또 3연참이 되고 말았네요. 이거 다른 이용자 여
러분들!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존 하
수 독무대네요...

번호 : 116

글쓴날 : 2001-04-07 22:33:33

글쓴이 : 오병일 조희 : 48

제목: Re: 통제없는 인터넷이 절대 선인가?

정부의 검열이나 저작권에 근거한 파일 공유 통제
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어떠한 통제에도 반대하
다라는 것으로 읽혀져나오? 저는 오히려 하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다른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예컨대, 포르노성 게
시물을 환영하는 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게
시물이 폭력이 되거나 공동체의 성원들의 소통을 방
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쨌든..중요한 것은
각 공동체의 합의입니다. 물론 정당성을 얻기 위해
서 '어떠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는 어려
운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아래 하수님의 의견이 (아래 의견
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비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구조가 있는가. 소수 전문가,
관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청
회나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 제시는 반영되지않고,
또 반영되지 않은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습니다.

둘째, 첫번째 맥락과 관계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는 열린 토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 열
린 토론에 의해서만 사회가 굴러가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즉,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에 의해서
사회가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작용
을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사회의 이데올로기
형성, 기업집단과 정치의 결탁관계, 전문가의 결탁관
계..등등의 복잡한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정보, 문화
산업 자본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 힘과 힘이 맞붙을 때가 있
는 것이죠.

어쨌든..하수님 덕분에 게시판이 활성화되고 있네
요 ^^ 좋은 의견바랍니다.

번호 : 118

글쓴날 : 2001-04-07 23:45:27

글쓴이 : 고수 조희 : 35

제목: 응..절대 선이야

절대선 맞아 바보야..

하하

번호 : 119

글쓴날 : 2001-04-08 00:00:40

글쓴이 : 고수 조희 : 39

제목: 하수야 뭐하나 문자...

음...

쓰레기 논리 구체화시키느라 고생많았다. 여기 이
런 게시판이 있는줄 내 미쳐 몰랐구나... 하나만문자.
인터넷에 어떠한 통제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침에
어떤모습으로 나타나겠냐? 침부터.. "야.. 네들 이제
부터 내가 통제한다." 이렇게 나타날까? 만일 그런식
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오래못가지... 사람들
이 가만있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무엇이든, 처음엔
다 옳은일 필요한것이라는 원리에서 시작이 되는것
이다. 내가 금방 말했듯, "내가 맘먹고 바이러스 라
도 뿌리면 어떻게할래?"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너의
숨겨진 파시즘이 들어나는구나... 다들 너같지 않단
다...유념하고, 또한, 네말대로, 사람들이 다덜 착하고
바른 게시판을 이끌어간데도, 그러한 통제자가 안
나타나게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어떤 핑계로든 나타나게 되어있으며, 그것의 허락은
우리가 하게된다는 것이다. 물론 질서니,혹은 법이니,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본다면, 차라
리 그에 대적할수 있는 우리만의 힘을 (물론 그것은
해커나 크래커가 될수도 있고,또한 바이러스 제작자
일수도 있다.)

키워놓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그들이 필
요하게 될날이 올지 모른다는것이지... 물론 지금은
조금 오버한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처음엔 다들 그
렇게 시작들 하니까, 대개 보면 옳은 소리 입바른
소리 하는님들이 꼭 개판을 만들더라구... 마치 넘
저렴..... 답에 또오마 ... 계속 또 떠들어 봐라...

번호 : 122

글쓴날 : 2001-04-07 15:40:15

글쓴이 : 고수 조희 : 35

제목: 하수야 이거 네가 답변한거냐?

<< 이거 네가 답변한거냐? 다시 읽어 봐라... 뭘
애긴지 웬 잡설만 써왔냐? 머리아프다 머리... >>

복사해 붙여놓고 간간히 토달았다...네 방법좀 썼다.

이 게시판에서 저의 말을 가장 열심히 들어주시는 kiss 님이 올릴 글입니다. 역시 최대한 엽기적으로, 유아틱하게 답변해야겠지요? 이름하야 엽기토론 내가 97번 게시물에서 시도했던 거 여기서 다시 시도합니다.

<< 위치럼 쓸데없는 애긴 빼라...정신없다. >>

소리바다의 경우, 공짜로 쓰차는게 아니라 음반사가 사용자들이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까지 간섭할 수 있는 거예요.

-> 소리바다 돈 주고 이용하세요? (아, 갑자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죠? 나 정보공유론자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든 안되는거죠? 그죠?)

<< 이거 얼렁뚱땅넘어가지 말고 답변해라. 쓸데없는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내가 정수기 한대 사서 동네에다 설치해 놓고, 동네사람들 많이 이용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정수기 판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에서 와서 너 똘시 수돗물 안 팔리니까 정수기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 정수기 한대 사서 동네에 설치해 놓고 동네사람들이 그거 이용해도 수돗물은 내야 합니다. 정수기 그거 지하수물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수돗물 정수하는 거 맞죠? (와, 내가 이젠 정수기가 어떤 건지까지 설명을 다 하네그려. 나, 혹시 천재 아닐까?. 음, 여기저기서 돌 날라오는 것이 보이는구나. 피하자!!!)

그럼, 남께서 정말 동네사람들이 쓴 수돗물값이다 내실 거예요? 어디 사세요? 뭐, 수돗물값이 얼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인데, 가끔 이용해 불러요(아, 또 안티 정보공유론자적 발언을 하고 말았네요 도대체 내 정체가 뭘까요? 정보공유론자야? 아니면 안티 정보공유론자야? 와, 막,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민되네... 그리고 이번엔 정수기였지만, 다음에 우물물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정말 대책없을 것 같은데... 와, 또 새

로운 고민이 시작되는구만... 그땐, 다시 정보공유론자가 되어 버려, 그땐! 아참, 나 지금도 정보공유론자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고민했네)

<< 수돗물값내는거 당연하지... 그래서 최초올리는 사람은 음반사서 mp3만들지... 안사고 만드냐? 그럼 음반사가 자진해서 먼저 mp3만들어 올리냐? 처음 올라온 mp3는 그럼 어디서 나온거냐? 그리고 저긴 답변중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나머지는 또 쓸데없는 얘기뿐이다... 머리아프다.. 내가 더 잘알지? >>

법원이 음반사 입장을 받아들여서 소리바다를 이용한 파일 교환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 계속 소리바다를 이용하는게 도둑질 또는 해적질이 되겠고, 아니더라고 하면 아닌거죠.

-> 이거 책임회피성 발언 아닙니까? 정보공유론자면 정보공유론자답게 법원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법원 대단하게 생각하시나 본데, 법원 별거 아니에요... 개네들이 '신'도 아니고, 개네들이 기른 기다 아니른 아니다, 이거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까.(와이구, 큰 일났다. 이젠 막 반정부성 발언까지 막 해버렸네... 나 이거 이러다가 쫓겨다니는 거 아냐? 이거)

<< 애야... 책임회피라니...저글 밑에 범개정운동이라도 하겠다고 나왔는지 않느냐?... 중간에 거기서 편집해 하나라도 더 토달고 싶었나 보구 나....끝까지 좀 읽지 그랬나.... >>

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하여 불복 중운동?이나 법 개정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거고...(그러면 도둑놈이자 투사가 되는건가?)

-> 아, 역시. 내가 잠시 남을 오해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소신있게 밀어붙여야죠 법원에다 책임 떠 넘기고 그럼 안되죠.

여기서 전 또 새로운 말을 배웠습니다. 글썄 "정보공유"가 "도둑질"이란 똑같은 줄은 알았지만 "투사"가 "도둑놈"이란 똑같은지는 몰랐지 뭘니까? 나, 여기 게시판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 게시판 정말 좋은 게시판이예요 그죠 (아, 글쿠나. "투사"랑 "도둑놈"이란 똑같은 말이구나. 외워줬다가 다음에 또 써 먹어야지)

<< 네가볼때는 투사로 안보일지 모르나,(아마 넌 내가생각하기에, 안중근 의사같은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보지 않을까 싶다. 네 생각하는 방식을 봐서는... 그 역시 법을 어긴거 아니냐?) 다른 정보공유를 외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투사가 되지 않겠냐... 네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리바다 이용자를 다 범법자나 도둑놈으로 몰지 마세요.

-> 누구야? 소리바다 이용자를 도둑놈으로 몬 사람이? 선량한 이용자를 도둑놈으로 몰지 마시다. (나 간만에 좋은 말 한 거 같죠? ~)

<<답변을 해라..자신있으면 가만히있고,, 이런식의 발언 머리아프다. 옆에서 말 따발따발 거리며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네글에선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세수좀 하고올게... >>

또 도둑놈으로 몰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피해봤는지도 얘기 못하잖아요.

-> 맞아요 피해자가 바보몬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할 때 피해자가 바보인지 아닌지 보고 도둑질해야 돼요 그죠? 똑똑한놈 거 도둑질하든 박살합니다. 우리 모두 바보몬 것만 도둑질합니다. (역시 난 정보공유론자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쪽 입장에 서니까 그냥 말이 수월 슬 나오네요)

<< 여기서 또 너의 과시증적인 성격이 나오는구나, 거기서 왜 바보들을 도둑질 하자 란 말은 뭐냐? .. 넌 법을 도덕을 꽤나 지키는거 같지만, 언젠가 네가 맘만 먹으면 네가 아까 예를 들었듯. " 만일 내가 바이러스 라도뿌리면?" 잠재의식속에는 어떤 규율에 복종하는맘이 강하지만, 만일 그규율이 허술하다면 넌 강 밟아버려도 된다는 네 잠재성 과시증이 드러난다. 좀 확대해서... 네 말대로라면, 일본에 델이 우리보다 약하면 강 침략해 밟아 버리면 되겠네? 그치...? 넌 그러고도 아무 죄책감 안느끼겠지? 너같은 놈이 무서운 놈이다....>>

PD수첩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면

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소리바다 등장 이후 수입이 안 줄었다고 하고, 음반협회도 보니까 매출이 안 줄었다만,,피해액이라고 집계한건 단순한 추정치 더만요. 완존히 주먹구구식으로..

-> 저작권협회에서 돈 안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네들은 저작권료 받아서 사는데, 음반판매량이란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 울 나란 저작권료를 러닝로알티로 받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다 받아버리니까 음반판매량이란 별로 상관없거든요 (MBC 그거 방송국이 그런 것두 안 가르쳐 주고, 방송인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죠? MBC가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님이 이런 실수는 안하는 건데. 우리 모두 MBC에 항의할까요?)

그리고, 음반사, 개네들 바보 같아요? 그죠? 미국은 벌써 우리 손해 얼마다, 이게 딱 데이터로 나오고 그래서 냅스터가 꿈쩍을 못했는데, 울 나라 음반사 그게 안 나온다는 거 아녜요? (저도 PD수첩 봤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못 봤는데, 여기에 링크시켜놨더라고요 역시 디지털 세상, 좋은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 그동안 제대로 세금신고 안하고 뒷구멍으로 팔아먹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음반사 아자씨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작권 협회에서 돈이 안줄은다면, 결국은 작곡가에게는 별 피해가 안돌아 간다는것 아닌가?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것은... 쓰레기 가수들 키워내서 한몫챙기려는 고놈들 만 피해본다는 말? 그렇담 더더욱 잘됐군 가요계 개혁 개혁. 소리바다가 압장서면 되겠군... 하수님은 아마 음반 협에서 한술밥 먹으시나??? 아니면 가요를 아예 안듣는 사람이신가??>>

음반사야 말로, 이거 소리바다에서 음악 교환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다 돈 몰리면 '도랑치고 가제잡겠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헉! 어떻게 알았지? 비밀인데. 저기요, 음반사가 그러는게 아니구요, 저작권협회, 개네들이 그런데요 저작권협회랑 지금 양정환(아이구, 아이구, 내가 그만 실명을 거론하고 말았네요 그냥 소리바다 운영자라고 했어야 하는데... 난 이 입이 썩게 문제야) 지금 막 그 얘기하고 있는데요, 소리바다 유료화해서 양정환이 넌 얼마 갖고, 우리 저작권협회는 얼마갖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고.. 그리고 음반사 개네들은 양정환 너 괴롭혔으니까, 한푼도 주지말자, 알았지? 이런데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이젠 막 고자질장일까지 돼 버렸네... 고자질! 그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음, 반성하자)

<< 확실한 근거 있는 얘기에 실명 거론한거냐? 만일 네말대로 유료화가된다면 얼마나 같겨 같냐? 그것도 오래 못가..또 다른 p2p차원이 아닌 다른차원의 공유프로그램 나올거야... 너무 걱정 하지마... 벌써 나왔다는 말도 있던데... >>

나. 답변 무지 빨리 올리죠? 계속해서 전화오고, 할 일이 생기고 하는 등의 간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답변 올리잖아요 그죠? 나 처럼 열성팬이 이 게시판에 있다는 거, 이거 축복받을 일이에요, 안 그래요?

<<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 위의 글처럼 그런 글은 쓰지 마라..장난하는것도 아니고,냉소적이게 까대는 것처럼 멋지게 보일려구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머냐? 웃기기라도 하면 허허 하고 한번 웃어주겠는데... 내 보니.. 영 머리만 아프다... 아직도 귀가 웅얼 거린다... >>

번호 : 123
글쓴날 : 2001-04-07 15:44:26
글쓴이 : 고수 조회 : 30
제목: 하수는 말은 많은데,

알짜가 없어...
코메디 하는거 같애
머리가아직도 멍하군...정신없어서..

번호 : 125
글쓴날 : 2001-04-07 15:56:51
글쓴이 : 고수 조회 : 40
제목: 하수야...이것두 네글이나?

어린왕자와 악어 이야기.
어린왕자가 길을 가는데,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악

어가 어린 왕자에게 말을 했지요 "내가 너 잡아먹을건지, 안 잡아먹을건지 알아맞히면 그냥 보내주겠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넌, 날 잡아먹을거야" 이 말을 듣고 악어는 어린 왕자를 보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악어가 만일 잡아먹을 생각이었으면, 어린왕자가 맞힌 것이 되니까, 보내주어야 하고, 악어가 안 잡아먹을 생각이었으면, 어린 왕자가 틀렸지만,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반협이라고 했다가, 하수라고 했다가 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짚적해대면서 게시판 분위기 다 망치고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 게시판 망친다고 누가 뭐라 안그래 괜히 피해 망상 안잡혀도되고, 저런 악어 예를 만들어도 돼... 너무 피해망상이 심하군,님이 하는 행동은 이 게시판에서 그냥 함 읽고 넘어가는 정도 밖에 안돼..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글에 토를 달길 기를 쓰고 기다리는 마치 게시판의 풍운아라도 되는양 말씀하시는데... 허허~~ 남아...작각은 자유일세... 여기서 남한테 토 안다는 사람중에서도.. 남말 한순간에 일축시키는 사람들 많다네... 허허~~ 단지 말을 안하고 남노는게 귀여우니 그냥 내비둘 뿐이지... 허허~~>>>>>

그렇지만, 이 게시판이 바로 악어예요 표현의 자유를 들킨 보장해야 하니까, 저를 어찌지 못하잖습니까?

<<<<< 게시판에 글썼다고 누가 어떻게 하는 사람 있는가? 왜님은 넘스스로 족쇄를 채울려 하는가? 파민반응일세.. 아무 느낌없으니 걱정 말게 허허~~>>>>>>>>

그리고 우물 얘기인데요, 저도 그거 생각해봤는데요, 소리바다 운영자나 이용자, 우물 판 사람 아니예요 남의 우물물 훔쳐다가 나눠주면서 생색내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리바다 돈 받으라고 생각하는 거 같던데... 뭐, '의적'이란 것도 있으니까,,

<<<<<< 자기가 자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걸 도둑질이라 할수 있는가? 솔직히 처음 그거 프로그램 개발했을때 부터 유료화를 시작해서 돈

을 챙겼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라 볼수도 있겠네만, 처음 의도로서 오랜동안 무료로 우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네..님은 얼마나 그러한 행동을 해보았는가? 그런것을 해보지 않았으면, 도둑놈이라 몰아세우는거 우습지 않나? >>>>>>>>>>

난 남들께 정말 남들이 직접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스톨만처럼.(난 스톨츠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니까 스톨만이 맞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남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 이번엔 그런대로 멋있게 썼죠? 그죠

<<<<<< 어두울때는 남들이 불을 켜서 밝게 해서 밝게 만들고 싶은게 사람 심리이지만, 그러한 것이 안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방법은 하나 자신부터 촛불을 키고 불을 밝히면, 언젠가는 스스로 불을 밝힐것세.... 여기서 일케 떠드는 것보다..님의 촛불부터 밝혀보지 않겠나?>>>>>>>>>>>>

번호 : 126
글쓴날 : 2001-04-07 16:17:20
글쓴이 : 고수 조회 : 33
제목: 음... 많은 글을 썼었군...하수님..

이것도 음반협이란 사람이 쓴건데..알고보니 하수더군..

정보공유를 얘기하기에 앞서 왜 먼저 정보가 자꾸 유료화되어가지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pc 통신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퇴마록, 드래곤라자 등을 생각해봅시다. 퇴마록이나 드래곤라자는 당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그 저자들인 이우혁, 이영도도 모두 단숨에 베스트 셀러작가 대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는 어떻게 되었지요?

퇴마록, 드래곤라자는 모두 유료로 전환되어 책으로 출간되었고, 현재 인터넷상에서 가끔 보이는 무료 파일들은 저자들로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소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pc 통신이 위 이우혁, 이영도의 데뷔를 도와주고 그들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를 하기는 하였지만, 유명해진 다음에는 그들은 더이상 무료로 자신들의 작품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가 일부 신인 음악가들의 데뷔를 도와주고 광고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유명해진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무료로 자신들의 음악을 제공할까요?

그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아니란 말속에..어차피 내가 무료로 배포 하지 않아도 무료로 들을 놈들은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 가겠지...(만일 무명시절 무료배포mp3를 통해서 뜬가수라면 말이지..) 인정하고 임하는거랑 아예 부정하고 임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 반면에..무료로 자기 음악을 먼저 배포하고 신인가수를 시작하는 사람같은 경우... 미친놈이 아닌이상... mp3가 자기 음반을 잠식해버릴꺼란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 시작하는 놈은 없겠지... 만일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음악을 정말그야말로 그러한 분위기속에서도 자기는 한푼 안 벌겠다는 거의 통달한 사람과도 같다고 볼수 있지..

하지만, 그들이 신인시절 mp3를 뿌리며 자신의 인기를 도모하는 데에는 자신의 음악성을 믿는 신념이 있고, 또 그것만 확실하다면, 아무리 mp3가 난립을 해도, 자기 음반이 어느정도까지는 팔릴거란생각 또한 아무리 mp3가 널려도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기위해 내 공연장으로 올것이란... 확고한 신념과 고집이 있어서 일것일세...

반면에 흔히 말하는 탄파라 가수들...그러한 신념들이 있겠나? 절대 그들은 mp3무료배포 안지... 미쳤나..? 무료배포 하게? 그러잖아도 자기 키워준 기획사 애들 먹여살려야지... 당장 음악이 개편이라.. t.v 같은데 나가 재롱이라도 떨어야 먹구 사는데, 그 와중에 음악을 mp3로 올리겠년 말이지....

음악제작은 소설제작과는 달리 완성도가 높은 음악일수록 초기에 많은 제작비를 필요로 합니다. 훌륭한 작곡가의 작품을 받는다든가, 훌륭한 세션맨을 이용한다든가, 엄청난게 많은 수의 코러스를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모두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적소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창작의 욕구를 자극하는 원인으로서 이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글세 창작도 창작 나름이어야 말이지...어정쩡하게 일본노래 똑같이 갈구 나와서 고대로 불르고 뭐 우리식으로 바꿨다느니... 혹은, 표절이니,,, 그런데 작곡가들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에 자성의 물결을 가져 보았는가 난 묻고싶네... 서로서로 감싸주기 바쁘지 않았나? 아마 작곡가들 스스로가 자성의 소리를 높여서 임했다면 최소한의 신뢰성을 갖지 않겠어?

소리바다의 이용자 대부분은 정보 소비자들입니다. 균형된 관점을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 정보 공유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보생산자가 더 이상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정보소비자도 더이상 이용할 정보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

그럴일은 없을걸세... 정보생산자가 정보를 생산하지 않는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말은 곧, 에이씨팔 이거 만들어 본전도 못뽑는데, 뭐하러 노래 만들어... 이말 같은데... 거 음악인 맞나?

번호 : 127

글쓴날 : 2001-04-07 16:42:11

글쓴이 : 교수 조회 : 30

제목: 이미

세상은 변해가고,기존의 체계와는 다른식으로 변화되어갈것이다. 소리바다 mp3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이론으로 설명할수 없이.. 다른 식으로 변화되어 갈것이며, 그것을 막는다는것은 단기간 좋을지 모르나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것이다. 그러한 것을 막는 방법을 생각하고 머리아프게 고민할바엔 차라리 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식으로 공력을 할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을것이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에서 늘상 일어나는 마찰이므로 지금의 이런 토론도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변화가 될것이니, 이미 변화가 되었다는 과정하에 토론을 하는게 더욱 현명한것이 아닐까 싶다.

난 그럼.. 여기 올일이 없겠군, 어차피 무의미한 토론이니까..... 하수야 수고해라...

번호 : 128

글쓴날 : 2001-04-07 18:35:07

글쓴이 : UDP 조회 : 65

제목: 하수님.. 답변 위로 끌어올렸슴다. ^^;

이메일과 P2P 시스템에 대한 비교부분에서 제 말을 오해하신 감이 없지 않은데, 다운로드시 동시접속이 가능한 인원의 수로 사적이용복제의 허용기준을 삼자는 게 아닙니다. 함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메일의 경우 mp3 파일 하나를 첨부파일로 해서 동시발송가능한 대상의 수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십명에 대한 동시 발송도 가능하지요. 만일 그렇다면 음악파일을 수십명에게 업로드시키는 이메일 시스템 또한 당연히 당국의 통제대상으로 포함돼야 마땅한 결과요?

제가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적 요지는 이메일이건 P2P건 그 시스템이네트워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영역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정당하게 내려지면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한 더이상의 터치와 통제 는 개인 사생활적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 '소리바다'가 어떤 식으로 이용자를 연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난 소리바다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소리바다가 그런 식으로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있었군요.

이는 잠시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만일 A와 B의 파일 교환 중 A의 'c'라는 파일을 소리바다에 업시키고 B가 소리 바다에 올려진 'c' 파일을 다운받는 구조라 생각한다면 또 다른 유저 D가 A의 'c' 파일을 필요로 할 경우 D는 A에게 'c'파일을 요청할 필요없이 막바로 소리바다에 올려진 'c'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D는 속도 '짱'으로 'c'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리바다 유저들은 ADSL 라인 사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케이블 라인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를 논외로

하면 ADSL이 갖는 대역폭의 비대칭 특성상 다운로드에 비해 업로드는 형편없이 그 대역폭이 낮습니다. (잘 나와야 90 ~ 100 KB입니다. 여러사람이 몰려 있을 경우 대역폭은 엄청 더 떨어질 테지요)

만일 음악파일들이 소리바다 서버를 경유한다는 가정아래 생각해본다면 님이 소리바다의 한 유저를 통해 음악파일을 다운받고, 계속해서 바로 그 유저에게 다운받던 똑같은 음악파일에 대해 또다시 다운신청을 걸어보십시오.

문제의 그 음악파일이 소리바다를 경유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소리바다 서버로부터 음악파일을 다운받는 셈이 되므로 그 다운 속도는 전에 비해 엄청 빨라질 것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과연 그럴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트래픽을 견뎌내려면 소리바다 서버는 대형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허나 이곳에 올려진 관련 기사를 보자면 소리바다 서버가 그리 대형은 아닌 듯 보여지더군요.

>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만일,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도 '소리바다'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단 소리바다 유저들간의 교환행위는 불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P2P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유저 차원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고찰해 봤을 뿐 그들이 위법성을 띄었다고 결론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개인사생활적, 사적 영역 내에서의 개인활동은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었지요. 그리고 위 질문과 관련된 기사 한토막을 짧게 인용합니다.

>출처:전자신문(2001/03/05)

>훈넷은 중간 서버를 거치지 않는 공유 및 복사 프로그램만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 동영상·음악 파일과 스트리밍의 공유·복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훈넷은 저작권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 짤막한 기사에서는 "중간서버"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 일추 일견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P2P 시스템과 이를 사용하는 유저들간의 책임을 서로 분리시켜 논의한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시스템 문제.. ^^; 제가 이 문제를 유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님은 이전 글에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량을 할애하여 저를 당황케 하시는군요. ^^; 이를 어쩐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은 많은데.. 그러면 글이 한없이 길어질 듯 하고.. --; 난감하군요. 어쨌든.. 다음과 같은 님의 오류부분만 잠깐 짚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보키로 하죠. П.П;

> 일단, 으씨 Window NT 도 서버용 OS (이런 걸 이렇게 부르는 거 맞나?) 잡아요? 안 그래요? 서버용 OS 에서 MS 점유율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확고부동한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던 Unix 에 대항해서 시장점유율 올리려고 무지 고생, 노력했잖아요?

지난 요 몇년 MS의 NT는 한해 대비 시장점유율에서 썬이나 컴팩, SGI, IBM 등의 유닉스 제품군을 압도해 왔습니다. 물론 전체 서버 운용 현황면에서는 유닉스가 아직까지는 대체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NT가 93년도에 개발된 후발주자 이니 그건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요.

>다음에, 내가 어제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나라만 MS Word 공짜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조립 PC 업체에 Window OS 할인하고 그랬다메요. 그럼, 우리나라만 약간 가격정책을 달리 가져간 거잖아요?

일시적 상승에 휘둘리는 시장을 옳은 경제 지표로 삼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한 가격인하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보다 님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내세워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지금도 MS Word가

무료이던가요?

=====

> 어쨌든 불법복제가 시장지배에 대항하는 수단 아니지요? 불법복제는 이용자가 돈을 안낸다 뿐이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든 남이 한번 MS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 게 적당한지 말해보실래요?

=====

불법복제라.. 이젠 계가 이곳에서 올린 첫글에서도 밝혔듯,, 가정내 개인목적 복제와 엇물려 저도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긴 프로그램 판매회사가 가정내에서 사적으로 복제한 개인에게 법적으로 판지를 걸어온다면 과연 어떤 법률을 근거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런지.. 민사의 계약법 위반으로 걸 수도 없을 테고.. (아예, 그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근거법으로 제시하기에는 12조 4호가 유명무실해질 테고요.. 음.. 어쨌든 그만 건너 뛰기로 하고.. --;

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저는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그 시장의 범위에 대해 국소적 거래 현상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를 편 적은 있었더랬지요. 고로.. 님이 던지신 질문에 대한 전체가 제 주장에 합치되는 것은 아니기에 더 이상의 답변은 아마도 불필요할 듯.. ^^;

번호 : 129

글쓴날 : 2001-04-08 03:02:57

글쓴이 : 하수 조회 : 45

제목: Re: 하수님.. 답변 위로 끌어올렸씀다. ^^;

이제 좀 게시판이 게시판다워졌죠?

1. 저작권과 인터넷 매체

(1) 이메일

님과 얘기를 하다보니,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이메일

의 경우 이메일이란 매체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이용하여 동보발송 형식으로 많은 수의 사람에게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배포한 사람이 저작권 책임을 질 듯 싶습니다. 다만, off-line 을 생각해보다도 우편이란 매체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편이란 매체를 이용하여서 어떤 사람이 저작권을 위반할 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이 지금까지 별로 거론이 안되었던 것은 그 자체 몇 가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a. 일단,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이메일주소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점때문에 이메일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기는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즉, 받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되어진다는 것이지요. b. 다음으로, 스팸메일 형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 메일서버에 걸리는 트래픽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가 기술쪽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얼핏 들기에 메일서버에 걸리는 부하는 ftp 서버에 걸리는 부하보다 훨씬 크다고 하던데... c. 그리고, 메일저장공간도 문제가 될 듯 싶네요. 보통 메일의 경우는 어떤 메일서버이든시간에 5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용량제한이 있어서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이젠 아마도 위 b랑 관련이 있을 듯 싶습니다.

(2) MP3 파일 검색엔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리바다는 오히려 이 검색엔진이란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찾고자 하는 파일명을 치면, 즉 검색을 해서 결과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업로더와 다운로드 2인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리바다랑 이 검색엔진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듯 싶습니다. 이 검색엔진과 소리바다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검색엔진에서는 업로더가 누군지 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는 점이지요. 저가 네이버에서 MP3 파일을 검색해보았는데, 잘 찾아주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깨진 링크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홈페이지는 안만들고 홈페이지를 ftp 공간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던데, 네이버 검색엔진이 그런 것까지도 다 찾아줍니다. 이 경우에도 검색엔진이 저작권 위반 책임을 지느냐고 따지면 좀 골치아프긴 하지만, 저작권위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는 무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업로더는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3) 중앙서버를 경유하는 P2P(냅스터,소리바다)

이거랑 검색엔진이란과의 비교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외에 차이점을 하나 더 들라본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구별이 확실하지가 않고, 그 다음 마치 피라미드 조직처럼 다운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업로더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매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배포자는 위 (1)이나 (2)의 업로더 혹은 배포자처럼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매체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나 아니냐를 따진 적이 없었는데, 유독 이것만은 매체 자체가 저작권 위반이나 아니냐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그대로 전개한다면 소리바다도 당근 배포자의 행위만을 문제삼으면 될텐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 매체자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듯 싶습니다. 일단 배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매체는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매체는 그 자체가 MP3 파일을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든다면 이 매체가 지니는 파괴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가요 MP3 파일을 하나 올린다고 가정을 해 볼 경우, 그 노래가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운로드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포자는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배포자를 일일이 가려내고, 배포자를 남김없이 저작권위반으로 모는 거,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매체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매체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냅스터 판결이 '매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매체는 유지하되 저작권위반의 파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장치를 달아라'는 것이 그 예가 아닐까요?

(4) 중앙서버없는 P2P(그누텔라? or 누텔라?)

님이 인용한 기사 한토막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중간 서버를 거치지 않는 공유 및 복사 프로그램

만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문제가 있는 동영상, 음악 파일과 스트리밍의 공유, 복사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훈넷은 저작권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역시 매체 자체는 중립이나 이용자의 행위는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걸 개발한 P2P 업체자체도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썄요, 체 게바라, 신밋드, 씨프렌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에 속하는가요?(역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2. 파일 공유에 대한 생각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복제, 배포'의 개념에 약간의 혼란이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복제자와 배포자의 양자구도를 축으로 전개되었다면 파일 공유방식은 복제자와 배포자가 원모양으로 순환형으로 맞물려 있어서 양자의 구별이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야말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의 범위안에서 만일 릴레이 식으로 파일이 복제, 배포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쩌면 소리바다의 복제행위를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거는 아닌가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누가 법개정 운동 운운하였는데 정말 법개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음반사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젠 비단 음반사뿐만 아니라 '저작물'로 이윤을 창출하고자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조만간 부딪힐 문제일 것입니다. 뭐, 하지만, 저작물이란 것이 대충 책, 사진이나 그림,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정도등을 얼핏 떠올릴 수 있는데,

우선 책은 파일용량은 작지만, 소비자가 그걸 소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굳이 공유방식으로 이용될 것 같지는 않구요. 무슨 말이나 하든, 한번 다운로드 받으면 그거 읽는데 며칠은 걸린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상시접속자는 그리 많지 않을거고, 접속시간도 매우 짧을거란 얘가지요. 그럼 공유방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음 사진이나 그림을 들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생산하는 데에 자본이 투여가 많지 않은 거 같고, 또 그런 정적인 거는 요즘같은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별로 인기있는 저작물이 아닌 거 같구요, 또 영화는 아직까지는 압축기술이나, 인터넷 속도면에서 용량이 너무 커서 그걸 개인용 컴퓨터가 서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이것 역시 요즘 점점 대용량화되는 추세라서 역시 영화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소용량의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소용량의 소프트웨어는 필수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런 소용량의 소프트웨어는 역시 생산하는데에 자본이 별로 들지 않을테니까, 당분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어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아, 또 소프트웨어 역시 일단 다운받아서 설치하든 그만이니까, 위 책과 같은 문제가 있겠네요. 즉, 접속시간도 그리 길지않고, 접속자도 그리 많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역시, 당분가는 파일공유에 가장 적합한 것은 MP3 음악파일이고, 그래서 공유 프로그램으로 가장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역시 음반사가 아닐까 싶네요...

3. 인터넷상의 사생활공간

인터넷상에서 사생활공간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를 사생활공간으로 볼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저도 뭐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긴 합니다만, 메일을 주고 받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에 속할 듯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게시판이용규칙을 정하고, 게시판판을 단 경우에, 그 규칙에 어긋나게 개인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가 경우도 약간 논란의 여진 있습니다만, 사생활공간의 침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스팸 메일은, 그리고 멜리사 바이러스처럼 메일을 가장하여 바이러스를 유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생활 공간이므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봐두어야 할까요?

4. 소리바다로 인한 음반사의 피해액

소리바다로 인한 음반사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실

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PD 수첩을 보더라도 음반사의 피해액 주장은 과장되어 있고, 신빙성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만일, 음반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아직 MP3 파일은 컴퓨터안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확한거는 모르겠지만, 아직 MP3 플레이어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매니아사이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MP3 파일의 역할은 컴퓨터로 작업할때, 음악을 듣는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지요. 컴퓨터를 떠난 그외의 장소에서 음악을 들을때에는 MP3 파일보다는 오히려 CD나 테이프가 더 일반적인 것은 아닐까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거 그냥 억측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서 소리바다때문에 350만명이 CD 한장을 덜 샀다고 생각하면 음반사의 피해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소리바다에서 MP3 파일을 듣고 음악이 좋아서 오히려 음반을 사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350만명이 음반을 한장씩 더 샀다고 치면 오히려 음반사에게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겠지요.

이런 식의 논란은 저 바보같은 음반사가 정확한 피해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에는 어차피 상반된 추측을 주장하는 이상의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MP3 플레이어가 대중화된다면, 그 음질이 CD 플레이어에 비하여 별로 뒤지지 않는다면, 방송사, 카페, 레스토랑, 음악다방, 댄스홀, 스탠드바, 등에서 CD 가 아닌 MP3 파일을 틀기 시작한다면 '음반사'의 피해는 분명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아직도 LP 매니아가 있듯이 CD 란 매체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MP3 파일이 CD 를 상당부분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고, 만일 그때에 음반사들이 MP3 파일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들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듣기 싫은 댄스음악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잘된 일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MP3 파일 이외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음반들이 기획, 제작되어야 할텐데, 과연 그런 음반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출판사가 베스트셀러 하나 잘 내든 몇 년을 먹고

산다고 하던데, 음반사들도 무수하게 많은 음반을 내고, 그중에 대부분은 실패하고, 그중에 또 일부는 그런대로 수지타산을 맞추고, 그중에 하나가 빅히트를 터뜨려야 수익이 남는 구조인데(이거 맞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빅히트를 낼 음반이 없다면(빅히트는 이상하게 댄스음악에서 나오는 거 같더군요) 앞으로 음반사들이 음반을 기획제작할 때, 엄청 어려울 것이고, 어쩌면 고만고만한 양질의 음반들마저 일부 제작포기상태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 외국 대형 음반사들의 노예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5. 시장에 대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만 하죠. 뭐, 심각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장난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교수(님 말고 밑에 있는 교수말입니다), 고놈이 과연 이글을 읽을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마디 쓸데없는 말을 삽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 고놈 참 귀엽지요? 내 글이 무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세수까지 해 가면서 읽어대고 말입니다. 누군지몰라도 하수한테 무지 열 받았나봐요. 뭐, 그래도 제법 예리한 하더구만요. 내가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는 귀신같이 꼭 집어내더군요만요. 그러구 그 사람 생각보다 시간많은 사람인가봐요. 그거 다 쓸라본 시간 꽤 걸렸을텐데...

6. 정보공유에 대해서

전, 정보공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어쩔 전 정보공유 반대론자일런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겠조. 전, 이 게시판에서 이왕 '정보공유' 논의를 하기로 했으면, 'MP3 공짜로 받는 거 배 아파서 음반사들이 괜히 소리바다 트집잡고 있으니까, 음반사 그 놈들 나쁜 놈이다. 음반사 혼내주자' 뭐, 이런 식의 감정적 논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자, 제가 그냥 떠오르는데로 얘기하긴 했지만, 같은 정보라도 책, 음악, 영화, 프로그램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또 이것이 디지털 매체로 변했을때 또다른 특성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그냥 디지털 매체는 무한복제가 가능하니까 무한복제가 되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거의 공

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무한복제가 된다면 공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정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매체니까 무한복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만일, 스톨만을 기준으로 정보공유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의 생산과 관련된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스코드를 독점화시키지 말자.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그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키도록 허용하여서, 소비자들이 최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보수 역시 어떤 기업에 소속해서 기업의 이윤창출에 따라 월급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기부하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새롭게 나타난 이 "프로그램"이란 정보는 기존의 다른 정보와는 달리 한번 새롭게, 멋있게 정보개발체계를 만들어 보자. 대강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닌가요?

이런 스톨만의 주장에 대해서 역시 그런 방식의 개발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프로그램을 선사하지 못한다. 역시 프로그래머들은 돈으로 동기부여를 하든가, 아니면 돈이란 보너스를 덤으로 주었을때, 최고의 프로그램이 나온다. 프로그램이 공유화되면 그 개발에 책임을 질 주체가 없어지고, 그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스톨만의 얘기가 곧바로 책이나 그림, 음악, 영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의 경우는 많은 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책이나, 그림, 음악, 영화에 적용될까요? 뭐, 굳이 적용하려면 적용못할 거는 없지만, 그 얘기는 역시 소설가, 화가, 음악가, 영화제작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쪽에서 먼저 나오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번호 : 131
글쓴날 : 2001-04-08 11:28:15
글쓴이 : 교수 조회 : 45
제목: Re: Re: 음...글잘읽었습니다.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여러분! 교수, 고놈 참 귀엽지요? 내 글이 무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세수까지 해 가면서 읽어대고 말입니다. 누군지몰라도 하수한테 무지 열 받았나봐요 뭐, 그래도 제법 예리하긴 하더구만요. 내가 얼버무리고 넘어간 거는 귀신같이 꼭 집어내던구만요. 그러구 그 사람 생각보다 시간많은 사람인가봐요. 그거 다 쓸라른 시간 꽤 걸렸을텐데...

넌 스스로가 대단하단 착각에 빠져있는건 아닌지, 내가 넌글을 대단하게 본게 아니라 넌이 스스로 글케 만든건 아닌지.. 이를테면 요. 위에 복사해 놓은대로.. 여러분~~~~~ 하고 시작하는 요부분... 뭐 팬클럽이라도 있으신가? 게시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 선동하는 분위기군.. 난 내글에서 다른사람들을 동요시키는 투의 말은 절대 하지 않아... 넌글에선 가끔 그렇게 느껴지지...

그리고 넌글 잘 봤는데, 비현실적이야..적어도 내가 볼때, 그렇다고 압담하 게만있을수는 없는 거겠지만, 또 막을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 넌말처럼 이제 카페나 기타 이전에 오디오를 틀어주던 곳에서, 더이상 cd를 안틀수 있지, 바로 다운 받아 mp3로 듣는 그러한 세상이 올것이니까, 난 음악을 좋아하지,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미 막을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 넌도 알잖아?... 그래도 분명 모든것은 공평하게 돌아가게 되는법. 음반을 만드는 제작비의 감소라든가, 혹은 음반제작이라는 것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도 되겠지... 아니면 새로운 체계 내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어떠한 것 ...) 그러한 것들 역시 기대가 되지 않나? 분명 시일이 걸릴수 있는 일이지만,정보화로 인해 지금처럼 저작권이나 혹은 사용료와 같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그러한 정보화라는 놈이 역으로 새로운 어떤 체계나 혹은 프로그램같은 것을 까꿍~ 하고 날을수도 있다는 말이지.. (즉, 음반제작자나 가수나 작곡자나 3자 만족 대 만족 하는 그러한 것들 말이지...

잠깐 여기서 경제논리니 뭐니 그런걸로 저 "3자만족"해석하려 하지 말게 나, 이제는 그러한것들을 떠난 새로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것들을 나는 말하는 것이니...) 말 안올려고 했는데, 마침 내 얘기가 있길래 답변하다 몇마디 적어보네. 그럼..~

번호 : 132
글쓴날 : 2001-04-08 19:59:09
글쓴이 : UDP 조희 : 38
제목: 온라인토론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는 기업용 프로그램 외에 가정내 개인 유저를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거의 모든 게임용 소프트웨어가 개인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이 뻔하며 대표적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손꼽히는 오피스 제품군 만을 봐도 기업용 (enterprise)과는 별개로 가정용(standard)으로 상품화되어 개인 유저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개인들도 당연히 제 값을 치르고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도라 할 수 있겠지요. 이는 아주 지당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반항하면 벌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새시대 새로운 매체의 놀라운 기술적 진보는 폐쇄된 구체제에 맞선 패쇄된 반항아들을 하나 둘 계속해서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의 저작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무리들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구)질서를 위협하는 시대의 적, 시대의 강패입니다. 도대체 어찌하면 저들의 세력확대를 틀어막을 수가 있을까요? 찾는 자에게 길이 있으라. 아, 묘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을 틀어막을 그 놀라운 묘수를. 바로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진보를 때려잡으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음..이리도 간단한 해법을 몰라 우린 한때 그리도 고심했.

넌이 목소털 내리깔구 그리 무겔 잡으시니 오히려 제가 간죽거리지는군요. 하하.. 두렵습디다요. 하수님.. 이제 그만 그 육중한 무겔 풀어놓으시죠. ^^; 어찌됐든.. 이곳에서 소리바다를 통한 mp3 등 음악저작물의 유통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니, 나누미 등의 P2P 시스템을 통한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을 어떻게 바라 보실지 현재의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이곳에서 견해를 펼치는 다른 논의자분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논리를 전

개하고 있는 와중이며 또한 제 견해는 여러분의 따끔한 비판을 받는 즉시 언제든지 수정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제 말에 스스로가 자신없어 한다는 반증인게지여.. --;

더군다나 제가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는 저작권법 27조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2조4호가 다음 개정에서 삭제되더라도 한다 치면 제 모든 논의는 수포로 돌아가기에 딱 알맞습니다..... 버뜨, 그러나.....

아직은 엄연히 위의 법조가 시퍼렇게 두는 뜨고 살아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며 이의 제정 취지가 시민들의 정보기본권을 근간으로 삼은 것이었다고 하니 이와 같은 사실의 정을 기반으로 하는 저의 주절거림이 현재로서는 유효할 수 있겠다 싶어 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합니다. ^^;

>하지만, 이메일을 이용하여 동보발송 형식으로 많은 수의 사람에게 '저작물'을 배포한 경우에는 배포한 사람이 저작권 책임을 질 듯 싶습니다만.

제가 지난 글에서 "사적 영역" 운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메일 시스템이건 P2P 시스템을 통한 것이건 상관없이, 또 그 수신자의 수에도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발송과 수신이 "개인목적복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송수신이 '사적영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개인간 파일교환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개인목적복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저작권법 27조 '가정및 이에 준한 장소에서의 개인목적복제허용' 참조)

>그럼, 스팸 메일은, 그리고 벨리사 바이러스처럼 메일을 가장하여 바이러스를 유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생활 공간이므로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봐두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바이러스나 스팸으로 인해 사적영역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사법당국에 대한 도움요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메일을 도청하여 마약정보

등의 수사단서를 캐내고자 하는 사법당국의 발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러한 발상이 허용된다면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선량한 이용자들의 이메일도 도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히 대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정작 말하고왔던 것은 사적영역내에서의 위해한 정보들의 유통문제가 아니라 사적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파일 복제가 개인목적 복제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와 그 연관성을 언급한 것이었지요.

>뭐, 굳이 적용하려면 적용못할 거는 없지만, 그 얘기는 역시 소설가, 화가, 음악가, 영화제작자 등 정보를 생산하는 쪽에서 먼저 나오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넌이 보기에 저작권법의 성격이 참으로 애매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작자의 권리를 막강하게 살려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 보자면 법이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가로채 어느 정도 제한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시민들의 정보기본권과 평등권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를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려 했던 시도의 단적인 예로 바로 몇 년 전에 전국민 일인 일피시를 기치로 내건 국민피서 보급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내에서의 컴퓨터 의무교육이라는 시책도 따져볼 만한 대목으로 짚어 볼 수 있겠지요. 만일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무한히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법이 손을 들어 준다면 시민들의 소득 격차에 의한 정보습득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이는 바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사회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가정내 개인목적복제허용'이라는 조항이 생겨난 듯 싶은데.. 이들간의 절묘한 절충점을 찾아내기란 참으로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군요. 이밖에도 뭐 이런 저런 귀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개인간의 음악 파일유통(특히나 업로드)을 위법으로 전제짓고 견해를 푸신 것으로 생각되어 각 분야에 대해 이렇다할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이제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토론도 시작됐고 하니..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고 도움을 청해도 될 때가 오

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좀 느긋하게.. 그 분들의 말씀을 함 들어보도록 하지요. ^^;

번호 : 136

글쓴날 : 2001-04-09 15:39:46

글쓴이 : 하수 조회 : 36

제목: Re: 온라인토론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군요.

1. 매체자체가 사적영역에 해당하는지?

사적복제행위를 '복제, 배포'가 이루어진 영역의 특성으로 구별한다? 글썬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령 비디오를 이용해서 "영화"같은 거를 집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배포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 그거는 집이란 개인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매체자체를 중립으로 보았던 것은 얼마든지 '사적영역'에서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행위'냐? 몇 명한테, 얼마나 많이 보내야, 침해냐?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겠지요...

이메일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건 만으로 이메일에 의한 배포는 무조건 '사적복제 행위'다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역시 좀 비약이 아닌가 싶네요... 동보메일기능으로 수 천명, 수백만명한테 보내도 '사적복제'라고 본다면 글썬요, 그런 것까지도 역시 사적복제라 보아야 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의 법률은 전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cd 표지에 적혀있는 식으로, 프로그램의 사용범위를 1개의 pc로 제한하는 형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식의 제한이 생산자입장에서는 어디까지를 사적복제로 허용할 것인가의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여지조차 애초에 없애버리는데에 일정정도 기여를 하기 하겠지만 말입니다.

2. 사적영역의 침해에 대하여

도청의 문제는 '통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청' 자체도 범죄행위 아닌가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오가는 여러 정보들이 해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좀 끔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별루 다를 것은 없겠지요...

저가 역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적영역'이란 것이 절대 신성불가침의 영역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범죄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럴 때, 국가가 '사적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되는 것이구요...

3. 저작권법의 성격

저작권법이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대립되는 양쪽(생산자와 소비자)을 모두 보호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죠...

저가 새로 배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mp3 파일을 다시 wav 파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압축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해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든 너무나 당연한데 말입니다... 역시 제가 아직 잘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그럼, cd-writer 랑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그냥 cd 를 만들 수 있겠더군요...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4. 정보격차문제

이것두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빈부격차에 의한 정보격차문제, 장애인의 정보격차문제, 도시와 시골간의 사회적 환경에 의한 정보격차문제 등등,,, 그러나 여기서의 논쟁,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유통에서 '정보격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까짓 '댄스음악' 좀 덜 듣는다는 것을 가지고 '정보격차'를 운운하는 것은 좀 성급한 논의 아닐까요? 물론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작권'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격차'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겠지만, 그건 '빈부격차에 의한 정보격차'의 범위내

에서 다시 얘기될 듯 싶습니다...

5. 기술의 진보

여기서 얘기하는 주된 핵심은 '저작권'을 이유로 '기술을 진보'를 막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의 진보는 정보의 "유통, 소비방식"뿐만 "생산방식"까지도 바꾸어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구말대로 '소리바다' 논쟁 역시 '기술의 진보'에 의한 '정보생산방식의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가지구 우리가 괜히 여기서 입아프게 떠돌고 있는지두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쪽에서 p2p를 통해서 '유통, 소비방식'을 바꿔놓았으니, 그에 대한 대응은 이제 '생산자'쪽에서 내놓아야 할 차례이겠지요. 불행하게도 현재까지의 '생산자'의 대응은 어떻하든 'p2p' 자체를 말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생산'을 담당하는 쪽은 대자본입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리눅스의 혁명은 아직 'ms'의 횡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직두 리눅스의 생산방식에는 뭔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것두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내가 옳네, 니가 옳네, 싸워보았자, 그리고, 법원에 '소리바다'에 어떤 판결을 내리든 관계없이, 대자본은 '자신의 생존방법'을 찾아낼 것이구,,, 그게 어떤 것이 될지는? 글썬요...

우리가 '소리바다' 공짜로 쓰게 해 달라고 아무리 떼 써 보았자, 대자본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mp3 플레이어 생산하는 자본쪽이 '소비자'편을 들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런 대로 '소비자'가 유리하게 진행되는 듯 싶지만 말입니다... 어찌될지 모르니까, 소리바다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열심히 다운받아두어야겠지요? 그럼 이만!!!

번호 : 130

글쓴날 : 2001-04-08 03:04:27

글쓴이 : 하수 조회 : 58

제목: 제안 한 마디(RE 117)

아, 역시 제 예상이 별로 빗나가지 않았네요. 역시 스톨만! (으씨, 내가 그래서 정정한다고 조 밑에 썼잖여. 뭐, 내가 신인가? 틀릴 수도 있는거지. 그리고 꼭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스토-올-만, 이거 양놈이 발음하는 거 들으면 스톨츠만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케빈 카스너, 머다나, 바흐,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나요? 처음에 케빈 코스트너, 마돈나, 바하, 뭐, 이렇게 부르다가 그거 틀렸다고해서 다시 고쳐부른 거 아니예요? 그지 않아요? 여러분!)

스톨만,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인위적 독점' 운운할 사람이 아니지요. 암. 그런데, 이왕 소개해주시는 거 좀 더 자세히 해 주시지. 틀림없이, 그거 어디 인터뷰할때나, 아니면 무슨 글에 써 있는 걸텐데, 혹시 그거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다른 저작물이나 특허, 뭐 이런 거랑 같은 식으로 규율하든 안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나온 얘기 아니예요?(아님 말고요)

어쨌든 남의 얘기를 듣다 보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왕 말 나온 김에 스톨만, 뭐, 이 사람이야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스톨만 같은 사람 있잖아요, GNU 일을 하시는 분이냐, 안철수님(난 이제 상용을 써서, 웨어웨어는 안 쓰지만, 이 분이 초창기에 V3 공짜로 뿌려서 우리 무지 행복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웨어웨어는 공짜로 계속 뿌린다고요), 아니면 채리남같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겠어요?

나, 이거에 대해서 힌트 무지 많이 준 것 같은데, 영 대답이 없어서 한번 노골적으로 부탁드려 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인가요? 어차피 이메일 토론이니까 가능할 것두 같은데... 나 채리남한테 이지패드랑, 이지뷰어랑, 이지데이 그거 언제 업데이트할 건지 꼭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번호 : 133

글쓴날 : 2001-04-08 22:30:40

글쓴이 : 하하 조회 : 61

제목: 이용자의 권리 보장의 문제.

갑자기 찾아와 토론을 불쑥하게 되었는데요.

아래 글을 보니까 "도둑놈 심보를 이상한 논리로 치장하지 마시다" 라는 글이 있던데 이는 전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에서만 권리를 파악하고 있는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생산자 위주로 법안이 발전되어 왔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법은 문화와 기술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탄생한 법입니다.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작자에게 인위적 독점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50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구요. 또한 자신이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상대성원리"등 자연 법칙 그 자체의 발견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구요.

상상해보세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아인슈타인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류 과학 기술 발전에 엄청난 해가 될 것이고 누구도 이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현재 지적재산권법은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문화와 기술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 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회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즉, 기술/문화 발전의 대가로 사회에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적재산권 법에서 생산자의 권리 측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p3의 경우 이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니까 사회적 재산으로 바라 봐야 합니다. 현재의 법률 역시 그렇구요. 그게 그 사람것이라면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무체물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니까요. 또한 보호대상에서 예외조항도 물론 없어질 것입니다.

초기 지적재산권 제도가 몇몇 소수자의 생산과 소수자의 이용의 관점에서 문화 예술품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면 갈수록 다수의 생산자와 다수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황희철(부장검사)- 현재 생산자의 권리는

급격히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이용자의 권리는 검토된 적도 없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부장 검사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은 이용자의 권리 주장의 문제가 그냥 남의것 훔치면서 이상한 논리와 궤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논리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번호 : 134
글쓴날 : 2001-04-08 23:04:28
글쓴이 : 윤익수 조회 : 67
제목: 누가 생산을 하랬나?

훔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생산자에게 아무것도 훔친 것이 없다.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는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것을 복사했을 뿐이고, 그것은 확산되었을 뿐이다. 내가 말했어도, 한번 말해지면, 이미 나만의 것은 아니다. 이것이 싫으면, 말하지 않으면 된다. 복사되는 것이 싫으면, 생산하지 말아라.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듯이, 언제나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은 존재할테니까

번호 : 135
글쓴날 : 2001-04-09 09:48:40
글쓴이 : 석기시대 조회 : 166
제목: 소리바다 처벌하라!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소리바다를 처벌하라. 근데...씨바....소리바다만 처벌하는건 불공평하잖아... 소리바다는 깃털이야, 깃털...알아? 몸통을 처벌해야 불법복제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그거 듣게한 원옴푸도 처벌하고... 그거 저장하게한 하드디스크 제조업체- WD, 코너, 삼성, 맥스터, 시게이트, IBM, 후지쯔 등등 다 잡아 넣고.. 소리바다하고 원옴푸 돌아가게 하고, 저장까지 하게 도와준 컴퓨터 제조업체- 삼성, 엘쥐, 컴팩, 델, 현주, 멀티캡...씨바다 조져버리고... mp3 공유하게 한 네트워크 회사, 한통, 하나로통신 등등...다 박살내고, 음...컴퓨터 돌아가게 하고, 네트워크도 되게 한, 운영체제...창문98

만든 MS도 문닫게 해야지... 뭐 빠진거 없나? 음... 참...마자마자... 소리바다 사용자 350만도 잡아 넣어 야지... 불법복제 처벌하여 범죄없는사회 이룩하자!! 불법복제 뿌리뽑아 석기시대 앞당기자!!!

번호 : 140
글쓴날 : 2001-04-10 10:15:11
글쓴이 : 하수 조회 : 97
제목: 맞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마, 앞으로 그럴 걸요. 유럽에서는 하드디스크에다 '저작권보상금'인가 징수할려구 그런대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석기시대로 돌아가진 않을테니까... 정보생산자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번호 : 211
글쓴날 : 2001-04-15 13:37:14
글쓴이 : 처니 조회 : 25
제목: Re: 소리바다 처벌하라!

ㅋㅋㅋㅋㅋㅋㅋㅋ 맞아여 그럼 다집어넣어야 겠네. 엠포쓰리 듣게한 컴터 제조업체 컴터제조업체에 대출해준 은행 그리고 디지털 머시앵이하면서 잡치는 정보통신부 그리고 디지털 산업을 육성시키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아찌도 감방 들어가야겠네?

번호 : 137
글쓴날 : 2001-04-09 17:25:24
글쓴이 : 하수 조회 : 117
제목: 남희섭님 글에 대한 보충의견

남희섭님이 지적한대로, 지적재산권이 '인위적 독점'을 부여한 이유는 문화의 발전이나 산업의 발달을 위해 지적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매체'는 이 '인센티브' 자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희섭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가 절대 '무체물'은 아닙니다. 0과 1로 비트화된 정보는 어딘가에 기록되어져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이것을 디지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필수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차이를 정보가 표현된 매체를 기준으로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표현된 매체를 규제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려구 한다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변함이 없고, 아날로그 시대에도 '정보가 표현된 매체'를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부지기수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복제가 무척이나 용이해졌고, 그러한 '복제행위'를 '이용자' 단위로 규제하기가 무척 어려운 점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필사에 의한 정보의 복제에서, 인쇄, 복사기에 의한 정보의 복제, 이제는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의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즉, 아날로그 시대에는 '복제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작권료'의 징수가 가능하였던 반면(물론, 그렇다고해서 불법복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정보생산자에게 그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통제가 가능하였습니다)에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정보'가 '정보생산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이미 '통제불가능'의 그야말로 '무한복제'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생산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정보생산자'가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면 '정보생산자'는 자신의 노력이나 투자에 대한 댓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예상했던 '인위적 독점'은 이미 기술의 진보에 의하여 많은 부분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 할 것입니다.(이점은 남희섭님과 같은 의견임) 결국, 정보생산자로서는 '디지털 매체'를 '아날로그 매체'와 똑같은 유체물로 파악을 하여서 저작권료는 징수할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워터마킹 기술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위적 독점'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넵스터 판결과 같이 기존 법률을 동원하여 매체 자체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위적 독점'을 대신할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보생산자의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구 생각을 하며, 그렇다면 논의의 초점은 '인위적 독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혹은 '인위적 독점'을 인터넷에 맞게 합리적으로 유지할 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보생산자' 입장에서 서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보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미 '인위적 독점'은 상당부분 무너졌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차피 '정보생산자' 그들의 고민에 불과할 뿐이고, '정보소비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골치 아프게 연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번호 : 142

글쓴날 : 2001-04-10 11:10:44

글쓴이 : 해적 조희 : 50

제목: Re: 남희섭님 글에 대한 보충의견

님의 글....

> 또한 디지털 매체가 절대 '무체물'은 아닙니다. 0과 1로 비트화된 정보는 어딘가에 기록되어져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또 이것을 디지털화된 정보를 해독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필수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차이를 정보가 표현된 매체를 기준으로 '유체물'과 '무체물'로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희섭님의 글....

한편, 지적재산권은 정보나 지식과 같은 무체물의 보호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체물이 표현된 유체물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할 때, 저작권자는 소설이 출판된 서적의 판매나 복제를 통제하는 권리를 통해서 자신의 저작권을 행사하고, 음악은 그것이 표현된 음반의 통제를 통해서 소유권이 실현됩니다. ...(중략)...디지털화된 정보는 이제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복제되는 범위와 내용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나의 의견....

토론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남의 글을 좀 자세히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토론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근거를 대세요.

번호 : 144

글쓴날 : 2001-04-10 11:55:38

글쓴이 : 해적 조희 : 54

제목: 하수에게 질문.

1.

스톨만이 '지적재산권'을 '인위적 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적재산권이란 말이 지식도 재산이라는 관념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표현인거죠. 남도 인위적 독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은 스톨만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말을 쓰는 겁니까?

2.

이번에는 좀 쉬운 질문.

님의 수준에서는 아마 '인위적 독점'을 인간(또는 사회)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아래 남의 글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견을 곳곳히 지키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남이 생각하는 '독점'과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번호 : 145

글쓴날 : 2001-04-10 12:39:09

글쓴이 : 하수 조희 : 58

제목: Re: 하수에게 질문.

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유통이 '무체물' 그 자체로서 '유통'될 수 있다는 남희섭님의 글을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 같군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도 '정보'를 이용(보거나 듣거나 등등)하기 위해선 역시 '유체물'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건 '정보의 유통'을 다루는 이번 논쟁에서 그리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만...

> 1.

> 스톨만이 '지적재산권'을 '인위적 독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적재산권이란 말이 지식도 재산이라는 관념을 심어주는 이데올로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표현인 거죠. 남도 인위적 독점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은 스톨만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 말을 쓰는 겁니까?

저 자신 고정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요, 지적재산권이 '인위적 독점'의 측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 2.

> 이번에는 좀 쉬운 질문.

> 남의 수준에서는 아마 '인위적 독점'을 인간(또는 사회)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아래 남의 글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견을 곳곳히 지키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남이 생각하는 '독점'과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 역시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을 생산자쪽에 유리하기 가져가기 위해 '인위적 독점'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지금까지 대충 얻은 생각은 결국, 이 논쟁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인위적 독점'이 왜 설정되었느냐? 그 다음으로, "인위적 독점"을 없앴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 독점'이 '생산자'측에 '인센티브'를 부여된 것이라면, 왜 하필이면 '인위적 독점'을 부여했느냐? 그 '인위적 독점'이 해체된다면, '생산자'측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인위적 독점'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생산자'는 스스로 그거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를 찾아야 할 것이라는 식의 논쟁은 거기에 생산자가 동의하지 않는한에 무의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술을 생산'을 하는 것은 '생산자'이고, 그들 스스로가 인센티브를 못 찾는다면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빚어진 혼란은 생산자들에 의해서 '인위적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남희섭님의 글대로 '유통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 이 '정보생산자'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생산자'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에는 생산자는 끊임없이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어떡하든 소리바다'를 살릴까를 고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양정환님의 말대로 '인위적 독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그 스스로 그걸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리바다'의 유료화 얘기가 끊임없이 떠돌고 있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논쟁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야 할 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정환'님이 계속 지금처럼 '소리바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정환'님에 대한 지원에 있어야겠지요... 그거 지금은 mp3 플레이어 생산업체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소리바다 유지될 수 있을까요?

번호 : 147

글쓴날 : 2001-04-10 15:33:35

글쓴이 : 해적 조희 : 38

제목: 재질문...

저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시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죠.

님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인터넷에 의해서 생산자의 인센티브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서도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창작도 생산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

로 인터넷에서 생산자의 권리가 강화될 경우, 예를 들어 소리바다에서 파일을 교환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든지, 생산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게되죠. 즉,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의해 생산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한다는 념의 주장은 생산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엄청난 이익(적어도 과거보다는 더 큰 이익)을 창출할 권리는 달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지적재산권'과 '인위적 독점'의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말에 대한 대답으로 '지적재산권에 인위적 독점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식이 재산인가?'라는 말에 대한 입장의 차이이고, 소극적으로는 '모든 지식이 재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념이 '지식이 재산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위적 독점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죠. 그저 지식은 재산인데,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두번째 질문은 지식에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자유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데, 념께서는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을 주장하고 있길래 그 모순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번호 : 149

글쓴날 : 2001-04-10 16:58:04

글쓴이 : 하수 조회 : 36

제목: Re: 재질문...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산자"는 결코 "인터넷을 이용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소비자"처럼 애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가 절대 '독점권'을 허용하지 말라구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생산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 생산자가 "소리바다"가 될지, "음반사"가 될지 혹은 다른 제3의 생산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는 싸움은 단지, 그 새로운 엄청난 이익에 대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싸움에 불과할 뿐이지요...

온라인 토론게시판에 올라온 양정환님의 글이나, 임학연님의 글이나, 모두 저에게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난 '재산' 역시도 인위적인 만들어진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란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자꾸 변화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물'이나, '공기', '남극', '우주' 이런 것들이 재산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까지도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제' 역시 인류가 만든 '인위적 제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회주의'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사유재산제'가 없으면 인류가 발전을 못하나?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 불쌍한 것 아니냐? 우리 한번 다른 시스템으로 정말 인간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실험이 진행되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난 이미 그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견 끝없는 논쟁만을 야기할 뿐이니까... 더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난 스톨만의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해주더군요...) 어쨌든 념의 지적대로 제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지식'은 재산인데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독점을 설정하였다구요. 난 별다른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만,,, 독점이 있으면 '자유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념이 '완전경쟁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요? '완전경쟁시장'이 현실사회에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난 (불완전한) 시장이더라도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립에 의한)이 다른 방식의 '가격결정' 혹은 '가치결정' 시스템보다는 낫지 않을 까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난, 지금의 소리바다에 의한 mp3 파일의 무료유통 역시도 시장시스템 내에서의 '가격조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p3 돈 줄 필요 있냐?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면 되지라는 소비자의 입장과 무료로 줄 것이란 우리가 '음반'을 왜 만드

느냐? 'cd값'만큼은 못 받아두 공짜로는 못 주겠다... 양자가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소비자는 cd 시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생산자는 소리바다 시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양자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싸움의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mp3 파일도 돈을 받기는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요. 그에 저항해서 소비자는 또다시 다른 '무료시장'들을 개척할테고, 또 생산자는 그걸 막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테고...

스톨만의 실험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스톨만의 실험에 동의한 많은 생산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바다' 싸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역시 'mp3 파일'의 생산업자(그건 그냥 cd를 mp 파일로 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 신인 작곡가도 좋고,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냅스터에는 그런 뮤지션이 조금 있는 거 같구, 우리나라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가 념의 말에 공감하고, '소비자'편에서 활동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전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념과 내가 아무리 입아프게 떠들어보았자, 이 싸움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내가 념의 의견에 동의를 하든 말든, 혹은 내가 잘못 생각했든 말든간에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찾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소비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식은 '소리바다'가 무료인 동안 열심히 다운로드 받구, '소리바다'가 유료로 전환되면,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아서 열심히 '다운로드' 받구,,, 뭐, 그계 전부이겠지요... 물론, 다른 식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결국, 제가 그동안 이 게시판에서 한 일이라구는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 뿐인 셈이 되네요... '소리바다'가 언제까지 소비자의 천사로 남을지, 아니면 또다른 'MS'로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거나 합시다...

번호 : 150

글쓴날 : 2001-04-10 17:22:28

글쓴이 : 해적 조회 : 38

제목: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

그건, 념이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글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가보나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요. 저도 오기가 있어서리...

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생산자의 요구가 념이 이야기하는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독점이윤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는데, 역시 념은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오히려 소비자가 '그렇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한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구요.

녀ם은 인터넷에 의해서 생산자가 피해를 볼 것이고, 정보공유를 주장하려면 다른 인센티브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념의 주장처럼 인터넷을 생산자가 통제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텐데, 념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역시 생산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게시판에서 토론 주제로 제기 되지 않았지만 념의 주장을 더욱 설득력있게 하려면,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일단...논쟁은 이쯤 하겠습니다. 다른 분의 질문 피해가지 말고, 설득력 있는 논쟁이 되시길... 이 게시판에서 념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번호 : 153

글쓴날 : 2001-04-10 18:58:14

글쓴이 : 하수 조회 : 39

제목: 저두 답답합니다

논쟁을 계속하려는 건 아니구 너무 답답해서리...

녀ם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역시 생산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인데요

생산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간 것이 아니라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산자'가 그걸 제시할 것 같지도 않구요... 당연하겠지요... '생산자' 스스로가 자신의 '독점이윤'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할 이유가 없겠지요... '생산자'

는 그냥 '시장가격'이른 딱이다. 그건 대신할 수 있는 거 있으론 내 놓아봐라 정도일테죠,,, 뭐. 전, 그에 대한 대답(정당한 보상)을 바로 이 게시판에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생산자도 안 내놓고, 소비자두 안 내놓고, 너무나 답답해서리...

그럼, '시장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시스템이 무엇이나? 아니면 '시장가격'을 보완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시스템이 무엇이나? 아직까지 이 게시판에서 제가 들은 대답은 '소리바다'에서처럼 공짜루 뿌리는 것두 생산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어차피 '정보'란 것은 공짜니까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온라인 토론이나 지켜봅시다. 거기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으니,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두 모르지요...

번호 : 138

글쓴날 : 2001-04-10 05:09:52

글쓴이 : 궁금 조희 : 69

제목: 궁금한건데염..

음.. 저작권말이에여.. 음.. 만약.. 앨범을 하나 구입 했어여.. 그런데 친구가 어떤 곡의 가사를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어떠한 게시판에 적어놓아서 알려주었어여.. 그러면.. 그것도 카피 해서 알려준거니까.. 저작권 침해 한건가염?? -.-?? 궁금하네염.. 아.. 그리고 소리바다에서 엠포파일이 위 법에 걸린다면여.. 응.. 예전의 백양 비도 사건처럼.. 누군가 제일 처음 유포자를 찾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50만 다 처벌한다는건.. 또 가장 마니 접속한 사람을 처벌하는것도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더.. 밑에 내용들 읽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지만..) 업로드측.. 그러니까 소리바다에 접속해 있는 모두가 업로더이지요..? 그럴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무작위 배포.. 라는것 때문에 그런 거(맞나?) 같던데.. 즉 업로드측 잘못... 이라는.. 근데 소리바다 자체가.. 그냥 검색엔진 비슷하잖아염.. 그러니까 거기에 접속을 했던 것 뿐인데.. 상대방이 그 파일을 카피 해간거잖아염.. 모르는 사이에.. -.-;; 그것도 업로드측이 잘못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몰래 카피해서 가져갔다던... 뭐 그런거.. 너무 이상한

~ 생각인가?? 암튼 궁금한게 넘 많네요.. 누가 저작권 법에 대해서 짝악 올려주셨음...

번호 : 143

글쓴날 : 2001-04-10 11:50:27

글쓴이 : 오병일 조희 : 64

제목: Re: 궁금한건데염..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침해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음반 가사를 친구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적 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만일 게시판에 올려놓았을 경우, 소리바다나 MP3를 게시판에 올려놓은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임의의 대중들에게 배포한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음반사나 저작권자들의 시각에서) 현실적으로는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제 입장은 이와 같은 비영리적, 개인적 사용의 경우, 그 영향력을 떠나서 공정한 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현실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운동을 해야하겠죠.

번호 : 139

글쓴날 : 2001-04-10 06:42:13

글쓴이 : 소리바다팬 조희 : 41

제목: 흙..

주체를 정확히 모르겠네염.. 근대 전 소리바다가 없어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사실 음악을 마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취미 생활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음반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우선 인터넷으로 노래를 들어보고 음반을 사는 편입니다.. 근대 mp3있는 사람들은 어캐 해야 하나염? 궁금하네여...제 친구가 mp가 있거덩요.. 금줄입니다.. 소리바다..꼭 살아나세염~~화팅!

번호 : 141

글쓴날 : 2001-04-10 10:16:35

글쓴이 : 네티즌 조희 : 86

제목: 반대.—;

처벌할꺼 있나? 소리바다는 mp3공유프로그램이지 냅스터와 같은 형식이 아니다. 그럼 사용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거 아닌가? 인터넷의 혁명쯤에 있는 소리바다가 처벌을 받는다면 네티즌의 정보공유가 모두 불법이 되겠네...

번호 : 146

글쓴날 : 2001-04-10 14:00:47

글쓴이 : c군 조희 : 47

제목: 소리바다 허용하라!!!

소리바다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연결만 해주는 역할인데 무슨 죄가 돼느냐!

번호 : 148

글쓴날 : 2001-04-10 15:44:08

글쓴이 : 마리 조희 : 78

제목: 현시대를 거스르는 서비스 정신...

법에 대해 무지인 그냥 평범한 보통사람으로서 그냥 생각한번 적습니다. 저작권을 생각해보면 무형의 생산물에 대한 유형의 가치를 부여하는 권리라 생각되어지는 데... 요즘 논란이 일고있는 음반물은 저작권을 가진 무형의 생산품이 소수 몇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어지는 목적으로 만든 대량 상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림이나 귀중품처럼 작품의 질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일반 상품처럼 제품에 불만족 사항이 나왔을때 사후 서비스나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판매하고 나면 그 후로는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나 보상사항도 없고 아마 환불도 안될겁니다. 그렇다고 골라서 몇곡만 살수도 없구요 mp3로 사면 되지 하지만 mp3는 컴이 포맷되면 날라갈 수 있는 한시적이고 보존 가능성이 희박한 매체지요.

요즘은 서비스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건 하나 살때도 차후 서비스를 보고 사는 시대인데 유독 저작권 관련한 상품은 이런것이 없더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발전하는 시대상황에 법률이 뒷받침 하지 못한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더군요. 침단으로 일컫는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려 애를 쓰고 있더군요.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법만을 발전시키려 하는 행동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말한 음반물에 대한 사후 서비스에 관해 말도 안돼고 실현불가능이란 말들을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인터넷에서 mp3를 규제하는 것보단 쉽게 실현할수 있는 일이라 보아집니다. 다만 이득이 적어지는 상황이니 절대로 그런 법률은 안나오겠지만요.

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가치와 책임과 사후 서비스 그리고 만족을 주었을 때만 저작권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법률체제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리저리 횡설수설 저도 제글이 정리가 안되지만(^) 먼가 중요한포인트를 놓치고 간다는 맘이 굴뚝같아 한글자 적어봅니다.

번호 : 151

글쓴날 : 2001-04-10 18:41:36

글쓴이 : 리눅스의 정신을... 조희 : 61

제목: 이해가 안가네....

소리바다가 왜 법정에 서야하나요? 소리바다가 MP3파일 만들어서 배포했나여? 소리바다는 개인사용자들의 PC안에 있는 MP3파일을 자신들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서로에게 소개만 시켜준 것 뿐인데....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땡전한푼 안 받고 MP3플레이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리고 소리바다를 협회에서 폐쇄시킨다 해도 MP3가 나도는것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그거 불가능할건데여...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가 있자나요...약간만 시간을 투자하면 MP3파일 쫓아야 금방이지.

소리바다를 고소해서 이기고 폐쇄를 시키거나 유료화를 시키면 스스로 손발을 자른거나 마찬가지....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아참...그리고 이번 소송에 하나가 빠진것 같은데..MP3가 초기에 들어왔을때 돈받고 MP3파일 팔던 곳 있죠? 그곳은 고소를 안했나? 협회하고 같이 고소를 했을것 같은데....

번호 : 152

글쓴날 : 2001-04-10 18:53:50

글쓴이 : 화난다 조회 : 44

제목: 소리바다는 현상태로 나가야 한다!!

만약에 정보공유 하는것이 죄라면 친구들끼리 카세트 테이프나 여러가지 물건들 서로 바꿔보고 듣고 하는것도 다죄가 대는게 아닌가?? 그러면 이런사람들 다법에 걸리니까 다구속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돼고 음악 저작권이나 음반협회 가수들 모두 누구때문에 살아간다고 보십니까! 다 음악을듣는팬이 있기때문에 음악 저작권과 협회가 있지않나요?? 자그러면 세상이 자꾸 상업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네티즌도 모든 가수들의음반 불매운동을 시작 해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다간 돈없으면 인터넷도 사용못할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유료화 되면 여긴 정보공유란 단어가 사라지겠죠! 그렇다고 솔직히 유료화된 게임이나 정말 많이 달라진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음반협회나 저작권협회 처럼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해 음반 불매운동에 앞장섭시다.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메일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앞장서서 안티 음반협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킴을 잘못해서 안돼고 잘하시는분 앞장서서 소리바다만한 정보 공유할수 있도록 한번 싸워나갑시다 일단은 소비자가 왕입니다

번호 : 154

글쓴날 : 2001-04-10 20:32:59

글쓴이 : 꼭살아야해 조회 : 44

제목: 좋은 프로그램을 왜?

최근들어서 저작권의 문제가 자꾸만 언급될수록 불법이니 아니니에 따른 말들이 많다 물론 솔직한 생각에 아마 이것에 관련된 이권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 우선 음반 관계자들 등 등 며칠전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이승철이 관중들의 반응(?) 에 대한 대답으로 "이러니까 불법 @@ 가 만들어져요, MP3 같은" 이라는 말을 했다. 솔직히 뭐 들으면서 기분은 안 좋았구 나도 개인적으로 엠피가 많은 편이다 이것을 위해서 씨디라이터 까지 달았다. 물론 냅스터의 도움을 상당히 받았고 역시 소리바다의 도움도 받았다. 개인적으로 씨디에서 추출한 것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엠피를 다운 받아갈때면 뿌듯한 기쁨과 동질감으로 인해 행복해지기도 한다. 인터넷이 왜 존재하고 소프트 웨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좀 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선사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듣지 못했던 음악들도 들을 수 있고 음악을 받으면서 서로의 의견교환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것은 결코 악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법이니 아니니의 차원이 아닌 문제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한 토론이 활성화 된 것도 나쁜점이나 생각도 있지만 좋은 점을 되새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꼭살아야해.. 죽으면 안돼 ^^

번호 : 155

글쓴날 : 2001-04-10 22:06:42

글쓴이 : 최철용 조회 : 41

제목: 소리바다 현 상태로 유지 해야됩니다.

사람들이 음반을 살려면 먼저 들어 보는데 그것을 듣는것이 바로 MP3 입니다. 이 MP3를 공개적으로 얻을수있는 곳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음반이 잘 팔리지 않을것 입니다. 그러므로 MP3에는 저작권법을 적용 하지 않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번호 : 156

글쓴날 : 2001-04-10 22:29:41

글쓴이 : 저승사자 조회 : 44

제목: 소리바다는...

소리바다는 이제 네티즌의 필수로 자리잡았거늘...

이제서야 된다 안됐다니??? 이런거 말거 불우이웃이나 돕던지.. 실직자나 빨리 빨리 구제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번호 : 157

글쓴날 : 2001-04-10 23:57:16

글쓴이 : 아무 조회 : 50

제목: 그냥 저의 짧은 생각...

요즘 냅스터다 뭐다 해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때 라디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을 녹음해서 들으면 그건 저작권 침해인가요. 저는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로 테이프 로 녹음하는 것과 요즘 컴퓨터인터넷상에 나오는 음악을 mp3로 저장하는 것은 그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mp3음악은 원본시디 음질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그음악이 마음에 들고 정말 좋아한다면 살것입니다. 솔직히 요즘처럼 몇번듣다가 다시는 안들을 음악이 많다면 너도나도 길거리포 테이프나 사지 뭐하러 음반을 사 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음반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음악은 정말 평생가지고 있어도 돈아깝지 않고 계속 들을 만한 그런 앨범을 만든다면 사지말라고 해도 살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생각이 많다는군요.. 찌비 ... 화나는 일도 많은데 이런 일로 사사건건시비를 언론이다 음반회사다 뭐다 너무 짜증나는군요, 그냥 글 한번 써봤습니다.

번호 : 158

글쓴날 : 2001-04-11 12:27:07

글쓴이 : 하수 조회 : 113

제목: 소리바다의 딜레마

어제 소리바다를 들어갔다 서버를 증설한다는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다. 이용자의 폭증으로 밤 9시부터 12시 시간에 접속이 잘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소리바다의 얘기다. 이 얘기를 접한 순간, 갑자기 그럼 그 "서버"는 누가 제공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리고, '서버' 유지비는? 소리바다야 형제 두 사람이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워낙 인건비가 안드는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버를 운영하려면 '회선료'도 내야 할 것이고, '서버'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리바다야 형제 두 사람이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워낙 인건비가 안드는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버를 운영하려면 '회선료'도 내야 할 것이고, '서버'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할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

많은 이용자들은 소리바다가 유료화되면 더이상 '소리바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 '소리바다' 시스템은 서버측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므로 이용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그 틈을 노리고 제2, 제3의 소리바다가 '무료'를 미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다면...

그때에는 어쩌면 '유료'의 소리바다는 고사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때에도 '무료'의 소리바다가 새로이 등장할테고,,,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공짜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소리바다는 그때 저작권을 이유로 다른 업체의 기술개발을 방해할까? 아니면 그냥 망하는 길을 선택할까?

번호 : 159

글쓴날 : 2001-04-11 18:07:46

글쓴이 : 업계종사자 조회 : 110

제목: 몇가지 빠진 문제들에 대해서만.

음반업계와 유관하며, 또한 웹포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동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토론들을 읽어보았습니다만... 몇가지 개념상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1. 음반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mp3에 대해 토론하는, 다시말해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에서 음반이라는 매체부터 말한다라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간에 처음부터 mp3파일로 만드는 일은 없으니 음반이라는 매체를 언급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음반이라는 상품은 3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성, 또 하나는 부분적 공공재로서의 특성 마지막으로 경험재로서의 특성이 있죠. 문화상품으로서의 특성은... 문화라는 것

이 기본적으로 '여가'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없어도 먹고 사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마니아가 아닌 다음에야 돈 못벌면서도 음반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직접적인 생산주체에 의해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프로세스가 단일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특성, 그리고 소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머 극렬팬들의 경우에 반복적인 동일 상품의 구매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으로 부분적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음반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방송을 통해 모두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수없이 많은 음반들이 나오는 세상에서 방송조차 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듣고 구매할 방법이 없죠. 방송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품자체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공공재의 성격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밀에 어떤 분도 소비의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말씀하신거 같았는데... 머리가 나빠서리). 마지막으로 음반이라는 상품이 순전히 경험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입해서 들어보지 않는 다음에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에게 맞는 건지를 판단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로 CD한장에 평균들어가는 15곡 중에서 방송을 타는게 몇곡이나 되나요? 그리고 다 들어보려면 사는 것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2. mp3와 위의 문제점들.

사실 mp3파일의 경우엔 위에서 말한 문화상품으로서의 음반이 가지는 특성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반은 경험재인 까닭에 사고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mp3파일이야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안들면 지워버림 끝이거든요. 이 문제는 mp3파일을 다운받을때 얼마씩 과금하겠다는 전략(이것도 전략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만)이 인터넷 유료콘텐츠 시장에서 얼마나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뭐 이견제 판단입니다만). 또한 음반 자체가 '부분적'으로 '공공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mp3와 같이 무한복제가 가능한 형태로 이전의 음반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면 음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겐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음반이 판매되는 형태는 카세트 테

이프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왜? 돈 벌루 없는 청소년층이 한국음반시장의 주 고객이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와 비슷하거나 더 작은 플레이어에서 작동되면서 튀는 현상같은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mp3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거죠. 앞서 말했듯 문화상품이라는건 없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그걸 공짜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문젠 한국의 음반시장에 스케닝 제도가 아직까지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음반시장규모도 정확한 값이 없고 추정치만 있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만큼 mp3에 의해 음반시장이 잠식되었는가를 추정하는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미국의 예를 말씀하십니다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달라도 너무 많은 것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장치들로 음악을 들으면 mp3플레이어로 들으나 CDP로 들으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음악은 앉아서 듣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겐 mp3가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mp3.com은 유니버설에서 CD1장당 2만5천 달러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법정분쟁을 해결하더군요).

3. mp3의 확산은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mp3 파일의 확산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리바다, 넵스터... 이들이 제시한 P2P방식의 파일교환방법은 이젠 벌루 신기한 녀미 못됩니다. 거기다 광대역 통신망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3~5메가짜리 파일 하나 전송하는건 몇초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으니 조금 후엔 어떤 기술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협회에 있는 일부 노망들은 이걸 '불법화'시키면 된다고 헛소리 빼약거리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이죠.

4. copyleft?

한때 리눅스 유저였고(지금은 윈도우환경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만. --;;) copyleft정신에 상당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발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 음반이라는 상품은 한명에 의해 만들어질 수 없는 녀입니다. 음반하나를 만드는데 수많은 이들이 붙으며, 이걸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음반생산원가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세션을 쓰면 쓴 만큼 음이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는 음반제작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싼 사람에게 작곡을 맡기면 월등한 작품이 나오는건 거의 당연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뭐 예외야 항상 있는거지만)? 그리고 또하나. copyleft나, copyright나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걸 생산한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엔드유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여기에 copyleft/copyright 가 '공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게 아니라건 적어도 copyleft 규약을 한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 아니었나요? 도대체 copyleft 정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뿌려지는 mp3파일'은 '공짜여야만 한다'는 이야기와 '보안시스템이 꾸지니까 그냥 열고 들어간다'는 크레커들의 헛소리와 무슨 차이가 있는겁니까? mp3파일이 확산됨으로 음반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copyleft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몇몇분들은 저작권에 대한 스톨만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요거 문제 있습니다. 한국의 음반시장은 전세계의 음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됩니다. 미국은 30%가 넘죠. 따라서 중심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에게 '저작권'은 말 그대로 '인위적 독점'이라고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만, 좁만한 시장바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음반산업에서 보자면 이견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저작권, 혹은 특허권이라는 개념을 만든 법정신은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변부 시장에 있는 국가에서 저작권이 스톨만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아님 이런 저작권 개념을 만든 법정신이 맞을까요?

전 음반이 수많은 실패작들을 거름으로 몇몇 히트작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후자가 훨씬 더 타당하게 아닐까요? 일부에선 mp3가 무명가수를 유명가수로 띄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조PD의 경우를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견 대단히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해당음반은 조PD 혼자서 다 만든 것이었으니까 가능했다는것, 그리고 일반적인

음반의 생산과정은 이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좀 곤란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mp3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유명가수들의 유명한 앨범들이지 무명일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5. 그럼 뭐 어찌라는거냐?

왜곡된 시장부터 먼저 바로잡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CD보다 Cassette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이견 그만큼 음반의 생산 자체가 10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호주머니가 지금처럼 얇아지면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음악 감상을 충분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하는게 아니라 소리만 들리면 된다는 수준으로 떨어트려놓은 원인이기도 하므로... 10대위주의 시장구조는 바뀌나가야 하죠. 이외에도 업계에서 정신차리고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에 대한 대안들이 이것저것(기술에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견 저같은 업계 종사자들이 할 일이고...

엔드유저들에겐 말씀드릴건 몇가지 없습니다. mp3를 들던 말건, 그건 당신들 마음이지만, 제발 잘못된 개념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억지논리를 만들어가지 말아달라는것과(제대로 만들겠다는 녀들이 대책 마련하는데 불필요한 작업까지 하도록 만드니까), 제대로된 상품은 그것이 무형이건 유형이건 돈 주고 살 생각부터 하라는 겁니다.

번호 : 160
 글쓴날 : 2001-04-11 21:35:30
 글쓴이 : 이성필 조회 : 23
 제목: 왜 소리바다를.....

저는 음악 듣는 것을 보아하는 학생입니다. 우연히 소리바다 사이트에 보니까 소리바다에 소송을 걸었다고 써있더군요. 전 충격을 바다습니다. 소리바다에게 소송을..... 소송을 거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할 때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테이프나 CD를 산다고 말해줍니다. 그럴때 아무 말 하지 안코 돈 주신적 있습니까?? 다들"무슨 테이프를 사냐" 하시면서 언제나 한소리씩을 하시겠죠. 만약 돈을 안 주신다면 당신들의 자녀들은 음악을 못 듣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들은 "친구들한테 빌리면 되지"라고 말하실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쉽게 음반을 빌려 줄까요?? 자기도 들어야 한다고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본음악이나 일본 애니메이션OST를 듣고 싶을때 매우 구하기 힘듭니다. 가격도 한 가격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 MP3를 받는 프로그램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MP3를 받는 소리바다도 존재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상관없는 말을 많이 한것 같군요. 죄송 합니다 ()

번호 : 161
글쓴날 : 2001-04-12 00:28:12
글쓴이 : 두루넷 조회 : 24
제목: 소리바다가 계속되어야한다 쭈욱~~~

mp3가 없어져서 유료화가 되거나 한다면 사람들은 저장하기 쉽고 간직하기쉬운 씨디를 선호할것이며 mp3란 기술은 더이상 진보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mp3산업도 망할것이며 어쩌면 음반 판매량이 감소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 소리바다에서 한번 들어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음악가지고 지켜내 내꺼내 하는거 정말 후질구래 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이러니 할수있나요..... 그리고 sm에서 hotmp3까지 내놓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소리바다 사이트에 광고까지 했더군요 참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음악회사들인거 같습니다....

번호 : 171
글쓴날 : 2001-04-12 20:44:20
글쓴이 : 박충현 조회 : 25
제목: Re: 소리바다가 계속되어야한다

저두이분 에말과 같습니다. 음반을 사지않고 소리바다를 통해 노래를 다운 받는 것은 일 잘못 이라보지만 가수들의 신곡을 미리듣고 사는사람들도 있다. 예를들어 A기획사에서 인기 가수가 나왔는데 노

래를 들어보고 음반을 구입을 해야지 그냥 사서 노래가 안좋으면 음반사들 만 이익 일 뿐입니다. 그러타구 음반을 환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음악사들은 이런것두 잘못된 것 처럼 소리바다 를 고소하는 일은 음반사들의 잘 못한 일이라구합니다. 소리바다는 노래를 미리듣고 음반 을 살수 있어 저희들 에 큰도움입니다. 우리모두 소리바다를 살립니다. 소리바다 여러분 은 어떻하십니까?

번호 : 162
글쓴날 : 2001-04-12 00:51:56
글쓴이 : 한수증 조회 : 43
제목: 소리바다있어야할 진정한 이유!

저는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사람중 하나로서 작은 소견하나 올립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요즘 소리바다의 MP3파일 저작권으로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MP3로 인해서 더 좋은 곡을 선택할수 있는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요의주 소비자층인 학생들 경우 음반값은 그리 적은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MP3를 이용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감상해볼수 있고 다듣고나서 소장가치를 느낄수 있게어 구매하게하는 좋은 용도 입니다. 결국 MP3 좋은 음악과 나쁜음악을 선별해주는 장이 될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정보 공유라는 정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MP3가 유료화 되거나 중단될 경우의 부작용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호 : 163
글쓴날 : 2001-04-12 01:43:24
글쓴이 : 꾸에~* 조회 : 116
제목: 소비자 보호법에서 볼때....

소비자보호법[법률제5748호 일부개정 1999. 02. 05.]

제3조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1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

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 여기서 볼때.. mp3는 물품 즉, 음반을 구입할때 필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니까.. mp3도 그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됨.. -_-;;

그냥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가..

이건 소비자보호법 보다가 토론과 관계없이 생각난 것을 끄적거림...^^;

제3조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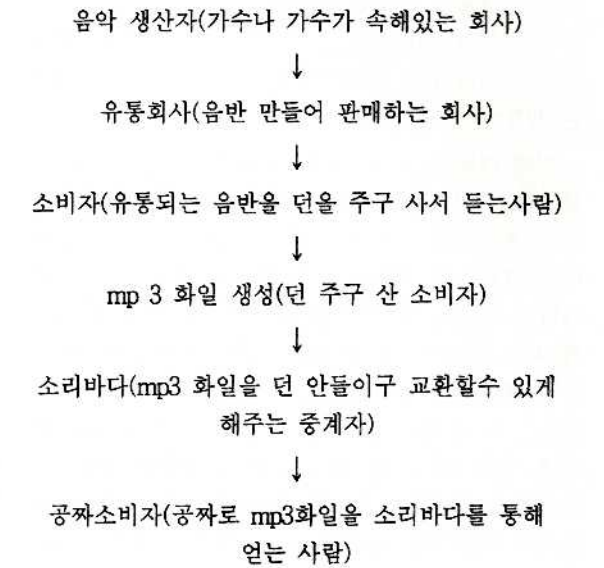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여기에서 보았을때.. 일부 몰지각한 음악인들에 의해 받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피해... 그러한 것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우리나라 음반에는 보통 10곡 이상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라도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에 줄 의무도 있지 않을까??

번호 : 164
글쓴날 : 2001-04-12 02:44:39
글쓴이 : 키키 조회 : 54
제목: 탁상공론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

흠.....넘덜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마시구 좀 솔직 합시다.....(넘 어려운 단어 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넘 어려운 단어 쓰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논쟁이 되니까요...^^ 참고로 어려운 단어를 모르기두 하구^^) 솔직히 공짜로 음악 듣구 싶져...저두 그래요.. 요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어쩌면 공짜로 들을수 없다는거...공짜가 무엇입니까.....? 던 안들구 힘 안들이

구 얻는거 아닙니까....?그럼 공짜는 어떨때 생깁니까.....? 주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지금 소리바다문제에서 이 공짜 경로를 살펴보면....이렇죠.....



요기 까지죠.....사실 우리끼리 mp3 파일 만들어서 바꾸어 듣는거는 현실적으루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구라몬 음반회사가 제기하는 문제의 쟁점은 왜 소리바다측이 쓸데없는거 만들어서 공개적으루다가 공짜 교환하게해서 피해(수입이 줄거나 앞으루 줄거라는 겁을 먹은거죠)를 주나 이겨져... 깨놓구 이야기 하몬 소리바다측 입장은 우리는 프로그램 만든죄 밖에 업다..실지적으루 우리가 mp3파일 생성한적두 업구 받아서 준적두 업다....이겨져.....^^

다시 말 하몬 죄가 있다면 공짜 조아하는 우리에게 있다 이겨져..... 결과적으루 지금의 소송 문제는 음반회사가 간접적으루 우리에게 소송 한거나 마찬가지로..너네 음악 들을려몬 돈내구 듣지 왜 공짜로 즐기나 이겨져..이 만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싸우면 이익이 업다는걸 뻔히 아는 음반회사들이 소리바다를 매개체로 너네 음악 들을려몬 몇 백원이라도 내어야되지 않겠냐는거죠... 그럼 우리의 입장은 그래 드러워서 소리바다 안쓰구 암암리에 우리끼리 바꿔 쓸게.....이럴수도 있지만 이러기엔 우리가 넘 불편 하구 지는거 같아 자존심 상하죠..... 공짜조아하는

님들 지금 이 소송은 강 음반 사서 들어면 되지해서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이 소송으로 인해 정보교환의 형태나 네티즌의 공짜권리가 굉장히 마니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문제입니다..... 즉 이 소송에 지게되면 알게 모르게 정보이용이 제한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되는건 소리바다가 아니구 우리라는 이야기죠..... 결론은 이 소송은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휴우~이제 시작이군.....님덜 서투른 생각이나마 익어주셔서 감사^^

이제..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죠..... 전략적이여야 합니다..... 지금 힘업는 소리바다로는 이기기 힘든거죠.... 우리들의 게시판 탁상공론으루는 답이 업습니다.... 그렇다구 발벗구 나설 우리들 중에 나도 업습니다.... 이것이 켈 문제입니다.....소리바다가 켈 야속해 하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공짜 조아할때는 언제구 이제와서 눈치만 보구있는 우리가 야속하기두 하겠죠.... 이 문제는 소리바다가 전략적으루 회원의 참여를 유도 해야 합니다... 물론 소리바다 자체로는 안돼겠죠..경제적인 효과를 암시해서 협력사를 끌어들이구 지원자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한가지..소리바다가 지금의 회원을 고스란히 가진다문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큼니다.....상상도 할수 업을만큼.....참.. 경제적인 효과부분은 소리바다는 여태껏 공로를 볼때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조심스레 대안을 제시합니다.....

1.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불법인가 불법 아닌가 애매할때는 대중의 힘을 이용해야합니다.....(이것은 한두 네티즌들의 탁상공론의 힘보다 어마하게 큰힘이죠)
2. 네티즌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루 동참하고 범국민적인 시안을 가지도록 유도 해야 합니다.....
3. 소리바다는 소리바다가 승소 했을때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도 반드시 투명하게 사전에 네티즌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이 문제를 음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른부분으로도 연계해야 합니다...
5. 구체적인 대안 행동을 할 오프라인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히^.....여기까정 익어주신분들 감사합니다.....앞으루 저두 적극 동참 할 생각입니다.....제 개인적인 생

각입니다.....그럼....님들도 만은 동참을 하시길.....부탁드립니다.....

번호 : 165

글쓴날 : 2001-04-12 03:35:08

글쓴이 : 꾸애~* 조회 : 47

제목: Re: 탁상공론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

님의 말에 절실히 동감한다.. 여기서 토론을 해도 실제로는 아무 영향이 없겠져...(있음 말구여. ^^;) 저두 님 말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염.. 인터넷상의 정보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너무 비약적일수도 있지만여..) 그렇게 행동을 하기가 좀.. 마니 힘들겠져... 서로 남에게 미루고.. 그러는듯..(저두 좀 그러거든여.. ^^;) 누군가가 앞장서서 해야하는데..(이것도 스스로 못하고 미루는.. -.-;) 암튼.. 정말로 그렇게라도 하는것이 좋을 것 같네염.. 지금 운영되고있는 소리바다 살리기 운영진들이 일어나서!(너무한가 -.-;) 이끌어.. 각 지방마다 일어난다면..(3월31일 서버날리기처럼..) 각 모임마다 1만명정도만 모인다면.... 그럼 약간이나마 힘이 될지도... -.-; 예고..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추신 : 아마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상의(서버 날리기 같은.. -.-;) 그러한 것이 더 많은 인원을 참가 시킬수도 있겠다는.....

번호 : 166

글쓴날 : 2001-04-12 12:03:44

글쓴이 : 마야 조회 : 55

제목: mp3 를 유료화 한다고해도....

우리집은 전용선이다.. 뭐 그러니 mp3도 있다.. 주로(대부분)소리바다에서 다운을 받는다.... 소리바다는 아주간편한거다... 쉽게 찾을수있고.... 그리고 희기 음반도 들을수있다.. 제3세계 음반이라든지말이다... 그렇다고 난 음반을 사지않는건 아니다.. 난 소장가치가 있는 음악은 꼬 사고야만다.. 그래서 우리집엔 시디가 많이있다.. 많은 음악이 우리집에는 있다.. 하지만 소장가치가 없는 음반은 구입하지 않는다.. 돈고집을때는 다운받아서 드지. 구입은 절대로

하지않는다.....

그래 mp3를 유료화해야한다고 우기는 사람 음악관계자들은 뻔하다... 그들이 만드는 음악은 소장가치가 없기때문이다.. 그들도 알고 있기에 유료화해야한다.. 말도 안돼는 법을 가지고 무작적 밀고나가고.. 그러면서 음악의 질은 높일 생각은 안하고... 고소하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나라 음악발전을 위해서.. 노력이나 하지..

번호 : 167

글쓴날 : 2001-04-12 13:38:45

글쓴이 : 소리매니아 조회 : 47

제목: 소리바다가 하나의 희생양이된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칠수가없어서 몇자 적습니다. 어편분이 이야기하셨듯이 소리바다는 mp3파일을 직접제공해주는것이 아니잔습니까?! 어디까지나 소리바다는 회원들간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일뿐인데.. 왜구지 인터넷의 수많은 mp3사이트를 모두 체치고 유독 소리바다가 대표가되어야하는건지 모르겠군요. 어디까지나 소리바다는 그저 하나의 정보공유프로그램일뿐인데요. 법을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려면 상대를 제대로 찾아야하지않을까요? 지금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침해를 문제로 삼아서 mp3파일을 유료화하자는것이아닙니까? 그럼 Gmp3파일을 직접 무료로 제공하고 배포하는 사이트를 가지고 모라해야하지않을까요? 그사이트들 어디를 가바도 역시 지적재산권이니 저작권침해행위라느니 그런이야기는 있지도 않습니다. 소리바다는 사용하는 회원들도 모두 알고있듯이 mp3파일을 직접제공하거나 하는 사이트도 아니고 회원들끼리의 파일을 공유하는프로그램이건만. 왜 소리바다가 이런 내용에 중심축에 끼어서 이런논란의 대상이 되었는지 알수가없군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요 정말 이런것으로 말이나와야할사이트는 소리바다가 아니라 우리도 잘알고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검색사이트들이모두 그법률에 걸리는것 아닌가요? 이것말고도 요즘 유행하는 메신저들도 그렇겠군요.... 이렇게도 많은 사이트들이 mp3를 무료로 배포하고있는데 그런사이트를 체치고 말도안돼게 소리바다라니.... 소리바다는 넌뭘 주셨으면 좋겠군요~

번호 : 168

글쓴날 : 2001-04-12 15:48:47

글쓴이 : 송인권 조회 : 32

제목: 소리바다다는 꼭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됩니다.

소리바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꼭 이사태가 잘 해결 되서... 지금 처럼 무료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이 안팔린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음악이 좋으면 어떻게라도 팔린다고 생각 합니다.. 소리바다는 영원히...

번호 : 169

글쓴날 : 2001-04-12 17:52:59

글쓴이 : www. 조회 : 31

제목: 말이필요없다...

소리바다 화이팅 소리바다 없이는 음악을 논하지 말라...

번호 : 170

글쓴날 : 2001-04-12 18:31:14

글쓴이 : 나그네 조회 : 36

제목: 왜 소리바다만 희생양이 돼야하지여?

mp3를 다운받는때는 소리바다 말고 여러사이트도 많이 있는 걸루아는데 음반협회는 마치 소리바다하구 무슨 웬수지간인가? 왜 소리바다만 잡구 늘어지는지 그러기 전에 mp3를 다운받는때는 전부 다같이 다운을 못받게끔 조취를 취하던가 해야지 가만보면 소리바다만 같구 물고늘어지는 이유를 알수가 업네. 참으로 답답한 음반협회 아닌가. 음반협회는 인터넷을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인터넷은 말 그대로 전세계인을 상대로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게 아닌가. mp3뿐만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끼리 서로 공유를 하는것인데 음반협회에서소리바다에게 해준 것이 머가 있길래 왜 차구 물고 늘어지는거야 떠발*돌아 차라리음 반협회에서 인터넷을 다 통제해라. 그럼 속시원할거 아냐. 이 유야 어케 왜있던간에 사용자끼리 mp3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은 음반협회는 입도 뻥긏하지

말고 강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켈로 낫다고 난 생각 한다. 아니면 음반협회를 해체하던가. 카~~~~~악 튀

번호 : 172
글쓴날 : 2001-04-12 22:03:58
글쓴이 : 소리바다사랑 조회 : 26
제목: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만 한다..

소리바다가 왜 폐쇄되어야 하죠? 이것은 범 국민 적인 손해입니다.. 소리바다를 살립시다..

번호 : 173
글쓴날 : 2001-04-12 23:46:59
글쓴이 : 용용이~ 조회 : 22
제목: 소리바다여 영원하라...

소리바다는 PEER TO PEER 방식으로 서로 교환 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하지만 소리바다만이 이런 회생양이 돼라는건 반쯤 어거지의 성격을 띄고 있 다... 그리고 소리바다를 없앤다고 해서...MP3가 사라 지리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웁 다... 내가 아는 P2P공유 사이트만해도 여러개이다. 그리고 소리바다를 닫는다고 해도 여러 마음맞는 사 람들이 모여서 소리바다비슷한 P2P사이트를 만들꺼 라는 생각도 들고...

번호 : 174
글쓴날 : 2001-04-13 01:02:34
글쓴이 : 화난다 조회 : 35
제목: 자꾸 글만올리지 말고 우리뭉쳐서 싸우자고요

자꾸말만 하지말고 거보면 빠순이들이 얼마나 잘 뭉칩니까 우리도 뭉쳐서 싸워나갑시다!!!! 저번에도 동영상 뮤직비디오도 저작권이 뭐니하더니 지금어떻 습니까! 여러네떠즌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는 정말 모든것이 유료화 될것이고 그러면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니고 완전히 장사꾼들의 영업장소 가 될것입니다. 앞으로 두고보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것이 유료화될것입니다. 그러지 않

기위해서는 여기서 막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 말 돈없으면 인터넷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천리안같은 모델은 모든것이 돈아닙니까 그렇게 돼있으면 좋 겠습니까!!!

번호 : 175
글쓴날 : 2001-04-13 11:55:35
글쓴이 : 결심했어 조회 : 34
제목: 동참하겠습니다..

음.. 누군가 총대를 매어야 하는데.. 소리바다를 살 리기 위해서... 소리바다 운영자 측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 주신다면.... 저 는 기꺼이 동참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인터넷와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번호 : 176
글쓴날 : 2001-04-13 12:47:20
글쓴이 : 꾸애~* 조회 : 37
제목: Re: 동참하겠습니다..

소리바다 운영자 측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소송까지 걸려있는데.. 그런 행동을 시킨다는 건... ^^;;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야겠쥬.. 제 생각에는 소리바다살리기 사이트의 운영자님들이 나서주셨음.. ^^;;

번호 : 177
글쓴날 : 2001-04-13 15:51:49
글쓴이 : 경제매카시 조회 : 52
제목: [펌]불법복제단속은 정통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

anti-SPC사이트(www.antispc.com)에 올라온 내 용입니다.

제목 :불법복제단속은 정통부의 부처이기주의 때 문

작금의 불법복제 단속 사태에 대해 좀더 본질적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정보통

신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로 부터 매년 조단위의 기금을 거두어 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정보화촉진기금 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요..이 기금 은 통신사업자들이 처음에 사업권을 딸때 내는 돈과 그리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액을 거두어 들여 채우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금은 바로 정보통신부의 모든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금을 통신인 프라를 깔거나 중소기업에 뿌리기도 하지만, 산하기 관 키우기와 관련 협회등을 자기쪽으로 줄세우기에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조직개 편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 흡수통합 당할 처지에 몰리면서 광란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체국 업무가 공사화 되면서 사실 팔다리가 잘린 형국이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차기 정권 초 에 있을 조직개편에서 살아남기 위해 광분하고 있지요. 이러한 광란이 지식정보강국이니 정보대국이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에 가리워 잘 안 알려질 뿐입니 다. 사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신부 살리기 기금 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최근 참여연대에서 통신요금인하운동을 벌인다고 하더군요. 정보통신부는 내내 멀떠름한 자세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쥬요. 본질적으로 통신요금의 인하는 곧 사업자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금으로 거두어갈 돈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때문에 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내심 꺼리게 되는 것 입니다. 사실...이 기금을 거두어들이는 근거가 무엇 입니까? 그것은 한정된 국민의 재산인 전과를 소유 시켜주는 대신 거두어들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IMT2000 허가권에 1조3천억이라는 돈을 내도록 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두어 들여진 돈들이 부처간 밥그릇싸움에 허공에 뿌려 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매년 조단위의 돈을 우리 통신서비스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정보통신부는 갈취해가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의 높은 요금을 조장하는 것도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갈취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처 럼 소비자로부터 갈취해가는 돈을 가지고 정말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의 행태는 조금만 뜯어보면 공분을 사 마땅한 것입니다. 이들은 차기 정권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개편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영역을 확장 하고, 산하기관을 무한 팽창시키며, 관련 협회를 만 들어 이들을 자기뒤에 줄세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광란의 불법복제 단속에도 정보통신부의 부 처이기주의와 밥그릇싸움이 중심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라며 여기 에 무려 2000억원의 돈을 매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무려 1조원의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돈은 물론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머니 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돈의 상당부분은 그 밑의 산하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조직의 확장과 자기들 편들어줄 각종 협회의 조직과 지원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곳곳에 지원센터란 이름으로 해외출장소 같은 것을 만들어 대내 쏟아 붓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액수의돈의 IT인력양성이란 이름하에 학원들 배채우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kill_MIC로 검색해보세 요) 정보통신부는 떠들기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규모가 한 8조쯤 되며, 현재 수출을 1억불 정도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것이 새빨간 사기이고 통 계조작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프트웨어 생산이라고 나오 는 통계의 75%이상...소위 시스템통합이나 관련서 비스입니다..즉 6조 가량은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 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스템 통합이나 관련 서비스라는 것은 기업체나 정부에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깔아주고 필 요한 소프트웨어를 configuration 해주고, 때로 수요 자에게 맞춤 서비스 되는 프로그램을 짜기도 합니 다. 특히 이 부분은 삼성(SDS)이나 LG(EDS) 현대 (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SK(C&C) 등재벌 계열사 들이 90%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기업을 위해 우리 통신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려서는 안 되쥬지요? 아마 정보통신부는 이런 변명을 하쥬지요. 우리는 이런 대기업들이 아니라중소벤처기업들 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런 재벌계열사의 몫을 빼면 나머지는 한 2조쯤 됩니다 하지만 이중 적어도 1조 5천억은외 국기업의 몫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어도비, 마크로미디어, 오토캐드 등등 여러분들의 귀 에 익숙한 이들의 소프트웨어들이 국산 소프트웨어 와 구별없이 다 국내 생산으로 포장되어 국내 소프

트웨어 산업의 규모를 부풀리는데 이용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겠지요. 외국기업의 매출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에 포함되느냐? 그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생산설비가 따로 필요없고,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해도 국내에서 쉽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국내에 영업판매 법인을 세워서..국내에서 찍어내서 팔기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국내 생산이지만...실질적으로는 수입이나 다름없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어 부분을 빼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생산액 5000억원의 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니까...정보통신부는 5000억원도 되지 못하는 산업에 2000억원도 넘는 돈을 매년 쏟아 붓고, 앞으로 도 쏟아 붓는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산업이 앞으로 초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지요.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돈으로 밀바진독에 물분 기식으로,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액수를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원한다고 난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조직개편에서 쉽게 흡수통합되지 못하도록 조직의 세를 불리려는 목적입니다. 산하기관(소프트웨어진흥원)의 조직을 요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니 하는 것이 무색하게 무한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관료들을 포진시키고, 만약에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더라도 퇴출당하는 관료들은 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종 협회를 조직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정보통신부에게 줄서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후조정하여 청와대등에 로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수들에게 연구사업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뿌려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기도하지요. 기업들에게 돈을 건네고, 이를 보험삼아 후일 자리를 기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통계수치도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멋대로 부풀리고(이런 예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통계부풀리기와 함께 자금의 불법복제 단속의 광란도 결국 이러한 막대한 돈 낭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한대로 외국기업들의 매출 역시 국내 소프트웨어생산으로

잡고 있으므로, 광란의 불법복제 단속이 국내기업의 매출을 늘리던 외국기업들의 매출을 늘리던 상관없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규모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많은 비난을 무릎쓰고 광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들이 떠드는 국내(이것이 사기지요)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하고, 막대한 돈 낭비를 합리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확실히 인식하고, 단순히 정보통신부의 주구인 SPC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허울만 좋은 정보화촉진기금의 폐지와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인 전과를 소유하게 한 댓가(사업권)는 국민의 공익을 위해(예컨대 국민연금에 편입하거나, 의료보험제정을 확충하거나, 그도저도 아니면 절대빈곤층을 지원하거나)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통신사업권의 댓가를 고갈되어가는 국민연금 등을 메꾸거나 재정확충에 쓰는게 보통입니다. 우리처럼 공무원들밥그릇을 보장해주기위해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우기 정보통신부와 같이 터무니없는 통계조작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더우기 그러한 혈세 낭비를 합리화 하기 위해 많은 국민을범죄자로 몰아 넣은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번호 : 178
 글쓴날 : 2001-04-13 18:16:42
 글쓴이 : 김현석 조회 : 15
 제목: 소리바다여 영원하리.

소리바다가 왜 불법입니까??????? 누구 계정에다 올린것도 아니고 피어투피어방식으로 연결해서 mp3 파일을 교환하는 것인데.... 그리고 학생들은 음반값이 부담 됩니다. 테이프는 늘어진다면 못씁니다. 소리바다 영원하리 소리바다 짱

번호 : 179
 글쓴날 : 2001-04-13 18:30:46
 글쓴이 : 내생각 조회 : 32
 제목: 저작권땀시 그러는감? 음반 안살까바?

자유토론이라 부담가지지 않구 쓰겠습니다. 내용 디게 길구 복잡할꺼같은데..끝까지 읽어드셔두 대여 ^^;; 구냥 제 의견을 올리구싶어서여. 전 소리바다 디게 사랑하고 애용하는 한 학생입니다~ ^^; 요즘한창 문제인 소리바다가 뉴스에도 나오더군여~ 뉴스에서 보니까 '소리바다'글씨 써서 불태우구 그런화면 나오던데... 참나..유치해서리.. mp3 반대운동한다구 가수들이 항의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이름만 가수인(안나가는) 사람들이더라구여~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mp3를 받기위해 소리바다를 마니 애용하는 데여 쉽게 찾을 수있고 정말 희귀한 노래두 많이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노래 있자나여..타이틀 노래가 디게 좋아서 앨범샀다가 나머지 노래가 너무 아니어서 돈 아까웠던적..mp3는 그런거 없자나여~ 그쳐! 가수들이 자신들 음반판매량..어찌구저찌구땀시 그러는것두 있는거같은데..제가 들은건데여 어떤가수가 그랬대여~ 진짠지 가짜지 멀라두..mp3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구 물었더니 왓 "mp3로 들건 음반을 사서 들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노래를 사랑하시고 마니 들어주시면 되는거 아닌가여?" 물론! 가식이었을찌두 멀르져~ (-.-;;내용정리 안담..) 그리고 잘 안나가는 가수들도 자신들의 노래가 많은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럼 좋은거 아닌가요? 돈아까워서 음반안사면 아예 알려지지두 않자나여~ 예쵸...내용이 정리가 안대내여.. 암튼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여러모로 좋은 mp3! 쉽게찾고 판매할수있는 소리바다를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번호 : 180
 글쓴날 : 2001-04-13 22:06:06
 글쓴이 : 민 조회 : 56
 제목: mp3공유에 대해서

얼마전 pd수첩을보니 소리바다에 소송을 걸었다던 음반제작자 측에 이야기도 정확하지 않은 수치로 2000억을 손해를 봤다고 하던데...그리고 음반을 팔고 있는 작은 가게나 대형 레코드 점에서도 하는 이야긴 예나 지금이나 판매 매출은 달라진게 없다고 하더군요. 무슨 근거로 2000억을 손해를 봤다고 하는지 그 이야기가 주먹구구식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

던것 같습니다.

mp3로 들어본 곡들중에서 괜찮다 싶은 것은 돈주고 그 앨범을 구입을 합니다. mp3가 있음으로 해서 음반을 구입하는 소비자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은 예전보다는 넓어 진것같습니다. mp3의 공유내지는 방송(?)이 부당한 방법이라면 방송국에서도 방송하는 곡당 돈을 내고 가수들의 노래들을 공중파에 띄워야 하는게 아닐까요? 채널만 맞추면 누구나 들을수 있게 공중파에 띄우는것과 mp3를 통해서 노래를 듣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인터넷이란게 없었을 시절엔 라디오나 tv란 매체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듯이 지금은 인터넷이란게 있기때문에 라디오라는 매체이외에 음악을 들을수 있는 다른 매체가 생긴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히려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수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mp3가 부당한것이라면 mp3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내고 곡을 다운 받아야 한다는것인데 그럼 mp3플레이어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길거리 리어카에서 파는 1000원짜리 불법 테잎을 사는것이 더 낫을듯싶습니다. 그럼 번거롭게 곡을 다운받고 하는 mp3플레이어의 이용 가치도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mp3의 공유가 안되는 것이라면 일반 방송(라디오나 tv)에서도 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처럼 컴에 필요한 만큼 맞춰서 사야 하듯이 방송을 하는측에서도 돈을 주고 앨범을 구입해야하고 듣는 청취자의 수를 예상해서 그 만큼의 돈을 내야 할겁니다. 음악시디 한장을 산뒤에 다 들으라고 공중파에 띄운다면 이거 역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음악을 방송하는 방송국에서도 위에서 말한대로 돈을 내고 방송하고 소위 길보드 차트라는 길거리에서 파는 싸구려 테잎이 팔리지 않는 날에 mp3를 돈 내고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번호 : 182
 글쓴날 : 2001-04-13 23:32:21
 글쓴이 : 정상운 조회 : 40
 제목: Re: mp3공유에 대해서

:: 와우 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번호 : 181
글쓴날 : 2001-04-13 23:30:27
글쓴이 : 정상운 조회 : 82
제목: 이걸 읽으면..

[MP3] MP3암호화, 플레이어로 음악 못들어도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휴대용 엠피3플레이어들이 '반쪽'이 날 수도 있다. 올 6~7월쯤 음악파일들이 암호화될 것으로 보여, 이후에 나오는 파일들을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음반업체들과 인터넷으로 엠피3파일을 유료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불법복제방지를 위해 DRM 등의 암호화 기법으로 저작권보호장치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를 도입하면 암호를 푸는 장치(디코더) 없이 출시된 엠피3플레이어는 암호화된 파일을 들을 수 없다. 인터넷음악사이트 '렛츠뮤직'을 운영하는 나눔기술 관계자는 "음원을 가진 도레미레코드와 DRM으로 암호화한 엠피3파일을 올 6~7월 이후 출시할 예정"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DRM으로 엠피3파일을 암호화하면 현재까지 출시된 엠피3플레이어로는 들을 수 없다"면서 "대부분 엠피3플레이어는 기관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돼 있어 암호를 풀 수 있는 디코딩칩을 넣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암호방식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음반업체들간에 어떤 암호방식을 쓸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코딩칩을 넣은 엠피3플레이어가 나와도 암호화 방식이 다른 파일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해외수출용으로 미국의 인터트러스트가 개발한 DRM을 지원하는 엠피3플레이어를, 국내용으로는 시큐맥스의 복제방지기법을 지원하는 제품을 생산중이지만, 앞으로 어떤 표준이 정해질지 몰라 곤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파수닷컴과 시큐맥스, 마크애니 등의 10여개 회사에서 저작권보호용 암호장치를 개발중이고, 세계적으로는 20여개가 넘는 방식이 상용화돼 있다. 암호화방식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통일되지 않으면 엠피3플레이어는 반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선 삼성·엘지 등 대기업과 세원텔레콤, 엠피맨닷컴 등 10여개 업체가 엠피3플레이어를 만들어 20만~30만대가 팔렸다. 올해도 20만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휴대용오디오기기협회 이두열 부회장은 "엠피3 시장을 죽이지 않기 위해선 음반사들이 엠피3플레이어 제작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위에있는건 한 전자신문이 기사입니다. 암호화 한 다구요? 그럼 그동안 MP3 플레이어 구입 하신 분들께서 모두 바꿔 드려야 하겠네요.. 그럼.. 삼성, LG, 등.. MP3플레이어 생산 업체들은 손해 많이 보겠네요.. 암호화 통일도 해결 안되었음 더욱 큰일인가? 음악 없이 살죠 다들. 그게 어때여? 있는 사람들만. 음악 들으라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죠 거리에서 들려 주는..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MP3 씨디 플레이어 회사측도.. 고생 좀 더하세요.. 암호화 풀수 있게..암호가 다양하니까. 다 풀수 있도록...하하하 이런 아마 소리바다만이 아니라..음반기기 회사들 바꿔 지겠네요.. 음반 회사도.. 판매에 대한..아이디어.. 많이 내야 할꺼구요.. 다들 수고 하세요.. 이로 인해 피해 보는건 우리 네티즌들만이 아니겠어요.. 우리 서로 함 고생 하자구여.. ㅎㅎ

번호 : 184
글쓴날 : 2001-04-14 00:02:41
글쓴이 : 암호화?? 조회 : 52
제목: Re: 이걸 읽으면..

호호.. 암호화라.. 음반업체에서 파는 엠피파일은 유료화가 걸린다.. 우리가 그걸쓰나???

우리가 음반사서 그걸 암호 없는 엠피파일로 만들면그만이고.. 그걸로 어짜피 공유는 될것이고.. ㅋㅋㅋ 뭐.. 웃기는 발상이네..

번호 : 186
글쓴날 : 2001-04-14 09:39:33

글쓴이 : 객관자 조회 : 51
제목: 흠.. 이걸 치명적일걸요?

곡마다 다 암호를 걸겠다는 전략이라면 심각할 겁니다. 곡마다 다 암호를 풀어야 한다는 뜻인데.. 해커가 좋아하는 최고 히트곡에서는 피탐홀러 몇곡 풀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수천곡의 암호를 푸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치명적이라고 보이네요..

번호 : 187
글쓴날 : 2001-04-14 12:03:22
글쓴이 : mp3 암호화반대 조회 : 43
제목: Re: 흠.. 이걸 치명적일걸요?

그렇죠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 가면 안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술 암호화 문제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태두리 내에서 살펴봅시다. 저작권 기간이 끝난 음악 파일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근 그것의 암호는 풀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를 걸어놓는다는 의미는, 실질적 저작권 기간의 연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근 위법이죠. 아울러, 저작권에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무작위로 암호화 걸어 놓으면 예외조항사항에 들어가는 행위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 사적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당근 위법이죠. 이러한 두 경우만 보더라도 기술보호조치는 저작자의 권리를 현 법태두리 이상으로 보호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번호 : 191
글쓴날 : 2001-04-14 14:02:26
글쓴이 : 수다쟁이 조회 : 40
제목: 오해하셨네요...

암호화된 엠피씨리를 풀겠다는게 아니라... 아예 암호화가 안되어있는 엠피씨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파는 엠피씨리가 암호화 되어있고.. 인터넷에서 돌도도는 엠피씨리는 암호화가 안되어있다면... 암호

화된 엠피씨리들은 쓰레기가 될뿐이죠...

번호 : 192
글쓴날 : 2001-04-14 14:22:35
글쓴이 : mp3암호화반대 조회 : 32
제목: Re: 오해라기 보다는

오해라기 보다는 입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님께서 주장하시는 방법은 일종에 mp3의 자율적 생산을 통해 암호화된 mp3를 무용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아울러 mp3암호화의 위법성을 밝힘으로써, 그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두가지 방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칫 자율적 투쟁에만 의존한다면 권력은 너무나도 쉽게 mp3만드는 것 자체를 범죄시키는 문화의 유포 (즉, 허위 이데올로기 조장)와 mp3의 유통 자체를 막는 강력한 입법 및 법 시행으로 지금과 같은 mp3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 : 183
글쓴날 : 2001-04-13 23:57:05
글쓴이 : 시로이짱 조회 : 66
제목: 소리바다때문에 음반 더 많이 산다...

음악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듣고서 좋은 음악이면 그 음반을 꼭 사는데요.(씨디로 사죠...좋은 거니까) 옛날에 소리바다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 음반 중에 딱 한 곡만 듣고 좋다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음반 중 들은 노래 딱 한 곡이 좋을 경우 음반 사는 거 굉장히 망설였었지요. 제가 갑부집 딸이 아닌 이상 맘에 드는 노래가 한 곡이 있다고 그 씨디를 몽땅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소리바다를 통해서 그 음반의 이 노래 저 노래 들어보고 맘에 드는 노래가 3곡 이상 있으면 그 씨디 삽니다. 친구들도 그 씨디가 없어서 제가 못 들었다면 그저 안사고 말았을 씨디들도요 요즘엔 소리바다로 들어보고 삽니다. 한 곡때문에 음반 사서 다른 노래 맘에 안들면 씨디도 어딘가 구석에 처박히게 되거든요... 음반사가 손해볼 지도 모른다고 저렇게 강력히 나온다면 그간 부족한 그네들의 홍보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나타내어 저도 항의 하겠습니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음반 매출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떨어졌다고 한다면 IMF이후부터 떨어졌겠죠...

번호 : 185
글쓴날 : 2001-04-14 09:25:58
글쓴이 : 뽕쟁이 조회 : 70
제목: 뽕치지마

뽕치지마

번호 : 189
글쓴날 : 2001-04-14 13:14:09
글쓴이 : 진실쟁이 조회 : 57
제목: Re: 뽕치지마.. 정말 뽕일까?

음.. 뽕이라 생각해두 할 수 업지.. 난~ 엠피쓰리 땀에 CD를 구입했으니까? 나같은 사람은 [조수미]노래를 듣지 않는다. 왜냐.. 쪽팔리니까..클래식을 듣는다는 건 왠지 잘난체하는 것 처럼 보이니까.. 그게 나으 문화이니까.. 냉장고 광고에서 나오는 [조수미]노래가 조수미 노래인지 어떻게 알겠나? 나같이 무식한 인간이.. 그런데 말이야 ... 엠피쓰리는 나한테 클래식이란걸 듣게 해주더구만.. 그 클래식 중에서 [조수미]가 부르는 노래는 죽이더구만 조수미라는 인간은 정말 잘부르더라구.. 일반 가수들 보다 더 감정도 있고 머찌고.. 시원하고.. 광고에 나오는 거가 거의다 조수미 곡이더만.. 아 ~~~~~님 조타.. 그래서 씨디를 샀지 뭐~ 나만의 특수한 경우인가?

번호 : 201
글쓴날 : 2001-04-14 20:41:24
글쓴이 : ㅋㅋㅋ 조회 : 42
제목: Re: 뽕치지마

역시..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보다 뒤에 쓴 어떤 님에 따르면.. mp3가 있는데 뭐하러 씨디사냐..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는 mp3를 듣고 간직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어떤 사람이 더

많으며 어떤효과가 더 큰지가 불분명 하므로.. mp3가 음반판매량에 어느정도 영향이 미쳤는가는 헤아리기가 힘이들죠.. 제 생각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 합니다만.. 소리바다가 있기 이전부터 많은 사이트에서 수많은 mp3파일을 다운받을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소리 없다가...(mp3player라는 획기적인 기기도 나왔죠.. _-;) 이제와서 그런대근진.. 조금 이상하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소리바다가 있으므로 해서 mp3파일을 찾는 것이 쉬워졌으므로 영향력이 있기는 했겠지만.. 2000억원이나 하는 그런 것은 좀..

번호 : 188
글쓴날 : 2001-04-14 12:32:43
글쓴이 : 시대유감 조회 : 98
제목: 소리바다 파이팅입니다..
(상업적인 음반기획사들 짜름나)

어떻게 하다가 이런곳을 와보게 되네요.. 참으로 웃기네요.. 소리바다를 고소해왔자 나중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예전에 소리바다같은 프로그램이 없을때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구한게 바로 mp3입니다. 보아하니 소리바다측이 뭐 몇백억인가 몇천억인가 내야한다는데 그게 말이냐 된소리입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냅스터가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일터진것같던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일터트립니까?? 모든면에서 선진문화 받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윗쪽 넘들인것같은데 아주 조그만부분부터 아니 이런면부터 선진국의 참된 문화성을 알고 시작하는게 좋을것같네요. 그리고 음반사들 자기네 이익불려고 아주 눈돌아간 것같은데 정말 대단들하 시네~ 가수같지도 않은 가수들 키우는것도 바로 음반사들 아닌가.. 뭐 노래 잘하는 가수들 키우는곳도 있지만 대다수가 자기네가 복치고 장구쳐서 돈만 벌려는 상업적인 이유 아닌가.. 정말 웃겨 아무튼 소리바다는 언제나 존재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소리바다 화이팅이고 많은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지지해줄 것이오

번호 : 194

글쓴날 : 2001-04-14 17:25:35
글쓴이 : 6527 조회 : 36
제목: Re: 소리바다 파이팅입니다.
(상업적인 음반기획사들 짜름나)

소리바다는 한달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요? 그것을 운영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나?

번호 : 206
글쓴날 : 2001-04-14 22:26:17
글쓴이 : ^^ 조회 : 24
제목: Re: Re: 소리바다 파이팅입니다..
(상업적인 음반기획사들 짜름나)

그럼 소리바다가 처음부터 상업성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구 서버 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번호 : 190
글쓴날 : 2001-04-14 13:50:06
글쓴이 : 수다쟁이 조회 : 39
제목: 저쪽에서 토론하시는 높은분들께.....

소리바다가 도마위에 올랐네요... 뭐... 소리바다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다... 또는 p2p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도 저도 아닌거 같습니다... 전 그래도 벌써 10년 가까이 컴퓨터와 생활하는 그래도 좀 쓴 사람에 속하지요.. 소위 네티즌이라고나 할까요...뭐.. 나이는 어렵지만.. 사설이고...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인터넷을 제제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이네요.. 즉.. 구축을 위한 문제로 보입니다.... 처음 통신이란걸 접할때.. 통신회사의 막강한 힘에 놀려 개인들은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진 못했지요...그러던 것이... 인터넷이란 것이 등장하고 또.. 대중화 되면서... 통신회사의 파워라는건.. 이전 상상하기 힘드네요.. 지금의 상황도 그에 비견되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되면서 제제가 불가능에 가깝게 되자.. (별희안한 비리(?)들이 인터넷 쉽게 퍼졌죠...) 당연히 어떻게든 누군가(?)가

제제하기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당장 제제할려니 여기저기의 비난이 장난이 아니고... 그렇다보니 서서히 돌아갈 수 밖에.... 그러던 중에 P2P... 이게 가능해 지면 실제로 제제라는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되니까.. 그 대표기술이라는 냅스터와 소리바다가 거론 되었고... 지적소유권을 문제로... 아예 사이트 폐쇄(? 맞아? 냅스터..)까지 간거 같습니다만... 지적소유권은... 음반엔 소용이 되고.. 소리바다엔 소용이 안될까요? 제가 보기에.. 음반이야.. 음반일뿐이고.. 사회적 반향이야 있을 수 있지만... 수습이 가능하고... 소리바다 기반기술 P2P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수습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제제한다고 밖에는..... 이렇게 되니까.. 전 핵융합이 생각나네요.. 핵융합이 가능하고... 핵융합의 연쇄작용을 이용하여..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이렇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핵융합이란게.. 거기만 쓰였나요? 아니죠.. 핵발전도 있고... 그 기술은 무한 합니다... 특히 핵융합을 기반으로 수소융합 (핵융합의 몇십배에 이르는 에너지방출하지만.. 수소융합에 필요한 에너지도 막대하므로 핵융합이 꼭 필요...)까지 가능해지면... 아마도... 우주여행이 꿈만을 아닐꺼예요... 하지만.. 핵기술을 제제한 우리나라는 지금 약소국에 머물러 있군요.... P2P기술도.. 아마도 이렇게 될거 같아요...

또... P2P가 미국에선 어찌구.. 이것도 우습네요.. 우리나라가 왜 미국을 따라야하죠? 미국에서 P2P를 제제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게 나왔나요? 아니죠.. 이제 P2P를 제제만 했을뿐이고.. 결과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과를 알려면.. 제제한 곳과 제제하지 않은 곳의 차이가 나와야죠... 미국은 어찌구.. 하면서 현재 얘기만 나오나요...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예로는 아인슈타인도 물리 문제에서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해있다(팽창하지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식을 계산했었음.. 그러나 다른 과학자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 솔직히 사회과학의 선진국 미국보다는 자연과학의 세기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더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 아인슈타인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건 당연한겁니다... 당연 미국을 걸고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런걸 논리학에서 권위주의의 오류라고 하죠?

또..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 특허... 이 문제도

약간은 우습네요.... 지적재산권중에 특허.. 또는 소발명이라 불리는 실용신안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과 시간이 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물론 저도 잘 모르죠.. 대신 관심이 있어서 둘러보니... 최소!... 1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더군요... 시간은 적어도 반년? 그럼.. 이걸 가진자의 지적재산권은 인정하고.. 갖지 못한자의 지적재산권은 없나요? 이런 면에서 볼때.. 특허에 분류되는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에서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특허와 비교하지 마세요.... 같은 지적 재산권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겁니다..

또... 뭐..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소프트웨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군요... 이게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축이던.. 프로그램 팔아먹기예요... 우리나라는 언어의 특성 때문에.. 워드가 별로 세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무지 큼니다... 미국어?.. 사람 많죠.. 하지만.. 아직 486 이면.. 집에 있는 컴준엔 상당히 좋은 거라던데.... 그런 상황에 고급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소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하드웨어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컴을 다루는 사람도 많아요.. 덕분에 불법이 판치긴 하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이번 단속을 하고.. 그 답엔 어쩔거죠? 그 답 계획은 있나요? 뭐 당연히 여태 하던 상황을 보아하니.. 없을게 뻔합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소프트웨어 사는데 보태준다면.. 당연히 불법 없어질거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돕는길 아니예요? 한컴.. 망해갈때.. 815버전.. 그 많은 제품이 품절이었어요... (며.. 정확히 품절인지는 몰겠습니다마는.. 비교적 나중에 구하는 친구가 결국 못구했더군요...) 아시나요? 정부는 제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 비싼 소프트웨어(뭐 전문프로그램이다.. 하면 보통 100만원이 넘어요...)를 어떻게 개인이 구입합니까? 그것도 소프트웨어를 달랑 하나만 쓰는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음반관련 문제... 이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mp3가 저작권침해라거 부터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줄줄이 잘못되는군요... 아마도 기술이란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낸 결정인거 같아요... 사실..웨이브라고하는...

음악씨드에 들어있는 상태가 압축이 전혀 안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는분? 어머.. 손든분 계시네... --;; 공부 좀 하세요.... 하긴 텔레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필요없이 쓸줄 만 알면되는것과 마찬가지로요... 죄송합니다...하여튼..우리가 사용하는 컴은 무척이나 많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압축이라는 기술이죠... 사실 소리를 그냥 그대로 저장했을 경우는 양이 무척이나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질이 똑같은 경우 양이 많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웨이브입니다... 그냥 저장한다면.. 1111111110000111111111라고 저장할것을 190419처럼 저장한거죠..(1이 9개 0이 4개 1이 9개) 데이터가 변할때만을 저장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일종의 압축이구요... 이것은 데이터의 손실이 없어요.. 알집이라던가.. 원집.. 이런것이 손실없는 압축이죠... 이 방식이 적용된 것이 웨이브예요...이런 방식은 압축율이 좀 떨어지죠..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웨이브파일로 알집으로 압축해 보세요.. 생각보다 별로 안줄을 줄요?

또 다른 방식의 압축이 있는데... 필요한 만큼만 압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것처럼... 영화 필름은 1초에 24장 이상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지각능력에 필요 한 만큼만 담은것이예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이 있는데도 말이죠... 약간의 손실을 무시하는 손실 압축이예요... MP3도 그런 손실 압축을 해요.. 때문에 약간은 손실이있게 마련이죠.. 대신 1/10에 가까운 압축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단지 MP3의 손실이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는데... 별로 차이를 못느낀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씨디 음질과!! 입니다.. 실제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서태지씨예요... 역시 신세대들의 오빠 답더라고요... 이번 라이브앨범에 음질을 위해 42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만큼 씨디의 음질은 엄청날겁니다... 엠피로는 따라갈수 없죠... (뭐.. 광고를 하긴했지만.. 제가 서태지씨를 좋아하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가진 CD플레이어들이 그 음질을 살려내느냐가 문제인데... 그럼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차라리 MP3에 저작권을 문제삼기보다는 CD의 음질을 높여 MP3와의 차이를 벌리고.. 이에 맞는 CD를 재생할 수 있는 CD플레이어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미디어 기술도 발전할것이고..

전자제품기술도 발전할 것이고.. 소리바다등과 저작권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이러면 너나 할것없이 좋은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어 가는거 같습니다... 그것 말고..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찌냐? 라고 묻고 계신다면... 그 중에 프로그램들은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정부가 할일이 고속도로 만드는 일만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하지만 개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을 하는것.. 그게 국가고 정부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제품을 사는 것만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살리기 힘들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비싸고.. 쓰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캐드.. 캠.. 비주얼툴들.. 블랜드툴들.. 이런거 없으면 안되지만.. 많이 팔릴수 없는 제품들이죠... 국가는 이런걸 지원해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쓰지말아라 쓰지말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줄테니 정품씨라.... 이게 훨 보기 좋을거 같은데... 들어가는 돈도 비슷비슷할꺼 같지 않아요?

다른 문제들도 생기겠지만.. 현재 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나라가 썩을수록 법이 많아진다자나요... 뭐... 이런 그냥 사견이고.. 생각나는대로 쓰는것이니.. 두서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씩은 생각해볼 문제꺼 같아요... 두서없이 써서.. 좀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는.. 인터넷을 구축하려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구요.. 다른하나는.. 미국이 어찌구.. 이런 얘기 좀 하지마세요... 또하나는.. 특허등과 디지털 문화는 달라요.. 지적재산권은 똑같이 필요하지만 다르다는정도 알아주셨으면해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이 못쓰게 하는것은 아니라는거예요.. 사건이지만.. 그러기 위해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보급했으면 하구요.. --;; MP3는 사실 지적재산권침해라고 볼수 없는 기술이예요... 손실 압축이기 때문이죠.. MP3유통을 문제삼아 소리바다를 탄압하는게 안타깝네요.. MP3를 문제로 하기보다는 음반의 질을 높여 MP3와의 차이를 두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의 해결법인 거 같아요.. 소리바다의 기술은 전망이 밝은 것이고 이를 격려해주셔야죠... 소리바다의 기술은 기술이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인듯 싶은데요...

번호 : 193
글쓴날 : 2001-04-14 17:20:39
글쓴이 : Mr.d 조회 : 91
제목: 저작권,지적재산권과 소리바다.

레코드 가게에 있는 음반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제작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우선 기획사에서(또는 가수)전체적인 앨범의 구성을 잡은뒤에 작곡가와 작사가를 선정해서 곡을 받습니다. 작곡가는 노래를 부를 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음악을 만들고 작사가는 음악의 기본 흐름과 분위기를 가지고 작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앨범의 기본 구성을 염두해 두겠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프로듀스된 노래를 녹음실에서 오랜시간 끝에 가수가 녹음을 하고 믹싱 작업을 거쳐서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립싱크를 하든 작곡가가 표절을 하든 다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는건 크게 변함이 없습니

다. 이렇게 시중에 나온 앨범은 레코드 가게에서 판매가 되고, 대중들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앨범을 사게 됩니다.이렇게 앨범을 구입한 돈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들과 가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은 다음 앨범을 준비하게 됩니다.

소리바다에서 문제가 되는 저작권,지적재산권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수들의 수입원은 기본적으로 앨범이 됩니다. 앨범이 팔리는 것에 따라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 수입을 얻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콘서트를 통해서 가수는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와 좀더 좋은 음악을 직접 들려주어 자신의 음악성을 다지게 되며, 팬들 역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아날로그 음악 매체에서 디지털 음악 매체가 개발되면서 좀더 좋은 음질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개발된 콤팩트 디스크(CD)에는 웨이브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 음악을 보존하게 됩니다. 얼마뒤 MP라는 포맷의 파일이 개발됩니다.

기존의 웨이브방식은 너무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지만 MP는 음질을 조금 떨어뜨리는 대신 용량을 최소화 해서 점차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MP는 새로운 형식의 음반 매체로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음질 저하를 이유로 음반업계에서는 MP를 외면했습니다. 사실 MP형식으로 최대한의 음질을 만든다면 기존의 웨이브 형식과 크게 용량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 CD보다 음질이 떨어지고 전용플레이어가 개발이 되지 않아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MP파일을 각광받게 만든 건 새로운 포맷인 MP3파일과 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윈앰프(WINAMP)프로그램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기존의 CD를 MP3파일로 변환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CD를 MP3로 변환 시켜 올리게 되면서 MP3는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기존에 CD를 구입한 사람들이 만 들던 MP3파일을 CD(앨범)을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서 굳이 앨범을 구입하지 않고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때마침 터져버린 IMF로 음반시장이 위축되면서 MP3파일은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과정을 거친 앨범을 정당한 방식으로 구입하지 않고 MP3파일로 그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기존에 앨범을 만들던 기획사와 작곡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타격이었습니다. 이들의 반발에 MP3옹호자들은 인터넷은 공유정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유되어야 하며, MP3로 들은 음악이 마음에 들면 앨범으로 사람들이 구입한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앨범의 판매량은 늘지 않았으며, 몇몇 100만장의 앨범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앨범들은 10만장도 채 못 팔리면서 급기야 앨범제작자들은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곡가는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로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직업이고 그의 노래는 그의 생계수단이자 그의 재산이 됩니다. MP3옹호자들은 인터넷이라는 상황을 들면서 공유를 주장했고, 공유는 당연히 무료가 되어 작곡가에게는 아무런 수입 없이 그의 작품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작곡가 스스로가 판매하기 위해 작곡한 것이 판매가 되지 않고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앨범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불만 사항이며, 전세

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하면 안된다. 지적재산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라는 인식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MP3옹호자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해서 듣는 건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오랜 세월동안 음반 업계와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새로 나온 가수의 노래를 홍보해줌으로서 레코드의 광고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해서 듣는 건 처벌규정이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녹음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게다가 인터넷과 컴퓨터로만 들던 MP3를 전용플레이어가 개발됨에 따라 아무곳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반업계에서는 MP3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판매율은 아주 저조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소리바다는 MP3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들 스스로가 MP3파일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소리바다에서 말하는 "우리는 음반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피해를 준 건 불법으로 만든 MP3파일을 교환한 사람들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소리바다의 일이 터진 후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공유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이 나왔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이미 일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검찰도 회원들을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상황에서 좀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소강된 상황입니다. 소리바다를 제소한 것도 저작권 협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이 소강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작곡가입니다. 작곡 이외의 일은 잘 할 줄 모릅니다. 작곡을 해서 수입을 얻어 다음 노래를 작곡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음반이 많이 팔려야 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밤새도록 노력하고 고민해서 간신히 만들어낸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퍼뜨려서 음반 판매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이 힘들여서 만든 것을

공유란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 좋은 일일까요? 지적 재산권이 아닐까요? 공짜에다 음질도 들을만한 MP3를 놔두고 레코드 가게에서 앨범을 사는 사람들은 바보에 지나지 않을까요?

지적재산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MP3교환 사이트인 냅스터에서도 음반업계의 지적재산권을 위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냅스터와 큰 차이가 없는 소리바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소리바다라는 사이트와 서버로 이익을 얻는 운영자는 어떤 이유로 이익을 얻게 될까요? 어떤 이익이 있냐구요? 소리바다 접속할 때 뜨는 배너광고는 무료로 띄워주는 걸까요? MP3옹호자들의 말대로 파일을 듣고 앨범을 살만한 사람들과, 그런걸 받아 들일 수 있는 시장체제가 한국 음반업계에 있을까요?

번호 : 197
글쓴날 : 2001-04-14 17:54:57
글쓴이 : 윤익수 조회 : 56
제목: Re: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소리바다.

한번 작곡해서 수익원을 버는 것은 팬창고, 못버는 것은 사용자 책임인가? 그동안 음반사들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갈취해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소리바다 때문에 작곡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이다. 문제는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단지 상품성이 아닌, 진정한 문화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번호 : 202
글쓴날 : 2001-04-14 20:48:04
글쓴이 : ㅋㅋㅋ 조회 : 51
제목: Re: Re: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소리바다.

너무 비약적으로 물고 가시는군요... 물론 지적 재산권.. 보호받아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 꼭 물질적으로만 받아야 할까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충분히 인정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mp3로 인하여 음반판매량이 줄었다는 그런 근거 없는 말은 자체해주셨음 좋았을 것이고.. 꼭 mp3말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반을 귀로 듣습니다. 방송으로..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물론 mp3를 이용해서구요.. 그렇게 해서 듣고 사는 것이 음반이구요.. mp3를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걸 듣고 음반은 사는 사람들이 과연 바보일까요?? 조금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좋겠군요.

번호 : 195
글쓴날 : 2001-04-14 17:28:46
글쓴이 : ㅋㅋㅋ 조회 : 47
제목: 난 엠피만 듣는걸?

ㅋㅋㅋ 난 소리바다가 좋다. 지적재산권이고 모고 난 상관 없다. 작곡가가 밥 못먹으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거나 음반을 사는 인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안그러면 테레비같은데 나오거나.. 난 소리바다에서 음악을 구해서 듣는다. 그리고 앨범은 단 한장도 안 산다. 소리바다 시작하고 나서 테이프 한장 산적이 없다. 친구들한테도 돈 아깝게 씨디 가튼거 사지 말고 이거 이용하라고 한다. 컴터 없는 친구들한테는 엠피를 공테이에 녹음해서 가져다가 준다. 나 같은 사람 천지 일텐데 누가 엠피 들으면서 씨디 사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엠피 씨디 보다 음질 열나 나쁘다... 엠피 만드는 분들 앞으로는 좀더 조은 음질로 뽑아줘라.

번호 : 199
글쓴날 : 2001-04-14 20:33:56
글쓴이 : zzz 조회 : 43
제목: zzz

뭘.. 당신같은 몇몇 물지각한 사람 때문에 이런 소송이 생긴거지.. 생각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하긴 나도 두려워서 익명을 못 올린건 하지만.. 어느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 모든 이를 자기처럼 물지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식은땀만 이.. 쩌..

번호 : 196

글쓴날 : 2001-04-14 17:32:19

글쓴이 : 인터넷은 공유라구?바보냐? 조회 : 128

제목: ㅋㅋㅋ 인터넷은 공유 아니다. 속지 말라.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다. 그리고 공유도 아니다. 그저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을 올리는 곳이다. 코카콜라가 자가네 사이트에 콜라 제조법 올리는데 봤나? 교육부가 수능 문제 올리는거 봤나? 정말 중요한건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 그걸 염두하고 인터넷을 해보라. 그럼 인터넷의 단점을 확실히 깨닫게 될것이다.

번호 : 200

글쓴날 : 2001-04-14 20:35:33

글쓴이 : ㅋㅋㅋ 조회 : 102

제목: Re: ㅋㅋㅋ 인터넷은 공유아니다. 속지말라.

개인에 따라서는 남께서 생각하는 쓰잘데기 없는 정보도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남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번호 : 210

글쓴날 : 2001-04-15 12:07:55

글쓴이 : 지나가던이... 조회 : 72

제목: Re: ㅋㅋㅋ 인터넷은 공유아니다. 속지말라.

쓰잘데기 없는지 있는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건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럼 다른 곳에서는 수능 문제나 제조법등을 이야기 하던가요? 수능 문제나 그런것들은 자신이 다른 여러가지 정보를 보고 배우고 활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쓸모있는 것을 잘 골라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번호 : 198

글쓴날 : 2001-04-14 20:33:43

글쓴이 : 소리바다하이팅!!!!11 조회 : 32

제목: 소리바다 양정환님 힘내세여!!!!!!!!!!!!!!

전여 소리바다를 이용해서 mp3 많이 받았답니다... 무료로여..... 참 감사하고여 진짜!!!! 음반에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mp3가 어째서 법에 걸리는지 참 궁금합니다. 애타운 운영자님 힘내시고여 토론에서 꼭 이기세여!!!!

번호 : 203

글쓴날 : 2001-04-14 21:08:56

글쓴이 : HipHopMation 조회 : 44

제목: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의 알팍한 수에 넘어가지 말자.

알팍하다 너무나 알팍하다. 어찌 그리 알팍할 수 있는가. 소리바다 처음 이용자 조금이고 MP3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 저것들이 이렇게 나왔었나?? 만약에 MP3가 나오지 안왔더라면 저것들이 이렇게 나올것인가?? 아니란 말이다. 양정환씨는 돈남아 들고 시간남아 돌아서 이거 소리바다 운영하는 줄로 착각하는것인가?? 아니잔아?? MP3 활성화 되고 당신들 수익 "조금"주니까 그거 아쉬워서 소송걸고 "소리바다 저거 해적질이다"라고 하면서 밀고 온거 아냐?? 안그래?? 아주 보면 볼수록 황당스하다. 당신들이 손해를 봤으면 얼마나 손해봤다고 그러는 거지??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MP3플레이어 제작하는 회사와 MP3 산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보는지는 생각해봐나??

솔직히 MP3쓰는 사람보다 CD플레이어나 카세트 쓰는 사람이 훨씬 많지. 당신들은 당신들 생각뿐이 못하는건가?? 썩은 녀석들. 당신들은 이렇겠지. 앞에 선 위압있는 모습으로 내려보고 뒤에서는 추디추한 짓을 하고다니는.. 당신의 그런 추한모습을 당신 아들이 보고 그걸 당신 아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을 생각해주길 바래. 당신들의 아들이 만약에 이런 정보 공유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단말야? 안그래?? 근데 다른사람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먼데?? 말해줘봐. 당신들은 결국 자기들의 욕심만이 차릴 줄 아는 돼지새끼들 밖에 안돼. 꼭 이렇게 까지 사람 애먹여야만 속이 풀리나? 돼지 녀석들..다시한번 뒤를 봐봐. 당신을 쳐다보면서 자라는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면서 당신을 욕하는 많은 이들을.. 피부로 느끼고 다시한번 생각해보길..당신의 추했던..그리고 추한 당신의 길을..

느껴지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썩었어. 돌릴수 없이.. Rapper HipHopMation(히마) P.S 힙합을 해봐라..당신의 썩은 모습을 돌릴수 있을것이다.. 우리 랩 퍼들의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2가지 갈래의 말.. Hip-Hop & Fuck ...

번호 : 204

글쓴날 : 2001-04-14 22:05:56

글쓴이 : ... 조회 : 16

제목: 소리바다 화이팅~!!!!!!!!!!!!!!

소리바다는 영원해야 한다.....

번호 : 205

글쓴날 : 2001-04-14 22:14:32

글쓴이 : solopro 조회 : 49

제목: 이해하기 난해한 글들..

저기 --- 옆에 .. 게시판 가보니까 토론보기 게시판인가? 그 게시판에는 전부 이해하기 난해한글들 (즉 .. 이해할수 없는 어려운 말들..) 이 주로 이더군요.. 양정환님의 글은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었지만 사회자님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의 글들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 저같은 .. 사람에게는 --- 무슨 글인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 .. 그리구 저두 한때 프로그램을 했다면 했다는 ---; 사람인데.. 저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비대는지는 아시는지.. 모르겠군요.. ^^ ..

그리구.. 음악에 대해서두.. --- 말씀드릴 게 있는데.. 베토벤이나 모짜르트.. 같은 .. 그런 위대한 작곡가들의 노래들은..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군요.. 그런곡들은 CD 로 나오자나여..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 ? 그리구.. 유재하님같은 분들의 음반이 팔린후에..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군요..? 허.. 내가 써놓구두 무슨 말인지 모르겠따 ---; 아무튼.. 여러분들은 전부 프로그램같은거 사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저부터도 윈도우 같은거.. .. 비싸자나여.. 그걸 어떻게 개개인 한명씩 전부 살 수가 있는지.. 쟈.. 아따 모르게땅.. --- 빠시에여..

번호 : 207

글쓴날 : 2001-04-14 22:43:13

글쓴이 : qqu67 조회 : 28

제목: 소리바다 영원하라...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나누어 들으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유료가 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겠지만... 자주 그러지 못한다면.. 굉장히 서운할것 같군요.. 이 일이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 222

글쓴날 : 2001-04-17 17:25:02

글쓴이 : 김승욱 조회 : 26

제목: 하지만.....

아무리 음악을 나누어 들을 수 있어도. 음악을 공짜로 쓰는 것이 아닌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음악 파일 하나만 있으면 워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텐데.. 그럼 음악사들은 무엇을 할까. 소리 바다가 좋긴 하지만, 잘못 된 점도 많다고 본다.

번호 : 208

글쓴날 : 2001-04-14 22:54:56

글쓴이 : 수다쟁이 조회 : 55

제목: 가수들을 장사꾼이 아니예요..협회가 문제지.

아래의 Mr.d 님이 쓰신글.. 팬찮네요.... 하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음반만드는데.. 무척이나 많은 노력이 들죠...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아무런 노력없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나요?

쉽게 말하면 이건 가능해요.. 누군가에게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 내가 노래하고.. 녹음기로 녹음해서... 선물하면 되죠.... 작사.. 작곡.. 혼자서 뛰어난 것이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흥내는 낼수 있어요.. 하

지만 프로그램은 어떤지 아시나요? 이진 기계와의 대화예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하죠.. 적당히 하면 적당한 값이 나오는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나와요..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진다고 그런 문제를 무시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테이프가 안 좋아서 잡소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안들리지는 않자나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안그래요.. 그거하나면.. 끝장이죠.. 가수 많이 노력하니까.. 소리바다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설마.. 가수가 훨씬 많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소리바다는 거기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예요.. 앞으로 국가.. 전세계가 주목할 기술이라고요.. 이 기술로 전세계 사람들이 득을 볼수도 있는 거라고요.. 몇몇(?) 가수 때문에 전세계가 손해보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다수결에 따라라.. 이런 말씀도 말아 주셨음해요...

물론 지적 재산권은 인정해야죠.. 대신 소리바다의 지적재산권도 인정해 주셔야하죠.. 누구의 재산권은 인정하면서 누구의 재산권은 어째서 깡그리 밟으려고 하죠?

또.. 앨범을 팔아서.. 가수가 노래한다.. 사실 그런 아니라고 봐요... 앨범팔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가수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예술가들이 돈 때문에 예술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가수들을 사랑하시는 거 같은데.. 가수를 잘 모르시네요... 물론 앨범이 잘 팔리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처음엔 앨범이 잘 팔리는 경우는 극히 드문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가수들 무지 많아요.. 하지만 그들중 알려진 가수 얼마안 되구요.. 솔직히 조피디씨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오피로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방송출연 한번도 못했지만.. 다들 알잖아요? 조피디씨 말고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 그사람들 다 굶어 죽었게요? 태진아님이나.. 송대관님등등.. 트로트 가수분들 솔직히 신세대들 만큼 음반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굶어죽나요? 그리고... 오피로 노래를 듣고.. 꼭 앨범사야하나요? 아니죠.. 솔직히 노래한곡 좋아서 앨범사서 후회하는 경우 많아요.. 들어보고.. 아.. 이거 꼭 갖고 싶다.. 하면 사는 거죠... 예전처럼 들어보지도 못한 곡두 그냥 사라!!!! 이거 옛날 얘기라고요... 소비자도 권리가 있어요.. 고를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런 권리 행사할 권리가 얼마나 있었죠? 그런 음악들 들어볼수 있는 경우 얼마나 되죠?

그나마 오피있으니까..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음반협회는 자기것이 아니었던 권리를 빼앗기니까... 그래서 소리바다에 소송을 건거 처럼 보여요.. 아주 꼴불견이죠... "공짜에 음질도 들을 만한.. 오피쓰리..."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요.. 오피쓰리는.. 실제의 음질과는 차이가 많아요.. 단지 공짜에 비해서! 음질이 괜찮은 거라고요... 그래서 공짜가 아닌 오피쓰리가 안팔리는 거구요... 그런 음질의 차이가 조금더 커지면 음반이 팔리겠죠...

어째서 목적지에 가지는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뛰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발길질이죠? 이진 선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지적 재산권... 정작 지적 재산권이랑 함은.. 표절이 문제겠죠... 앨범이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해도.. 유명한 가수들 음반은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바다가 잘 되었던 것은 많은 곡이 있었다는 것이지... 어떤 곡이 있어서가 아니라구요... 혹시라도 오피를 못듣는다고 해서 평소에 들던 오피들이 담긴 씨디를 다! 살꺼라고 착각하시나요? 아니죠.. 살 사람은 이미 산거라고요... 밑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어찌고.. 이 얘기는 하지말자구요.. 그 근거는 밑에서 설명했어요... 하여튼.. 어째서 소리바다의 장점을 더 좋은 장점으로 이길 생각을 하지않고... 소리바다를 깃밟을 생각만하는지.....

번호 : 209
글쓴날 : 2001-04-15 01:58:41
글쓴이 : 이진 어떨까? 조회 : 89
제목: 소리바다를 표절하자!

소리바다를 완전히 똑같이 배기는 거다. 모두 무료고 이름은 파란 바다 정도로 해서 소리바다처럼 채팅방도 만들고 회원도 모집해서 교환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소리바다를 꺾기 위해서 매일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치자. 그래서 소리바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고, 소리바다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치자. 그럼 소리바다 운영자는 파란바다를 어떻게 생각할까?

번호 : 212
글쓴날 : 2001-04-15 19:44:17
글쓴이 : 이모씨 조회 : 95

제목: Re: 소리바다를 표절하자!

음... 물론 자존심은 상하겠죠.. 하지만 요즘같은 상황에선... 같은 배를 탄 동반자라고 해야 하나? 그렇자나요... 의약분업법에 의사들이 모두 파업한것 같은거... 혼자하면 도둑질이고 여러명이서 하면 착한것이다... 이런거... 혼자보다 두명이서 싸우니깐... 좋져... 그리고 이런서비스가 늘어나니깐... 네티즌에게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늘어나는거고... 이렇게 마니 생기면 좋겠네여...

번호 : 213
글쓴날 : 2001-04-15 20:52:02
글쓴이 : 누가 머래?? 조회 : 34
제목: 소리바다가 살아남는 방법!

저작권협회에서 머라구하면... 음성적으로 게임이 공유되듯이 mp3도 소리바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음성적으로 공유되게되어있지않아여?? 만약 소리바다가 폐쇄된다면 그 유저들은 어떻게될까여?? 그들은 또다른 소리바다를 찾아서.....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지않을까여?? 그러니까 소리바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소리바다에서만 mp3를 이용하게 하고.. 소리바다 배너 요금으로...(접속자 수만큼 돈을 적립해주는... 돈으로 조금만 받고 인정해주는거여여 이른바 상부상조.. 그리고 소리바다는 다른 mp3공유 사이트를 폐쇄시키는데 협조하는거죠 그러면 소리바다도 이용자가 늘어날꺼여여 그러면 저작권 협회에다가 줄수있는 돈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둘다 좋지 않겠어여?? 제생각은 이래여! ^^ 화이팅 소리바당!

번호 : 214
글쓴날 : 2001-04-15 20:53:00
글쓴이 : 어찌라구 어?! 조회 : 80
제목: [필독!!]소리바다 문제 필독 해여

저작권협회에서 머라구하면... 음성적으로 게임이 공유되듯이 mp3도 소리바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음성적으로 공유되게되어있지않아여?? 만약 소리바다가 폐쇄된다면 그 유저들은 어떻게될까여??

그들은 또다른 소리바다를 찾아서.....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지않을까여?? 그러니까 소리바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소리바다에서만 mp3를 이용하게 하고.. 소리바다 배너 요금으로...(접속자 수만큼 돈을 적립해주는... 돈으로 조금만 받고 인정해주는거여여 이른바 상부상조.. 그리고 소리바다는 다른 mp3공유 사이트를 폐쇄시키는데 협조하는거죠 그러면 소리바다도 이용자가 늘어날꺼여여 그러면 저작권 협회에다가 줄수있는 돈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둘다 좋지 않겠어여?? 제생각은 이래여! ^^ 화이팅 소리바당!

번호 : 228
글쓴날 : 2001-04-18 02:36:30
글쓴이 : 우야 조회 : 34
제목: 전혀 말두 안되는 소리인듯...

전혀 그렇지 않을듯... 배너로 돈버는 Market은 어디까지나 극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라 배너 보고 있어도, 하루에 한 유저당 100원받기도 힘들겁니다. 그 돈가지고는 음반회사가 요구하는 돈의 발가락의 때도 못배끼죠..그리구 망해가는 소매점과 도매회사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역시 문제가 될듯... 그리고 이 문제는 P2P의 인정 문제이지 결코, 소리바다만 가지고 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리바다의 MP3는 인정하고, 다른 사이트는 배제하는것은 말두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P2P를 배제하자면, 메신저 서비스및 모두다 폐쇄해야하니까요 (지니로 게임이나 유틸, MP3등을 받아보신분들은 윈소리인지 압니다). 근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 AOL, ICQ등등이 망할지...

번호 : 215
글쓴날 : 2001-04-15 21:41:15
글쓴이 : 슈퍼초콜트라소리바다매니아 조회 : 25
제목: 소리바다는 영원해야 한다!!!

수입이 많이 줄었다들었다고는 하지만 골수팬이 워낙 많아 별 만큼 번다.....그리고 소리바다가 없으면 돈 없는 서민들은 노래도 못 듣는다...돈이 좀 있다고 해도 노래를 들으려면 그 가수 테이프를 아예사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간다... 한국음악협회인지 뭔지... 쪼잔하다...

번호 : 216

글쓴날 : 2001-04-15 22:57:19

글쓴이 : Mfi.org 조회 : 46

제목: 개인의 의견일지는 몰라도.... --

아마.. 파일 형식을 WMA로 바꾸면.. 살아날 수 있을지도 -_- 하긴....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 자체가 죽을수도 있죠..... 한번 해볼만한 시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WMA에는 MP3와는 달리, 불법복제 방지와 태그 수정 방지기능이 있죠.... -_-

번호 : 217

글쓴날 : 2001-04-16 00:00:13

글쓴이 : 하수 조회 : 55

제목: 간만에 지나가다가

언제부터 이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이 어린애들 놀이터로 변했나요? 정말 남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질 않는군요... 조금도... 공짜만이 인터넷에서의 유일한 가치척도가 되었군요... 하긴, 우리나라 인터넷 교육이 그렇지요, 뭐. 오늘 우연히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설명한 책을 봤는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홈페이지 이쁘게 만들려면 맛있게 글자만 써서는 안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진이나 그림은 어디에서 또 가져오면 되고, 뭐, 순 이런 식이더군요...

왜 홈페이지란 걸 만들어야 하는지, 그 홈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오직,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더군요. 이걸 애초 비싼 컴퓨터를 팔아먹기 위해서, 컴퓨터 제조회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 결코 이거 비싼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이랑 똑같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음반회사 사장이라면, 자기 형이 댄스가수라면 자기 친구가 소리바다를 운영한다면, 과연 어떤 글들을 올릴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번호 : 227

글쓴날 : 2001-04-18 02:30:10

글쓴이 : 우야 조회 : 38

제목: Re: 간만에 지나가다가

뭐 이런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과연 음반회사들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던가요? 솔직히 나오는 앨범들중 99%는 쓰레기들입니다. 펑클 3.5집 들어보셨어요? 남의 노래 불르고, 돈 10000원정도 받겠지요. 차라리 노래좀 잘하는 애들 데리고 가서 노래방에서 녹음한거랑 다른점이 무엇인지? 어디서 되지도 않는 비트 여기 저기 넣어놓고 앨범이라고 하는지. 한국앨범의 99%는 단순히 돈벌고 "뜨는"데 목적이 있지 결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놓는 앨범이 아닙니다. 제길. 음악가로서 어떻게 자기가 만든 음악에 만족할수 있죠(단 4-5개월만에)? 뭐... 상업적 목적의 앨범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저는 듣기 좋은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 생각하므로). 하지만 한국 음반은 그거 마저 제대로 못하더군요... 뭐 한 부류의 Audience보다는 여기저기 다절러대니까요(조성모가 춤추는것은 코메디지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최소 앨범 하나당 1-2년 걸립니다. 대부분 3-4년이지요. 자기 음반의 완벽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앨범은 음악을 듣는 저희에게 소장가치가 있는 앨범입니다.

모두 공짜로 다운받아서 공짜 밝히려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시던데, 그러면 남은 인터넷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진요? 혹 가끔 신문이나 잡지들도 읽으시는지요(예로 말입니다). 그거 돈주고 보시지, 왜 인터넷에서 보시나요? 뭐... 홈페이지책에 관한건은 저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아니라 (참고로...저는 한번도 소리바다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음반회사가 아닐까요? 단순히 팔아먹기 위해서 스타를 만들고, 스타라는 빌미로 앨범이나 내놓고, 잘 안팔리니까, 소리바다 잡아서 법정에서 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참고로, 그런 쓰레기 만드는 음반회사의 사장이 우리 아버지라면, 짝소리 못하겠지요 (저희 아버지 무서워요...) 우리 형이라면 두들겨 팼을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만든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10000원주고 사겠냐고. 제가 소리바다 운영자라면,

이런데서 답변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ㅎㅎ 구럼... 한국말이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학교다니본 적이 없어서...

번호 : 218

글쓴날 : 2001-04-16 00:06:21

글쓴이 : jin 조회 : 40

제목: 진정한 살아남기.....

솔직히 이말씀을 드립니다.....우선은 소리바다의 노래의 공유는 상업성을 띄는 음반제작자들에게는 손해이지만 갈수록 비싸지는 우리의 음반시장과, 대부분의 가수들의 경우는 예전처럼 음반의 대부분의 노래가 다 좋은 것이 절대아닙니다.(물론 일반의 경우) 그렇기에 우리소비자들의 경우에는 한두곡 좋아 하는 노래를 위해서..그 비싼 음반을 산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지금현재 소송이 걸려있지만 결과는 물보든 뻔한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현재 미국의 경우도 냅스터에게 그런 판결을 내린 이시점에서 미국의 주 지방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소리바다의 운영자님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합니다..양심이 허락하는 범위의 유료화입니다..물론 음반계에서나 여러 압력단체에서 많은 로비나..협상의 슬로건을 내보였을줄 압니다..하지만..님이. 이사이트를 처음 만들때의 신념으로...양심에겐 유료화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인정하고..충분히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쪼록수고하십시오..

번호 : 219

글쓴날 : 2001-04-17 10:23:47

글쓴이 : 소리바다 조회 : 86

제목: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소리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커진 것은 역시 지적 재산권 문제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정말 애매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여점에서 책을 빌리는 행위 자체도 엄밀히 보면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아닐까요? 또한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도 지적 재산권 침해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의 경우 직접 찍은 사진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일반 방송이나 잡지 사진의 경우에도 분명 지적 재산권에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출처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mp3 파일을 교환하는 것이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는 거라면 대여점에서 책을 빌리는 행위도 분명 처벌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리바다 초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 와서, 수많은 회원들이 생긴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이미 mp3 파일 이용에 익숙해지자 이제와서 지적 재산권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기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이 결국 소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면 팬층은 것이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침해라고 정의 내리는 겁니까? 또한 지적 재산권이 문제된다면 mp3 플레이어를 경품으로 주거나 하는 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무명 가수나 단순히 자신의 음악을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mp3 파일은 분명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일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mp3 파일로 음악을 제공하던 가수가 이제는 성공해서 mp3 파일을 지적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상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더구나 테잎이나 시디를 불법 복제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두 아니고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한 개인의 재산권 사용에 대한 타인의 강제적인 간섭이나 억압이 아닐까요? 지적 재산권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재산권 사용도 중요합니다. 절대 장사꾼의 알뜰한 상술에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호 : 220

글쓴날 : 2001-04-17 12:02:31

글쓴이 : 이재형 조회 : 71

제목: 온라인토론을 보고...

온라인 토론회의 토론 내용을 쪽 읽어보니 대부분 파일공유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것 같군요. 반론은 적어도 힘이 실려있지 않은 느낌입니다. 아마 디지털시대에 살면서 인터넷을 중요한 생활과 작업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토론자들로서는 당연한 결론이겠지요. 정보전문가들의 견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디다만, 법집행기관 및 행정당국의 시야는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더우기 mp3공유 사용자가 십대나 이십대 초반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사법부나 정부당국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번호 : 221
글쓴날 : 2001-04-17 15:24:05
글쓴이 : 김숙희 조회 : 78
제목: 온라인토론을 보고

이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어느 한쪽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야기를 읽다보니 다소 문제점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전송권을 2000.1.12일에 신설하셨다면 과연 이법이 올바르게 산정이 되어 국회를 통과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무수한 법들과 같이 몰려서 그냥 그렇게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며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와 같이 통과되지 않았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체표현이 다소 어색한점을 인정합니다.

둘째, 어찌거나 악법도 법이라고 그리스 철인이 율였듯이 재정된 법은 지켜야합니다. 이에 동감하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이 과연 소리바다를 제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인정된 단체라면 이역시 법대로 따라야만 하지만, 저를 비롯해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이하 한음회) 음반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유 및 행사를 위임한 적이 없는 데 말입니다. 한음회 태동자체를 부정하고 싶으나 이는 논제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셋째, 금연구역에 있어 흡연자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흡연자들도 그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흡연이 몸에 해로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나라는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고 이를 큰 수입으로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논리를 이상화에 대입하면, 공중파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하나의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져야하며, 소음피해사례연구및 보상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힘과 권력에 부합하여 자신의 단체에 이익만 추구하는 소인이 아닌 진정으로 공익적인 일을 도모하는 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부연설명하자면, 지금의 종교단체들도 많은 비리를 저질룹니다. 여의도 xxx교회, xx진리교등 그러나 이러한 종교단체가 그래도 명백을 이어나가는 데는 그 나름대로 선행과 사회봉사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음회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돌아볼 때, 과연 청각장애자들에게 보청기1개 라도 사준 적이 있는지와, 음악을 점자화 보급에 힘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미국에 냅스터의 상황을 빌어 이번 소리바다를 엮어가는 형국을 보며 참으로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못버리는 유전자 소유물질이 있구나 생각하며 코스타 시장도, 미국의 나스닥을 동조화합을 깨지 못해 오늘날 벤처강국의 주가가 강국다운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빠져버린 남았습니까. 미국법원에서 결정을 내렸다는데 그네들이 항상 옳은것일까요? 세계의 경찰을 자칭하는 이들이 이라크에 그동안 재고로 물어둔 무기를 다쓰고 더나가 석유생산량까지 조절하여 그동안 장기호황 부유한 생활을 한 그네들인데 과연 우리가 어렸을때 교육받은 진정한 우방국일까요,그럼 이번 미대통령 선거도 법원판결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과연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요. 그래서 한나라 대통령한테 This man이라는 경어를 쓰는건가요. 사대주의 사상이라는 표현이 이럴때 쓰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 표현이 다듬어지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저는 밑바닥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번호 : 223
글쓴날 : 2001-04-17 21:49:24
글쓴이 : 이재형 조회 : 144
제목: 소리바다 사용자의 입장

저희 음악감상자의 입장에서 소리바다는 음악을 알고 음악을 즐기는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음악에 관심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 이것은 우리나라 음악문화의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런 음악감상의 좋은 서비스를 막는다는 것이 음악계의 저변확대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않을까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장래의 창작자에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음악하는 궁극적 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이며 예술인의 윤리로도 명분이 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광고비 받든지 유료화해서라도 소리바다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소리바다만큼 음악감상에 편리하고 좋은 것은 아직 없으니까요. 전 소리바다를 통해서 많은 음악을 알게되었고, 그런 다양한 노래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이시대에 태어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행운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소리바다가 유료화하는데에는 음반협회의 반대가 있다는군요. 저작권협회에서는 동의한다는데 음반협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구요. 이견 음반협의 어떤 다른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번호 : 224
글쓴날 : 2001-04-17 23:18:57
글쓴이 : 아리카 조회 : 43
제목: 소리바다 패쇄 반대입니다.

우연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새 소리바다가 냅스터 판결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상태인 것 역시 알고 있구요. 저작권 침해 문제도 많이 거론되오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 소리바다 패쇄를 반대하고 소리바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네티즌입니다. 소리바다가 왜 패쇄되어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요 mp3 파일.. 솔직히 우리나라 가요계를 살렸으면 살렸지 음반 판매를 줄인다는

니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mp3파일로 한번 들어 본 후 좋으면 음반을 삽니다. 소장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가요계가 그만큼 음악적인 수준이 높다면 굳이 음반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악성이 충분이 있는, '뮤지션'라고 불릴 만한 가수들의 음반을 누가 마다할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금 소송을 건다니 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 판매량을 늘려서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요계가 '아무나 얼굴 반반하면 가수한다'란 식의 논리를 세우게 해 준것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소리바다가 나오면서 점차 인식이 달라진 것이 주위에서도 느껴집니다. 소리바다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접하면서 조금씩 진짜 '좋은'음악이 뭔지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정말 좋은 음악이 뭔지를, 얼마나 다양한음악이 있는지를 아시게 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회를 소송으로써 뺏아간다는 것. 정말 한 사람의 네티즌으로써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군요. 그리고 소리바다를 패쇄한다고 해서 그 소송을 거신 분들이 바라시는 대로 음반판매량이 늘어날까요? 한번 여쭙보고 싶군요. 이제 cd나 테이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음악을 돈을 주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지금 한국음악산업협회. 그분들이 소송을 거신다는 것은 첨단 산업을 역행하고 인터넷상의 '보장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유의 취지를 거스르려 하시고 계신겁니다.

소리바다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를 더 말해볼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mp3의 한곡당 다운 가격이 1000원 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이라는 돈. 보통 테이프를 사면 가격이 6000원 정도인데 적어도 노래가 15곡 이상정도는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견 순전 바가지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순전 장사속이죠.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정말 짜증이 확 납니다. 소리바다를 유료화 시키면 이제 그 두배의 돈을 물리시려 하실 겁니까? 네티즌들을 '봉'으로 보고 계신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소리바다에서 직접 mp3를 유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소리바다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뿐일텐데요.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두 운영자님께 2000억대에 이르는

제 2 장 디지털 저작권

피해액을 배상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 바다를 무료로 운영하시던 두 분이 무슨 돈이 있으셔서 2000억이나 되는 돈을 배상하실까요? 소리바다는 사익을 바라고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신 것도 아니구요.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한국음반협회분들. 정말 이때까지 음반을 비싼돈 주며 샀던 제 모습이 후회스럽습니다. 더 이상 음반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없군요. 네티즌들이 소리바다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지. 지켜보십시오. 소리바다에 가진 애정들과 관심을 하나로 모으는, 단결된 무서운 힘을 보여주실테니까요.

번호 : 225

글쓴날 : 2001-04-18 00:04:25

글쓴이 : 소리바다 없인 못살아 조회 : 31

제목: 소리바다 힘내자~ 핫팅!!

한국음반저작권협회 정말 넘하네요.. 할일이 그케 없으신지 원.. 솔직히 전 소리바다서 음악 듣구서 안 들었을 때보다 앨범을 훨 많이 샀어..함 들어보니 그앨범들이 넘 갓구 싶어서여.. 저번에 피디수첩인가 어디서두 조사했을때, 음반판매수량이 줄었다든지 그러진 않았던데요..여기 사이트 폐쇄되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싶어 그러나본데, 전혀 아니올시다에여.. 여기 회원이 켈 많아서 때돈 벌어 보자 이젠데..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네여.. 글구 지적재산권 운운하며 그러는데 글꺼면 여기 회원이 소수일때 그때부터 주장해보지 왜 지금에서야 그러는건지.. 하여튼 소리바다 영원해야 해여.. 쭈욱~

번호 : 226

글쓴날 : 2001-04-18 02:07:56

글쓴이 : 우야 조회 : 77

제목: 소리바다, 인터넷, 그리고 Copyright.

우선 외국에 오래살아서 한국말이 서투니 대강 읽으시기를. 저는 소리바다 사용자 아님다.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이제껏 몰랐습니다. 친구가 써보라고 추천해줘서 와봤습니다. 군데

Napster와 같이 폐쇄하려고 하는군요. 당연히 기정 앨범의 음악들을 받아서 앨범 내용으로 쓰는것은 현 사회의 문제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와레즈 등등). 먼저 폐쇄 하려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넷은 정보 공유의 바다입니다. 단순히 MP3 파일들을 교환할수 있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불법으로 볼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MP3에만 얽매여서는 안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인터넷 자체가 불법일테니까요.

예로 제가 자주 들리는 사이트중하나를 시를 사랑 하는 모임입니다. 거기서 서로 좋아하는 시들을 써 주지요. 이 역시 엄연한 불법행위구요. 까짓거 시 좋은거 몇개 카피해서 프린트하면 시집 뭐하러샵니까? 시 몇개 써놓고 7000-8000원 하는거 (대부분의 씨디 값이랑 비슷하지요). 제가 동아일보 (여기서 보고 왔으니)의 기사를 읽던중, 제가 맘에 드는 유머나, 만화, 혹은 기사를 보고서 그것은 단순 Copy and Paste로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낸다면,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해야하는 문제일겁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들은 분명 제 intelectual property가 아닌 동아 일보의 intelectual property를 제가 훔친것과 같은 행위니까요 (MP3를 서로 썬어하는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다면 Email역시 불법행위를 할수 있는 매체이므로 폐쇄하여야 할것아닌가요 --.---; 그리고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Messanger서비스 역시 불법일테구요. (예 지니, 야후, AOL, MSN등등).

대부분의 그림들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개인 홈페이지의 자기 가족 사진등등은 저작권이 없지만, 대부분의 연예인 사진들은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것들을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다운 받고, 또 친구들에게 보내는 행위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 Copyright는 데모게임이나 유틸등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좋다면웨어를 친구에게 복사 해주는 것 역시 불법 행위구요. 계속 할까요? 지겹죠.. 그러면 불법 아닌것이 남는것이 무엇일까요? 몇몇 대머리아저씨의 가족사진, 그리고 되지도 않는 자작시 몇개, 쓰잘데 없는 잠동사니 뿐일겁니다. 저는 대학생이므로, 숙제로 Essay를 씁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제 글로 써야지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한 부분을 배껴야한다면, 출처와 저자를 분명히 밝혀야하구요 (외국은 그렇습니다...밝혔듯이 한국에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은 합법적입니다 (제가 출처와 저자를 밝혔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internet의 Copyright law는 출처와 그 저작권자를 인정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사회의 법과 같이 불법 매개로 취급하려고 하면, 차라리 컴퓨터를 없애는 것이 더 빠를듯 싶습니다. 어차피 불법행위를 저지를것 뭐하러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고 꼭 소리바다와 같은 서비스가 건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인즉. 솔직히 다운 받은 노래의 저자 (가수)의 앨범을 몇%나 구매하시는지요? 10%? 대부분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요새 좋아하는 노래 17-8개 받아서, 개중 앨범 17-8개 사는 명칭이 없는 보니까요. 솔직히 엄청 많은 시간을 써서 정성을 들인 앨범이 단순히 MP3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싶은 사람은, 당사자의 입장으로 볼때 아무도 없을테니까요. 저 역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20000자(2만.-.---;) graduation thesis를 그대로 배껴서 누가 자기거인냥 행세하면 죽어버릴테니까요.

그러나 꼭, 어떤 사람이 주장하던, 유료 서비스로 바뀐다고 해서 더 낫아질것도 없다고 봅니다. 음반 회사야 돈받으니까 상관없지만, 도매상과 소매상이 망할테니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끝까지 읽으신분...졸려서-.---;), 그냥 MP3는 공짜고, 다운받았으니 앨범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의 사고방식(99.99%라고 봅니다.저 포함해서) 을 바꿔놓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반회사들 역시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예로 Music Video포함한 DualCD로 판매하여 구매자가 팬으로서의 소장 가치가 있을수 있도록.., 아니면 MP3를 인정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시던지...소리바다 없어야, 애매한 불법 MP3사이트만 왕창 늘어 날테니까요. 그럼...졸려서 읽지도 않고 그냥 타이핑 해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샤샤샤샤

번호 : 229

글쓴날 : 2001-04-18 18:29:55

글쓴이 : 김지태 조회 : 88

제목: 만약 p2p 가인정이안된다면.....

현재 p2p 쓰고있는 프로그램이 머머잇죠? aol 이후 소리바다 대신저 msn 지니 등등 커억 그럼 인터

넷상의 1:1대화등 사진 화상채팅 몽땅 한꺼번에 사라지는건가요? 대답좀해주세요.....

번호 : 231

글쓴날 : 2001-04-19 13:18:23

글쓴이 : 오병일 조회 : 74

제목: Re: 만약 p2p 가인정이안된다면.....

만일 소리바다가 폐쇄된다고 해도, p2p라는 기술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p2p를 이용해 개인들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화되는 것이고, 소리바다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되겠죠. 각 사업자들은 음반사 등과 별도의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번호 : 230

글쓴날 : 2001-04-19 00:01:20

글쓴이 : 마음깊이 조회 : 43

제목: 새 시대의 도래~

음... 소리바다를 고소한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요. 세상이 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고소하신분들을 정말 미워서 하는 말씀이 아니구요. 앞으로 약한 힘으로도 늘어버리는 "테이프"와 덩치크고 가지고다니기 힘든 "CD"의 시대는 지나간다고 봅니다. 연탄 보일러 시대때는 너나나나 연탄을 썬지만, 이제 기름보일러 앞에서 점점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리바다를 고소하시는 것보다.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직감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게 현명한 판단이 아닌까 싶네요^^

번호 : 232

글쓴날 : 2001-04-19 13:36:50

글쓴이 : 까밀 조회 : 31

제목: 소리바다 화이링~!!!

소리바다가 없었다면, 저같이 음악 안 듣는 사람이 음악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음악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음악

을 들어보지 않으면, 좋은지 알 수없죠. 저는 티비의 음악채널도 잘 안보고, 라디오도 잘 안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하면서 소리바다를 통해 쉽게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지금은 음악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솔직히 음악자료의 공유는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리바다가 우리나라 음악발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음반 판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음악을 들어보고 좋으면 그 음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시디의 음질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건 아무 문제 안될 거 같은데요. 음반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게 되면, 표절했을 경우 사람들이 쉽게 음악의 표절을 알게될까봐? 예전에도 우리는 친구들에게 테이프를 빌려서 복사하여 들던때가 있었습니니다. 그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공유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단지 음악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소리바다사용자들의 맘이고, 소리바다 운영자의 맘입니다. 음반사들의 때문에 상업적인 맘과는 천지차이지요. 음반사관계자분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당신들처럼 돈벌기 위해 나쁜맘 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들과 같은 부류로 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번호 : 233
글쓴날 : 2001-04-19 19:20:48
글쓴이 : 영원불멸 소리바다 조회 : 74
제목: mp3 플레이어는 팔면서 mp3공유하는걸 없애자구요?

헐.. 참 기가막힙니다. 막말로 소리바다 없으면.. mp3산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런게 어딴어? 어짜피.. 불법오류.. 사람들끼리끼리 통해서.. mp3막는건 불가능하구.. 또 소리바다자체두.. 하나의 운영자가 개발한 사업이라고도 할수있는거지. 열나짜중.. 왜 괜히.. 잘쓰구있으니까.. 뭐라그러는지.. 또..mp3 듣는다구.. 살 cd를 안사나? 가수들.. 지네들 노래.. 들을만한 한데.. 돈주고 사긴 아까우니까.. 듣는거지.. mp3나온다

구 뭐라하면.. 방송에는 왜 나와? 그것두 노래 공짜루 들려주는거 아닌가? 울나짜중..

번호 : 234
글쓴날 : 2001-04-20 01:46:05
글쓴이 : 허접이 조회 : 61
제목: 소리바다 운영에 대해....

소리바다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여... 저도 소리바다 사용자중 한사람으로써 소리바다의 폐쇄에는 반대합니다. MP3의 저작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음반기획사들의 이따른 고소조치는 이해는하나 그렇다고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 공유를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MP3의 정보 공유를 차단한다고 이미 인터넷상에 널려있는 데이터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재 사용자들을 전부구속조치를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리바다의 폐쇄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 MP3 PLAYER 시장이 크나큰 타격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가뜰이나 경쟁이 어려운 시정에 MP3 PLAYER 회사들은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은 뻔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가 펜맨이라는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는데 회사의 월급도 제때 못받고 월급대신 펜맨에서 만들어진 MP3 PLAYER를 3대씩 나눠 주면서 기계 팔아서 월급을 대신하라고 한다더군요... 듣고나서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가뜰이나 달러환율이 높아져 자재수입 단가가 높아져 전자업계에서 요즘 물건 생산도 제대로 못한다더군요... MP3 파일의 사용으로 인해 음반기획사가 적자를 보는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 MP3 파일만을 고집하는것도 아니고... 암튼 내일 신라호텔에선가 토론회를 한다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번호 : 235
글쓴날 : 2001-04-20 02:54:01
글쓴이 : 개김 조회 : 57
제목: 이렇게 해보면 안될까?

음반협의 소리바다 고소 사건이 불거진 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뭐 그리 골똘히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거 같다. 그간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었는데 다른 글들을 보며 내 생각을 정리할 힌트를 얻게 되었다. 사족이지만 이래서 토론의 장이 필요한가보다.... 피식

여기에 써 있는 많은 글들을 읽으며 한 가지 웃긴 점을 알게되었다. 왜 소리바다를 고소한 사람들이 가수들이나 작사, 작곡가 모임이 아니고 음반협 사람들이었나.....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가수와 작사, 작곡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담 왜 지적재산권과 관련없는 음반협 사람들이 들고 일어선걸까?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기득권때문일 것이다. 저작권협회나 가수들은 소리바다의 유료화에 찬성을 하였는데 음반협에서는 그 협상안마저 거부하였다는데서 더 분명히 확신하게되었다. 사실 난 음반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잘 모르고, 음악을 아주 사랑하여서 소리바다를 늘상 사용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3자구도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만, 충분히 1:1의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가수들은 그리고 작사, 작곡가들은 음반사의 횡포에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도 밀천이나 백이 없으면 들려줄 수 없다. 그리고 음반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불한 가격에 상응하는 음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좋은 노래 한 두곡을 위해 좋지않은 혹은 좋아하지 않는 다른 노래들도 같이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이것은 분명 거대 자본과 힘을 갖고 있는 음반사측의 횡포이다. 하지만 소리바다와 그리고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공유는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줄 수 있다. 현 음반사회는 두둑한 밀천과 든든한 백이 있어야만 (그리고 요즘에는 꽤 미끈한 외모도 곁들여서) 가수로 데뷔할 수 있지만, 소리바다 안에서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만 선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부르고, 그 노래가 소리바다를 통해 유포되고, 소비자는 소리바다를 통해 새로운 노래를 접해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된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가수들은(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의 생계비를 마련하면 된다.(난 예술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별로 못마땅하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음반사의 할일은?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바로 여기에서 음반사가 소리바다를 고소하고, 소리바다의 유료화도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드러난다. 소리바다가 존속하고, 그러한 공간이 더더욱 늘어난다면 그동안 음반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뿐더러 더 이상 살아있을 수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소리바다를 살리고 싶어하며, 정보공유를 주장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그동안 음반사의 횡포와 음반시장 독점으로 소비자뿐 아니라 가수, 작사,작곡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찾아보고, 정보공유를 통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제시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음반사 쪽에는 저작권이 없기때문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가수, 작사,작곡가들과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음반사들을 고소해보는 것은 어떨지? 소비자 우롱죄, 창작의 자유 억압죄 등으로..... (근데 이런 죄목이 있긴하냐~)

번호 : 236
글쓴날 : 2001-04-20 21:29:45
글쓴이 : 이인호 조회 : 98
제목: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p2p의 mp3 교환을 막을 수 없다. 아니 꼭 p2p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100%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mp3파일은 유통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음악파일들이 유통된 경로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3대 통신망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에 아무런 제약없이 mp3 파일들이나 낮은 음질의 wav 파일들이 올라오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대형통신망들은 저작권이 있는 mp3 파일들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 2) mp3 를 올리지 못하게 되자 많은 음악들이